



2021.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1-02호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성문주, 김창환, 최성수, 조인영, 이수빈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연구진

내부 연구진

성문주 부연구위원(연구책임)

외부 연구진

김창환 교수(켄자스대학교 사회학과)

최성수 조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조인영 조교수(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외부 연구원

이수빈 박사과정(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적 성취가 본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능력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회가 공정하다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교육적 성취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를 좌우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수저론’과 ‘개천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모의 지위가 교육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또한 확산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과 불안정한 미래,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우려는 사회 다방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직업선택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획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교육의 기회에 대한 불평등과 공정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층 위주의 사교육과 이로 인한 명문대학 진학의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로 대물림되고 있어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계층이동의 주된 통로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대학 및 대학원-진학을 중심으로 과연 한국에는 어느 정도의 교육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추세는 어떠한지, 이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출신 가족계층의 영향력이나 성별 간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해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통찰하고 정책적 함의와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본원 내부 및 외부 연구진들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외부 연구진으로는 미국 캔자스대학교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최성수 교수와 글로벌행정학과 조인영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신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해주신 김창환, 최성수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선생은 자료 분석, 일부 집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본 연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주셨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연구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가 한국 고등교육의 불평등 개선 및 질적, 양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장 한국의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	11
제1절 서론	13
제2절 한국 대학 진학에서의 기회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이론적 배경	17
1. 역사적 배경: 한국 대학 교육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17
2. 이론적 배경: 대학 진학과 기회 불평등	24
3. 소결	31
제3절 연구 전략: 자료의 소개 및 분석 방법	32
1. 자료	32
2. 변수 측정	36
3. 분석 방법	38
제4절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의 격차 추세	41
1.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에 대한 기존 연구들	41
2. 부모 학력의 절대적 지표에 따른 자녀 학력의 격차 추세	43
3. 부모 학력의 상대적 지위에 따른 자녀 학력 격차의 추세	47
4. 소결	51

목 차

제5절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 추세	52
1.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 이론적 쟁점은?	52
2. KIEOD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53
3. 소결	58
제6절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 추세	59
1.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 문제의 이론적 쟁점	59
2. KIEOD를 통한 분석 결과	61
3. 소결	66
제7절 결론	67
제3장 대졸 직후의 대학원 진학과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69
제1절 서론	71
제2절 이론적 검토	74
1.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과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	74
2.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 교육	78
3. 한국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기존 연구	82
제3절 방법론	86
1. 자료	86
2. 변수	87
3. 분석 전략	90

제4절 분석 결과	92
1. 대학원 진학 확률에 관한 기술적 분석	95
2.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01
3.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	107
4. 대학의 수평적 계층화와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	112
제5절 결론	117
제4장 정책제언	121
제1절 하위 계층 출신 남성들의 낮아지는 대학 진학률	123
제2절 1990년대 대학 확대 정책이 기회 불평등(사회이동성)에 가져온 결과 평가	127
제3절 엘리트 대학 중심 이공계 지원 정책과 젠더 및 계층 불평등 ...	131
제4절 대학원 이상 교육의 출신 계층 및 젠더 효과 감소 필요성	133
제5절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135
참고문헌	139
Abstract	155
부록	159

표 목 차

[표 1-1] 연도별 대학 진학률	5
[표 2-1] KIEOD 하위 표본별 응답자의 최종 학력 수준 분포	34
[표 2-2] 상위권 대학 구성	36
[표 2-3] 출생 시기 및 자녀 교육 변수별 가용 자료	37
[표 2-4]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에 대한 출판 연구	42
[표 3-1] 기술통계	92
[표 3-2] 교육 배경별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 진학률	95
[표 3-3] 가족 배경별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 진학률	98
[표 3-4] 4년제 대졸자 대학원 진학 확률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101
[표 3-5] 4년제 대졸자 대학원 진학 확률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여성과 가족 배경의 상호작용 효과	108
[표 3-6] 대학 유형별 대학원 진학 확률에 끼치는 성별 효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113
[표 3-7] 대학 전공별 대학원 진학 확률에 끼치는 성별 효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115
[표 4-1] 성별에 따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 및 학생 수	124

[그림 1-1] 연도별 대학 취학률	4
[그림 1-2] 대학 진학률(성별)	6
[그림 2-1] 대학 진학률 추세	18
[그림 2-2] 대학 수 추세	20
[그림 2-3] 출생 코호트에 따른 부모의 최종 교육 연수 변화	23
[그림 2-4] 출생 코호트에 따른 대졸자 부모 비율의 변화	24
[그림 2-5] KIEOD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 수준 분포	35
[그림 2-6] 부모의 4년제 대졸 여부에 따른 교육 성취에서의 격차 추이	45
[그림 2-7] 부모의 4년제 대졸 여부에 따른 명문대 진학 격차 추이	47
[그림 2-8]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자녀 교육 성취에서의 상대적 격차 추이 (상위 20% 대 하위 20%)	49
[그림 2-9]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명문대 진학에서의 상대적 격차 추이 (상위 20% 대 하위 20%)	50
[그림 2-10]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 추세	55
[그림 2-11]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대졸자 내 계층화 추세	57
[그림 2-12] 명문대 입학 여부 및 STEM 전공 선택 여부에 따라 살펴본 성별 및 가족 배경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 추세	62
[그림 2-13] 성별, 계층, 대학 서열에 따른 전공계열 선택 추이(1980년 이후 출생자, GOMS 자료)	64
[그림 3-1] 연도별 대학원 진학률	100
[그림 3-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	105
[그림 3-3] 부모 소득 수준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 남성과 여성	109
[그림 3-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성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	111
[그림 4-1] 대학군별 부모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 고소득 진입 확률의 비	128

간략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교육 불평등 추세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가족 및 소득 배경, 성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함.

□ 1장 서론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회적 담론은 불평등과 공정성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굳건해지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음.
- 또한, 사회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 배경의 도움이 아닌 본인이 타고난 능력에만 기반해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 사회가 더 불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교육 불평등, 특히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함.

□ 2장은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EOD)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세기에 걸쳐 출생한 한국인들의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함.

- 대학 진학(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부모의 고학력 여부로 측정)에 따른 격차는 최근 출생자로 올수록 뚜렷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상위 15개 대학으로 정의한 상위권 엘

리트 대학 진학에서 격차가 감소하거나 증가했다는 근거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이는 부모 학력을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측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음. 상대적 지표로 측정할 경우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 부모의 학력 수준 증가가 자녀의 대학 진학 격차의 동적 추세에 중요한 요인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남성보다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보여 주었음. 여성이 대학 진학에서 남성을 추월하는 양상은 특정 계층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계층을 불문하고 여성 전반의 부상에 의한 것임.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는 4년제 대학 진학 및 상위권 엘리트 대학 진학의 경우 성별 격차는 완전히 사라지고 계층 간 차이만 존재함. 그러나 전문대 이상 대학 진학에서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 간 대학 미진학의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는 새로운 젠더 격차가 두드러지는 양상이 발견되었음.
- 한편 이공계열 전공 선택에서의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특히 상위 계층 남성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해짐. 대규모 대학 확대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대학 진학의 양적 측면에서 계층 및 젠더 불평등 경향이 나타났지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상위 계층 남성들의 이공계 선택이 특권적 영역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3장에서는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의 영향력을 분석함.

- 대학의 팽창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계층화를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서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 졸업 후 추가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그리고 이에 성별 격차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본 분석은 2010~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력을 졸업 대학과 전공을 통제한 후 순(純) 효과로 측정함.
- 구체적인 출신 대학, 세부 학부 전공, 출신 고교의 유형 및 인구학적·기술적 변수를 통제한 후 부모의 소득, 자산, 직업, 교육 네 가지 차원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함.
- 그 결과,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 가설과 달리 한국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은 구체적인 대학과 세부 전공을 통제한 후에도 대학원 진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부모의 소득과 학력 수준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상관의 정도가 성별로 상이하여 아들보다 딸의 대학원 진학에 가족 배경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됨.

상세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교육 불평등 수준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가족 및 소득 배경, 성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함.

- 1장은 서론으로 한국의 교육 불평등 전반에 관한 담론을 간략히 확인함.
- 2장에서는 한국의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성별 격차를 가장 최신의 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함.
- 3장에서는 한국의 대학원 진학에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과 성별 격차를 가장 최신의 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함.
- 4장에서는 이 같은 발견을 토대로, 관련된 정책제언들을 제시함.

1 서론

서론에서는 한국 대학 진학률의 전반적인 역사적 추세 및 성별 격차에 대해 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대략적으로 요약함.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회적 담론은 불평등과 공정성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굳건해지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사회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 배경의 도움이 아닌 본인이 타고난 능력에만 기반해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 사회가 더 불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상위 명문대 진학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고 있으며, 불평등, 공정성, 젠더 차별과 관련한 더욱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임.

- 종합적으로, 대학 진학에서 타고난 가족 배경과 젠더에 따른 격차가 지난 20세기 출생자들 사이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 장기적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사회적 지위 및 자원 분배 과정에서 핵심적 자본으로 작용하는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배분 과정의 불평등이 나아졌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작업임. 명확한 사실관계를 경험적 근거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젠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대학 진학 및 대학원 진학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
- 대학 진학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한국에서 대학 진학이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결혼, 그 이후의 삶과 관련한 중요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결정적 지점이 되기 때문임.
- 또한, 추가적인 노동시장 프리미엄 획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대학원 진학의 불평등과 성별 격차를 확인함.

2 한국의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 2장에서는 9개의 주요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해 구축한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EOD)를 바탕으로 대학 진학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파악함.

□ 한국 대학 진학에서의 기회 불평등: 역사적 배경

- 역사적으로 한국 대학 교육 시스템은 급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음. 지난 20세기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등교육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확대되어 왔으나 한국의 고등교육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점이 있음.

- 첫째, 고등교육 확대의 속도와 규모가 압도적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에는 25% 미만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학 교육이 거의 모든 학생이 누리는 보편적 교육의 지위로 탈바꿈함.
- 둘째, 대규모의 고등교육 확대는 주로 외생적인 원인들에 의해 단절적으로 이루어짐. 가장 중요한 외생적 원인은 교육정책의 변화임. 1981년 대학 졸업정원제 도입 이후 1980년대 진학률이 30~40% 수준으로 증가함.
-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전문대학 진학률 확대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 기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술·직능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임.
- 또 다른 외생적 요인은 출생 코호트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임.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대학 진학률의 증가에 기여함.
- 한국의 대학 교육 변화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여성의 도약임. 전통적으로 교육에서 나타났던 젠더 불평등 측면은 교육 확대 과정 속에서 상당히 완화되었음.
- 경제발전과 동반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의 향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교육 기대 수준 역시 증가함.

□ 이론적 배경: 대학 진학과 기회 불평등

-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국가들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생각처럼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둠.
- 한국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최대한 유지되는 불평등(MMI: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이론에 따르면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 집단 간 격차는 단순히 교육의 문호가 확대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님. 교육 확대가 격차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먼저 상위 계층 자녀들의 진학이 완전히 보편화되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포화 상황에 이를 때 시작되며, 그때부터 진학 증가가 오롯이 하위 계층 자녀들에 의해 이뤄지고 격차의 감소로 직결된다고 봄.

- 둘째는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EMI: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론임. 이는 MMI 이론이 설명하는 불평등 혹은 격차는 오로지 교육의 양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어 진학 및 최종 학력에서 나타나는 격차만 설명한다는 점을 비판함. 많은 경우 교육 불평등은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도 질적인 차원으로 존재함. 즉, 계층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가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
- 마지막 이론적 관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론으로, 이는 교육 기회 불평등 및 그 역동성을 개인의 투자와 시장에서의 숙련 노동 수요 및 공급으로 설명함.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개인이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로부터 높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인해 투자에 조달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한 경우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로 반영될 수 있음. 즉,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유동성 제한(credit constraint)의 결과임.

- 이런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 불평등의 추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함.

□ 분석 결과

- 교육 불평등의 추세에 대한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족 배경, 성별, 자녀의 교육 성취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전국 단위에서 대표성을 갖는 표본 조사 자료들을 모두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한국노동패널,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한국복지패널,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종합사회조사, 여성가족패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EOD)를 구축함.

- 이에 포함된 자료는 전국 단위에서 대표성을 갖도록 표본이 수집되었으며, 전체 표본의 수는 약 28만 명임. 다년간에 걸친 다수의 표본을 수집하고 있는 복수의 표본 자료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존 단일 표본 중심의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 종합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교육 불평등 추세를 추정할 수 있게 함.
- KIEOD에 포함된 자료들은 표본 수집 시기, 표본 규모, 조사 방식 등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임. 이 점을 감안하여 개별 자료의 표본들을 별개로 분석 하되, 각 자료에서 조사된 항목들의 측정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자료들을 통해 얻은 추정치들의 비교 가능성을 높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은 크게 세 가지임. 첫 번째로는 가족 배경에 따른 학력의 격차 추세를 절대적 격차와 상대적 격차의 측면에서 검토 함. 두 번째로는 가족 배경에 따른 학력의 격차 추세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함. 세 번째로는 대학 진학자들 사이에서 가족 배경과 성별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의 추세를 대학 서열과 전공계열 선택의 관점에서 검토함.
- 분석 결과, 첫째,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학력 지위를 바탕으로 본 가족 배경의 차이에 따른 대학 진학의 격차는 양적 측면에서 분명 감소했고, 상위권 명문대 진학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그 격차가 증가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음. 부모 학력 지위 상위 20백분 위와 하위 20백분위 격차로 측정한 명문대 진학에서의 불평등은 1950년대 출생자 이후로 10%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둘째,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추세를 보면, 다른 산업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녀 간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가 감소했고 최근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우위가 드러나기 시작함. 또한, 이런 변화는 특정한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계층과 관계없이 이루어졌음. 다만 이공계 전공 선택 여부에서 성별 분리 양상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셋째, 이공계열 전공 선택에서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발견됨. 특히 상위 계층 남성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른 성별 계층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해짐. 특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남성의 인문계열 전공 선택 경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뚜렷하게 감소하고, 대신 이공계 전공 선택 경향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양상이 발견됨.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상위 계층 남성들의 이공계 선택이 특권적 영역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3 대졸 직후의 대학원 진학과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대학 진학률은 급격히 높아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5~34세의 대졸 학력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대학 교육의 양적 확대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교육 기회의 계층적 격차를 줄인 것이 사실.
- 하지만 대학 교육 기회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상위 계층은 교육 기회가 평등해질 때 교육의 추가적 양적 확대와 질적 차별화로 새로운 계층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임.
- 대학 교육의 팽창은 대학원 교육의 팽창과 중요성 증대로 이어지며, 이러한 변화 때문에 대학원 교육 기회의 계층적 격차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실정.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는 대학원 졸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서 계층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또한, 대학의 팽창과 더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대학 교육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 지 오래이며, 한국에서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음. 하지만 한국의 대학원 교육에서 여

성의 진학률이나 학위 취득률이 남성을 추월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더욱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원 교육에 끼치는 성별 격차에 대한 연구는 미비함.

- 대학원 교육 기회의 계층적 격차와 성별 격차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계층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른 연구에 비해 대학원 진학에 관한 엄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2010~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이용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 배경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력을 졸업 대학과 전공을 통제한 후 순(純) 효과로 측정함. 2010~2018년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구체적인 출신 대학, 세부 학부 전공, 출신 고교의 유형과 인구학적·기술적 변수를 통제한 후 부모의 소득, 자산, 직업, 교육 네 가지 차원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함.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과 대학원 진학의 상관관계가 성별로 차이는지 측정함.
- 연구 결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은 구체적인 대학과 세부 전공을 통제한 후에도 대학원 진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며, 부모의 소득과 학력 수준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는 성별로 상이하였음.
- 특히 아들보다 딸의 대학원 진학에 가족 배경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방법론 및 분석

- 2010~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함.
- 본 연구의 주 종속변수는 더미변수로 측정된 대학원 진학 여부이며 주

독립변수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모 소득, 부모 자산, 부모 교육, 부모 직업 네 가지로 측정함.

- 본 연구는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를 졸업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도 구분함. 공개된 GOMS 자료는 구체적인 졸업 대학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한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구체적인 226개 졸업 대학 정보와 공개된 원자료를 통합하여 출신 대학을 명성, 국공립대와 사립대 여부,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 기술통계 결과, 성별 격차는 크지 않지만, 최상위 명문대 재학자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으며, 최상위 명문대 학교별로 분석해 봐도 모든 학교에서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았음.
 - 기타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계층 지위에 따라 부모의 교육 투자가 성별로 달라지는 경향이 보임. 계층 지위가 낮은 부모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 경향이 계층 지위가 높은 부모보다 더 클 가능성을 시사함.
-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에서 부모 소득 상층과 중하층은 7%포인트가량의 대학원 진학 확률 격차가 존재.
 - 부모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실제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끼침. 특히 부친의 학력보다 모친의 학력이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컸으며 부친이 대학원을 나왔을 때는 25.8%가, 모친이 대학원 학력을 갖고 있을 때는 29.1%가 대학원에 진학하였음.
 -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 격차는 성별로도 달랐음. 거의 모든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남성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단 하나의 예외로 모친이 대학원을 나왔을 경우에만 성별 격차가 사라짐.

- 로지스틱 회귀 기법으로 대학원 진학 확률의 상대적 격차를 추정할 경우, 가족 배경과 교육 배경이 모두 같을 경우에도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대학원 진학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 직업, 교육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임.
- 분석 결과는,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원과 달리,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 확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상층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중간층이나 하층에 비해 크게 높으며, 대학 진학 이후 출신 계층이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 끼치는 영향이 급감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은 대학 졸업 이후에도 대학원 진학이라는 측면에서 출신 계층의 영향이 지속되었음.
 - 또한, 대학의 명성과 전공,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모두 통제할 후에도 출신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대학원 진학 확률이 상당히 달라졌음. 일반고 인문계에 비해 일반고 자연계나 과학고·자사고·특목고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한계효과 면에서 각각 5.0%포인트, 6.8%포인트 높았음.
-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가 성별로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과 여성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두 가지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성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나는 부모의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모친의 대학원 학력임.
 - 우선 소득 전 분위에 걸쳐 여성보다 남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높았으며,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하층 출신 여학생의 추가적 교육 기회가 같은 소득 하층 출신 남학생의 추가적 교육 기회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소득 하층과 달리 소득 상층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대학원 교육 기회의 유의미한 격차가 관찰되지 않았음.
 - 부모의 계층 지위에 따른 성별 대학원 진학 기회의 이질성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남. 남녀 모두 가

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원 진학 확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만,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은 남성보다 가족 배경의 계층 격차에 더 민감하였음.

- 마지막으로, 출신 대학의 명성과 전공에 따라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대학 유형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차이를 보면, 앞서의 분석에서 여성은 모든 변수를 통제 한 후에도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남성보다 낮았는데, 대학 유형을 구분 해서 봤을 때, 최상위 명문대와 차상위 명문대에서는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남성보다 높았음. 출신 대학의 명성이 명문대에 속하지도 지방대에 속하지도 않는 중간 위치의 대학 출신일 때, 남성은 여성보다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추가로 축적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공별로도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가 달랐음. 인문·교육·자연계는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가 유의하지만, 사회계·공학계·예체능계에는 성별 격차가 없었으며, 사회계는 남녀 모두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낮았음.

- 전공계열에 따라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효과의 성별 격차도 다르게 나타남. 부모 소득에 따른 대학원 진학의 성별 격차는 자연계, 교육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분명히 나타났지만, 사회계와 공학계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부모 소득 효과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음. 사회계와 공학계 졸업자는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도 없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성별 격차도 없었음. 다만, 모친이 대학원 졸업자이면 딸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현상은 모든 전공 계열에 나타났음.

□ 결과

- 분석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 확률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친이 관리·전문직에 종

사할수록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음. 하지만 일반적 기대와 달리 부모의 자산은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을 높이지 않았음.

- 둘째, 대학원 진학의 기대 확률은 최상위 명문대에서 다른 대학군에 비해 확실히 높았음. 전공별로는 자연계의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 진학 확률이 가장 높았고, 사회계가 가장 낮았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연계(21.9%)의 진학 확률이 사회계(평균 6.9%)보다 3.2배 높았음.
- 셋째, 여성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남성보다 낮았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남성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12.0%인데, 여성은 10.8%였음.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모친의 고학력은 남녀 모두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영향을 끼쳤지만, 딸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특히 더 크게 영향을 끼침.
- 넷째,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는 대학의 명성과 전공 계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최상위 명문대나 차상위 명문대 출신자 중에서는 대학원 진학에 성별 격차가 없었으나, 최상위 명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사립대 및 지방 소재 사립대에서도 대학원 진학의 성별 격차가 나타남.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와 자연계에서는 성별 격차가 나타났고, 사회계, 공학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 다섯째,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했다라도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출신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일반고 인문계 출신보다 높았음.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 출신 고교의 지역은 대학원 진학 확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

4 정책제언

- 정책제언에서는 우선 하위 계층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남성들의 낮아지는 대학 진학을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원인으로서 고교에서의 직업교육 강화와 그 결과 성별 분리가 심화된 고교 정책을 지적함.

- 둘째, 급격한 대학 교육 양적 확대 정책이 기회 불평등 및 사회적 이동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함.
- 셋째,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평가를 통한 부실 대학 정리 정책 및 엘리트 대학 중심, 이공계 중심 정부 지원이 장기적으로 고등 교육의 수직적 계층화를 더욱 심화하여 하위 계층 및 젠더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을 지적함.
- 넷째, 대학원 이상 교육에서 전공별로 드러나는 출신 계층 및 젠더 차별 효과 감소의 필요성을 역설함.
- 다섯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만을 논하는 기계적인 기회의 평등론에 입각한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며, 결과적 평등에 대한 더 과감한 정책적 고려와 균형적 대학지원 및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담론으로 급부상한 단어는 불평등과 공정이다. 20대 청년들의 취업난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우려는 사회 다방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맞물리며 각종 수저론과 같은 단어가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문제와 주거 불안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고, 평등과 공정에 대한 연이은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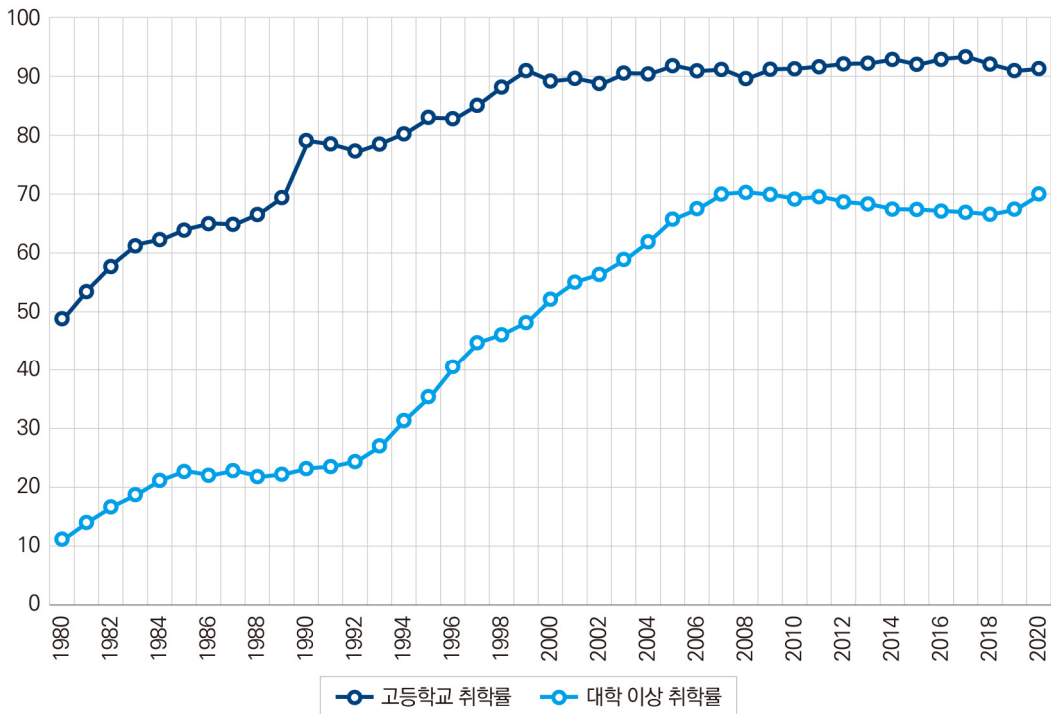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러한 패턴은 1990년대 이후 변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는 학계를 비롯한 다수의 관심사이지만, 현재까지의 학문적 검토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기존보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미디어를 통한 불평등 문제와 공정성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민감도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다양한 불평등 중에서도 사람들은 특히 교육 불평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기간의 빠르고 높은 교육 성취를 통한 문맹 퇴치와 이를 기반으로 인적자원의 수준을 빠르게 향상하여 도달한 생산성 증가 및 경제성장이다. 학력 향상은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 좋은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고, 특히 교육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하고도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산업화 시기,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고학력, 고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증가하였고, 대학 졸업장의 프리미엄 역시 대단히 높았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고도 산업화 시기에 상당수의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사립대학이었다. 공교육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시절, 국가는 다수의 사립대학 설립

을 허가하여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였고, 이에 대학의 수와 대학 진학률은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즉 공교육의 단기적 확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교육 공급을 급속도로 확대한 것이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높은 대학 진학률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단기간의 공급 확대가 대학 진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대학 교육 프리미엄과 맞물려,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균적인 대학 진학률보다 훨씬 높은 수의 인구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표 1-1]과 [그림 1-1]에서는 연도별 대학 진학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와 표는 1980년대 이후의 추세를 보여준다. 가장 최근 10여 년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고등학교 취학률은 2002년 이후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학 취학률은 2007년을 기점으로 70% 수준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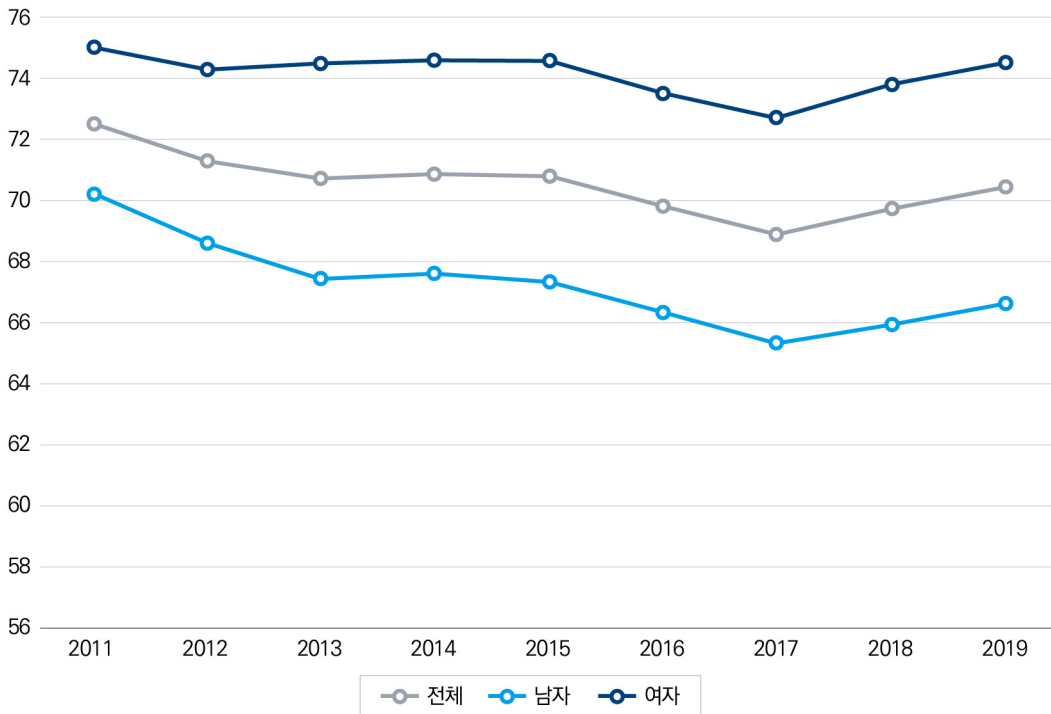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 대학 취학률

[표 1-1] 연도별 대학 진학률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고등학교	취학률	48.8	54.1	58.2	61.7	62.8	64.2	65.2	65.3	67.0	69.8
	상급학교 진학률	27.2	35.3	37.7	38.3	37.8	36.4	36.4	36.7	35.0	36.9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1.4	14.6	17.0	19.3	21.2	22.9	22.3	23.2	22.3	22.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고등학교	취학률	79.4	78.7	77.5	78.9	80.5	82.9	83.1	85.5	88.7	91.1
	상급학교 진학률	33.2	33.1	34.3	38.4	45.8	51.4	54.9	60.1	64.1	66.6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23.6	23.7	24.9	27.1	31.7	36.0	41.1	45.3	46.4	48.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고등학교	취학률	89.4	89.9	89.0	90.6	90.7	92.1	91.2	91.5	89.7	91.5
	상급학교 진학률	68.0	70.5	74.2	79.7	81.3	82.1	82.1	82.8	83.8	81.9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52.5	55.4	56.8	59.0	62.2	66.1	67.9	70.3	70.6	70.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고등학교	취학률	91.7	92.0	92.2	92.5	93.2	92.5	93.1	93.8	92.4	91.3
	상급학교 진학률	79.0	72.5	71.3	70.7	70.9	70.8	69.8	68.9	69.7	70.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69.3	69.7	69.0	68.6	67.7	67.5	67.3	67.4	66.9	67.8
		2020									
고등학교	취학률	91.4									
	상급학교 진학률	72.5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0.4									

자료: 통계청(2021)

다음으로 [그림 1-2]는 성별에 따른 대학 진학률을 보여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진학률이 보통 5~8%포인트가량 높은 편으로, 과거 산업화 시기와는 다르게 최근 고등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는 완전히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교육통계연보; 통계청·여성가족부(2019; 2020)

[그림 1-2] 대학 진학률(성별)

최근 들어 학령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대학 진학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크게 증가하였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기회는 여전히 무척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교육 불평등 및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미디어에서 주목하는 주된 요인은 최상위 명문대 진학에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급증했다는 우려와, 중하위 계층의 경우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진학이 어려워져 추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 간판의 프리미엄을 얻기 어렵고 좋은 직업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학군지라고 불리는 강남 8학군이나 목동과 같이 교육 자원이 밀집한 지역 출신은 장기적으로 교육 성취도가 더 높고 상위 명문대 진학 확률이 더욱 높은 편이다. 핵심은 이러한 학군지에 더욱 질 높은 공교육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학군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교육 단지가 조성되어 대학 입시에 특화된 고액의 교육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학 진학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곧 사교육 지출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이다.

공교육은 그 성격상 정해진 진도에 따른 적기 교육을 강조한다. 반면 사교육은 조기 교육 및 선행학습을 강조하며, 특히 명문 중학교, 명문 자율형 사립고 및 특수 목적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특수한 맞춤형 교육에 강점이 있다. 명문 학교로의 진학이 곧 명문대 진학 확률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사교육에 대한 접근은 결코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많은 부분 특화된 수요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상당한 가격과 정보 비용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 학군지 내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자원을 쉽게 구하기도 어렵다. 이는 학군지의 부동산 가격이 교육을 제외한 다른 환경이 비슷한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지역으로의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진입장벽이다.

정부는 각종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 진학의 사교육 효과를 감소시키려 하였지만 다양한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우수자 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그 어떤 시험 방식을 통해서라도 진학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의 효과를 일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결과 학군지 출신의 대학 입학 성과가 더 좋은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보다는 수시나 학종이 소수자의 입시 결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학계의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점수를 기준으로 줄 세울 수 있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한 시험방식이 아니냐는 일반의 오해 역시 상당하다.

대학 진학률이 60~70% 이상으로 치솟은 후, 명문대를 제외한 대학 졸업장의 프리미엄은 그다지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명문대

라 하더라도 인문계 전공인 경우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진실로 명문대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연 현재 한국에서 대학 졸업장은 효과적인 소득 불평등 억제 기제이자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 기능하고 있을까? 교육의 불평등 억제 효과는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한 채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일까?

이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된다. 과연 한국에서 교육은 불평등을 억제하고 있는가? 특히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교육 수준 향상은 교육 성취를 통한 더 좋은 직업 획득이라는 사회적 이동성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신 계층은 대학 진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인가? 대학원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특히 교육의 계층이동 효과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교육 자체를 불평등을 유발하는 기제로 보는 여러 시각이 존재하며, 이는 주로 고소득층 위주의 사교육과 이로 인한 명문대학 진학의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는 나름의 추론과 관찰에 기반한다. 한국의 많은 대학 수로 인해 대학 진학 자체의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있으며, 결국 최상위 명문대학 진학자에게만 대학 진학의 혜택과 추후 좋은 직업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최상위 명문대학 입학자의 대부분이 소위 강남 8학군 출신의 특권 계층이기에 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진학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실제로 소위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 시내 명문대들과 KAIST나 포항공대와 같은 과학기술 특화 명문대학 신입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소득계층 및 부모 학력 수준-에 기반한 다양한 기사들은 이들 신입생의 다수가 강남 출신이거나 지방 특목고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세계일보, 2021).¹⁾

이러한 미디어의 지적과 현재까지의 학계 연구 결과는 사실 상당 부분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미디어의 열띤 지적과는 달리, 산업화 시기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인 교육 불평등 수준은 사실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교육 불평등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보로 인한 민주적 행정의 양적·질적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눈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한 결과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사회

1) 세계일보(2021. 5. 19.), 「강남구 '107' vs 도봉구 '2'... 부자동네 서울대 싸움이 [연중기획-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http://www.segye.com/newsView/20210518513487>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사실과 인식을 구분하고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불평등 추세, 특히 고등교육 진학에 사회경제적 계층 배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는 더 적실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거쳐야 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층이동의 주된 통로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진학을 중심으로 과연 한국에는 어느 정도의 교육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그 추세는 어떠한지, 이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출신 가족 계층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에 필요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분석 가능한 형태로 단일하게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다양한 자료의 형태-다양한 샘플 사이즈와 자료 수집 기법 등 다양한 시기-로 혼재되어 있는 만큼,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정합성을 가진 분석을 시도한 연구의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에 주목하며,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고등교육 진학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의 양적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데이터를 정밀히 분석할 경우 질적 측면이나 성별 분리의 측면에서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즉, 현시점에서도 과거 산업화 시기의 일면이었던 대학 진학의 성별 격차가 크게 관찰되는지, 만약 대학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어떠한 패턴이 관찰되는지,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계층 배경의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한 기존 연구는 매우 드물다. 고등교육 진학에서의 가족 배경과 성별 격차라는 주제가 갖는 현실적 시사점과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부재는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교육 불평등의 현황 및 추세를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종합한다. 이를 활용하여 우선 대학 및 대학원 진학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현시점에서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에 대해 통찰을 얻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특히 교육사회학 및 계층론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대학 진학과 대학원 진학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저술한 분석 논문을 2장과 3장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는 대학 진학 및 대학원 진학에서의 가족 배경의 영향력 및 성별에 따른 격차를 엄밀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독립적인 연구 논문이다.

특히 본 보고서의 특징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에서 계층 배경의 효과를 확인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대학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노동시장 프리미엄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특히 법학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 진학을 노리는 상위 계층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공계의 경우에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향후 더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프리미엄을 얻으려는 목표하에 개개인의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문계 대학원 진학은 노동시장 프리미엄과는 다소 거리가 먼 측면이 있으나, 기타 상경계 대학원의 경우 역시 더 좋은 직종과 전문성 획득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교육 수요가 더욱 확산된다면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지적해 왔던 불평등 생산 기제는 장기적으로는 대학원으로 옮겨 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에서의 계층 배경 효과나 성별 차이에 대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해 분석한 드문 연구 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과 3장은 각각 독립된 주제를 다루는 분석 논문이다. 우선 2장에서는 대학 진학에서의 가족 배경과 성별에 따른 격차를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대학원 진학에서의 가족 배경 및 성별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3장에서는 가능하면 부모의 소득, 자산, 교육 수준 등 좀 더 상세한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하려 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발견을 종합하고 교육 불평등 재생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책제언을 간략히 다룬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학 및 대학원, 즉 고등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대학 이전의 교육 수준 달성과 이에 따르는 계층이동성을 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대학 교육에 교육 프리미엄이 집중되어 있으며, 초등·중등·고등학교 졸업자는 교육으로 인한 이점을 얻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교육 프리미엄이 집중되어 있는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밝힌다.

제2장

한국의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대학 진학에서의 기회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이론적 배경

제3절 연구 전략: 자료의 소개 및 분석 방법

제4절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의 격차 추세

제5절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 추세

제6절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 추세

제7절 결론

제1절 서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회적 담론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불평등과 공정성이었다. 2010년대 초중반 ‘수저론’과 ‘개천용’ 담론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점차 민감해져 오던 사회적 감수성은 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세대를 건너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런 우려는 곧 누구나 한두 명쯤은 알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일화성 근거를 만들어 내면서 과거와 달리 점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굳건하게 재생산되면서 기회의 사다리는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인식을 사실로 만들어 왔다. 즉,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본인이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나오는지가 중요해지고 있고, 과거와 달리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회적 비평, 심지어 사회과학적 연구들조차 이런 인식을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고 본인들의 주장과 연구 질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더해졌다.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므로 사회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발 과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본인의 성취, 능력 이외의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타고난 환경(특히 가정 환경, 부모의 지위, 사회제도 및 문화적 여건 등)과 독립된 본인만의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 가능한지 자체도 논쟁적이지만, 그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 사회가 더 불공정한지 담론이 제기하는 문제의 경험적 타당성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수년을 특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담론 주제는 젠더 불평등이었다.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온 젠더 집단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편 많은 영역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남성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이라는 인식과 주장이 힘을 더해 오고 있다. 젠더 불평등을 둘러싼 담론적 갈등은 세대 및 정치 담론 그리

고 공정성 담론과 합쳐지면서 첨예한 사회 갈등으로 발전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핵심에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 두 젠더 집단 간 어느 집단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아 온 집단이며 이런 젠더 격차가 어떻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경험적인 근거를 밝힐 수 있을 때 적지 않은 갈등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젠더에 따른 불평등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면서 변화해 왔는지를 교육, 특히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대학 진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지 여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대학에 진학하는지(2년제 혹은 4년제, 명문대 혹은 비명문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전공을 선택하는지를 포괄한다. 대학 진학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이 이후 노동시장 및 결혼, 그 이후의 다양한 정신적·물질적 웰빙과 관련해 중요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결정적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그래서 흔히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받는다. 교육 그 자체가 학생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만들어 내는 목적이 아니고 대학 입시와 선발 과정의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정당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대학 진학이 자녀의 성공 및 안녕을 지원하려는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1차적인 목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와 여유 있는 자원을 갖춘 부모들은 그런 유리한 조건을 자녀에게 전해 주기 위한 주된 경로야말로 학업 성취-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경로다. 한편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상승하도록 도와주려 할 때 결국 매진하게 되는 방법 역시 학업 성취-좋은 대학 진학의 결과를 밟도록 하는 길이다. 즉, 사회적 지위의 유지나 이동을 위한 투자와 노력 모두 부모 입장에서 교육을 통해 1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넓게는 현대사회 좁게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전통적인 남성 젠더의 사회경제적 우위가 극적으로 무너지고 오히려 역전되기 시작한 부분도 교육 특히 대학 진학을 통해서 두 드러진다.

따라서 대학 진학에서 타고난 가족 배경과 젠더에 따른 격차가 지난 20세기 출생자들 사이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 장기적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사회적 지위 및 자원

분배 과정에서 핵심적 자본으로 작용하는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어왔는지 그리고 그 배분 과정의 불평등이 나아졌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불거져 온 일련의 불공정 담론들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경험적 정초 작업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한국 인구집단의 대표성을 가지도록 수집한 9개의 주요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해 구축한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EOD: Korea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Database)를 바탕으로 진행해 온 일련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대학 진학을 둘러싼 기회 불평등 추세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한다. 다만 기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석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발행된 경우 거기에 맞춰 업데이트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글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학 진학과 관련된 교육 기회 불평등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소개한다. 특히 타고난 가족 배경에 따른 자녀 대학 진학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에서의 불평등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이 질문을 부모 학력의 절대적 지위(부모의 최종 학력 학위)에 따른 격차와 상대적 지위(부모들 간 학력의 상대적 위치를 기준)에 따른 격차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둘째, 부모 학력으로 측정된 가족 배경에 따른 자녀 대학 진학에서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 간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 이야기한다. 앞서 살펴본 가족 배경 격차의 변화가 남성과 여성 중 주로 어느 젠더 집단에 의해 추동되었을까? 남성과 여성 간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 감소는 주로 어느 가족 배경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을까? 사회경제적으로 중하층 집단 여성의 부상으로 인한 것일까, 아니면 상위 계층 여성의 부상이 젠더 격차 감소를 이끌었을까?

셋째, 만일 젠더와 가족 배경에 따른 격차를 단순히 대학 진학 여부가 아니라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지와 같이 수평적 선택지에 따른 차이로 확장할 경우 어떤 양상이 발견될 것인가? 겉보기에는 줄어들거나 심지어 역전된 것으로 보이는 남녀 간 대학 진학의 차이가 사실 전공 선택 및 명문대 여부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대학 진학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남녀 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을까?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한국 대학 교육과 기회 불평등 추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 배경 및 학계의 이론적 논의,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 글에서 소개한 경험적 결과와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적 함의와 대안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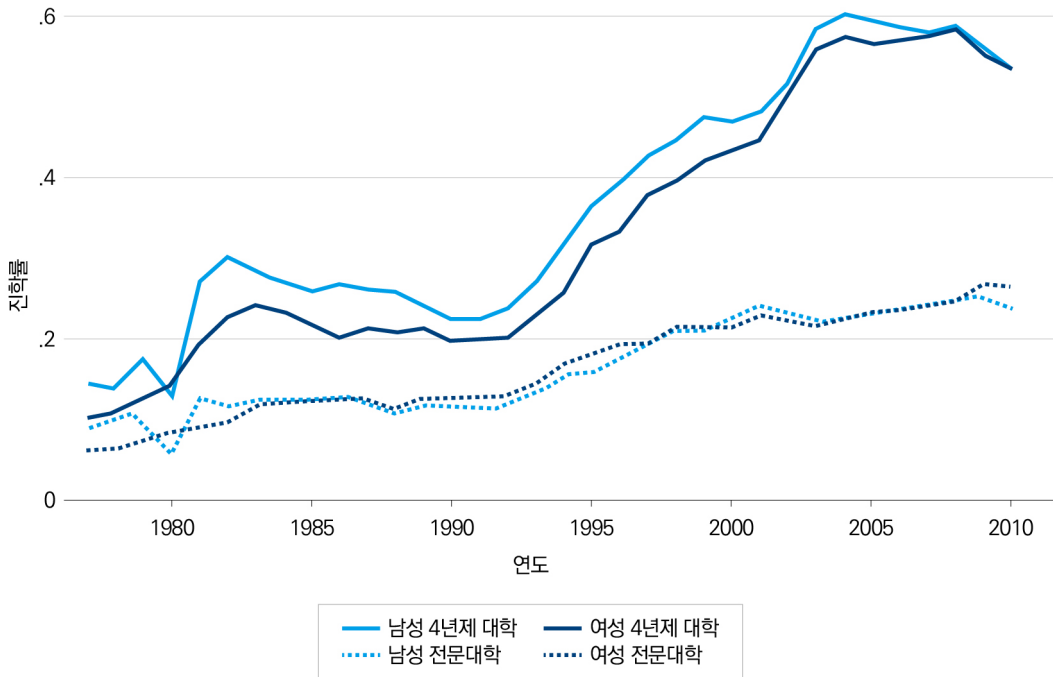
한국 대학 진학에서의 기회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이론적 배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역사적 배경: 한국 대학 교육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대학 교육 시스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급진적인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에 들어온 이래 고등교육의 확대 경향은 비단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등교육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한국의 고등교육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점이 있다.

첫째, 그 속도와 규모가 압도적이다. [그림 2-1]은 출생 연도에 따른 고졸자 대비 대학 진학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1964년 출생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3년부터 1991년 출생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0년까지의 추세를 남성과 여성, 그리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진학률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의 경우 25% 미만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0년 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50%에 육박한다. 그리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체 고교 졸업생의 60%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수준에 이른다. 전문대 진학의 경우도 1990년대 초반에는 진학률이 10% 초반 정도였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두 배인 20% 초반대로 증가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 혹은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종류를 불문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대략 30~40%였지만, 불과 10~15년 만에 그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그림 2-1] 대학 진학률 추세

이런 한국 고등교육의 확대 양상이 단지 그 빠른 증가 속도에 있어서만 유난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도 1990~199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학 진학률이 두 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 졸업생의 비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두 배로 증가한 후에도 진학률이 과반에 못 미치는 30~40%에 불과했다(Blanden and Machin, 2004). 반면 한국은 1990~2005년 사이 급격한 고등교육 확대 기간 중에 대학 진학자의 지위가 약 1/3에 불과한 소수 집단에서 거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 집단으로 바뀌었다. 즉,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 진학이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특권적 지위였다면,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누리게 되는 보편적 교육의 지위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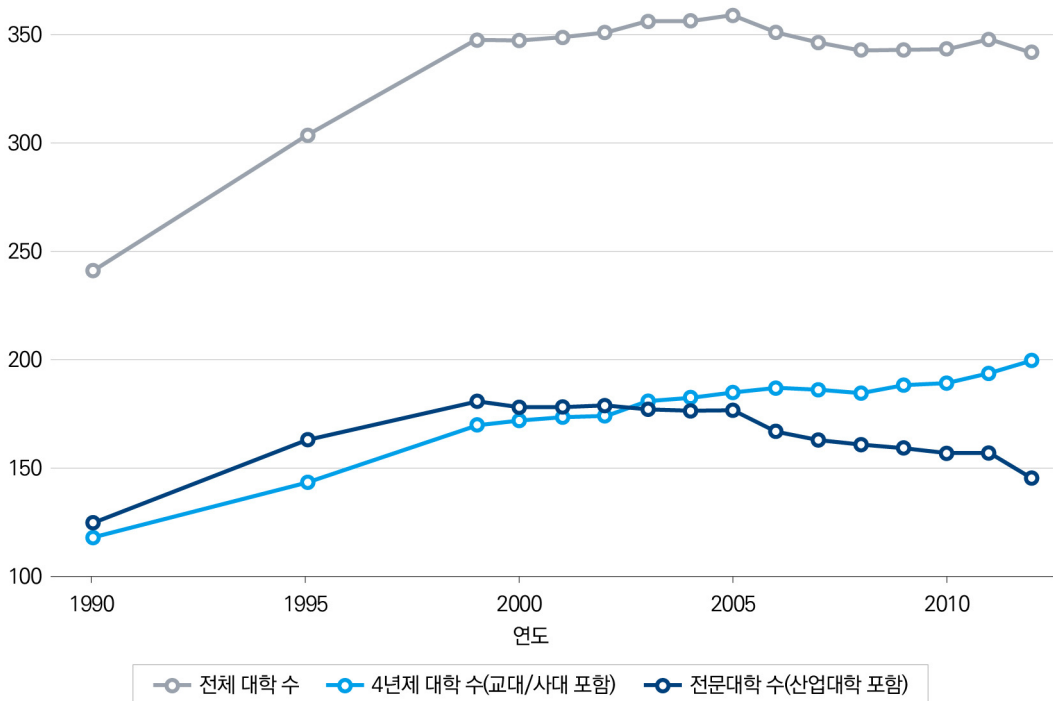
둘째, 이러한 대규모의 급격한 고등교육 확대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뤄졌다기보다 주로 외생적인 원인들에 의해 단절적으로 이뤄졌다.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숙련 노동의 공급원이고 고등교육의 확장은 기술 발전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숙

런 노동 수요를 견인하는 사회적 변화와 상호작용하며 이뤄지는 내생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Autor, 2014; Goldin and Katz, 2010). 따라서 외생적 충격이 없다면 고등교육 확대는 기술 혁신 등 숙련 노동의 수요를 높이는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학 교육 확대를 그런 점진적이고 내생적인 과정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숙련 노동의 수요를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만드는 노동시장 혁신이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수요의 변화와 별개로 외생적 충격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외생적 원인은 교육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림 2-1]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1980년대 초반에 이미 한 차례 급격한 대학 진학 확대를 추동하는 정책적 개혁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 대학 진학률이 20% 초반에 불과했지만 1981년 대학 졸업정원제가 도입되면서 1980년대 진학률이 30~40%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졸업정원제에서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면서 진학률은 30% 초반 이하로 안정화되었지만, 1980년대의 정책 변화가 한 차례 대학 교육을 확대하는 외생적 변화였다는 점은 분명하다(Choi, 1996; 이정규, 2001).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고등교육 확대 역시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 진학률 확대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 기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술·직능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9). 4년제 대학의 급격한 진학률 상승을 견인한 정책적 변화는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이른바 5·31 교육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중앙 집중적 교육제도가 수월성과 창의력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임으로써 교육제도 내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등교육을 개혁한다는 것과 둘째,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고등교육에 시장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학생 및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실제로 5·31 교육개혁 이후 지방 중심으로 사립대학들이 대규모로 설립되었다. [그림 2-2]는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4년제 대학은 1990년도 이후 서서히 그러나 눈에 띄는 대학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그 증가세가 1995년 이후 더 가팔라져 5·31 개혁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게 된 지 불과 3~4년 만에 142개(1995년)에서 172개(2000년)로 30개 증가했고 5년 후에는 184개(2005년)로 증가했다. 전문대는 증가세가 1990년대 초반에 더 가팔랐고(1990년 123개에서 1995년 162개), 1995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176

개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신설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 소재 사립대학들로, 국가의 고등교육 확대 정책이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을 설립, 확대하는 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이 쉽게 고등교육 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높은 진학률과 많은 고등교육기관 수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국가의 고등교육 관련 지출 규모는 이런 정책의 특성과 결과를 잘 보여준다.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생 1인당 공적 고등교육 지원비는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OECD, 2019).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그림 2-2] 대학 수 추세

한편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외에 대학 진학률의 증가를 견인한 또 다른 외생적 요인으로 는 출생 코호트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가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대학 졸업정원제가 폐지되고 입학정원제가 재도입되면서 대학 정원 규모가 안정화 및 감소했 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고교 졸업자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출생 코호트 규모가 역대

최대치였다. 이후 부침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대학 진학을 증가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외생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Kim, 2021).

그 외 대학 진학을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외생적 요인으로 1998년 경제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위기 혹은 불황이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론적 예측이 존재한다.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고교 졸업 후 취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예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반대로 진학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조건 역시 악화되기 때문에 진학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Torche, 2011). 어느 쪽이 우세하게 나타나는지는 교육 및 청년 노동시장 진입 과정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Witteveen, 2020). 한국의 1998년 경제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는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엄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의 급격한 확대 추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가 대학 진학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국의 대학 교육 변화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여성의 도약이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권위적 가부장제, 남아선호가 뿌리 깊게 존재해 왔고, 이는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도 가부장제와 핵가족제가 기묘하게 결합하는 형태로 변화했다(백진아, 2009). 그 결과 가족 내외에서 여성 자녀들은 남자 형제들에 비해 꾸준히 차별받고 교육 투자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왔다. 1960년 이전 출생자들 사이에서 남자 형제들의 교육과 성취를 위해 여성 형제들이 최소한의 의무교육만 마치고 저임금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희생했었던 사례들(김원, 2006)은 낯설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교육에서 나타났던 이런 젠더 불평등 측면은 교육 확대 과정 속에서 상당히 완화되거나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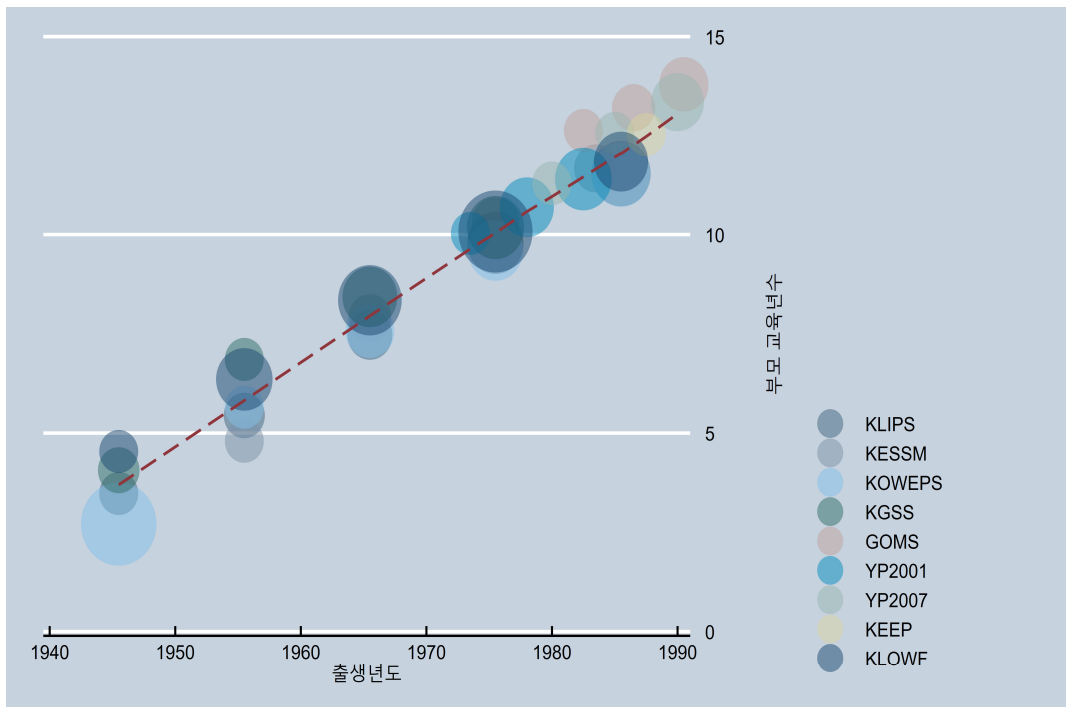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학 진학률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대학 교육 확대 과정에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전문대 진학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남성과 여성 간 진학률 차이가 사실상 없었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여성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유지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여성의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7~8%포인트 낮았지만, 급격한 확대가 정점에 달했던 2007년 즈음에 이르러서는 이 격차가 완전히 사라졌고, 이후부터 오

히려 여성의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한다(2010년까지의 추세만 보여 주는 [그림 2-1]에서는 이 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2010년 이후 대학 진학률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우위는 확대 후 유지되는 추세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경제발전과 동반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의 향상이다. 박정희 및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의 학교교육은 비민주적 군사문화, 학생 인권과 자유의 억압, 그리고 반공 및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주입 등 반교육적·반민주적인 성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Choi, 2021). 그러나 정권의 이해에 맞춰 확대된 학교교육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학력 계층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친화적인 도시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Yang,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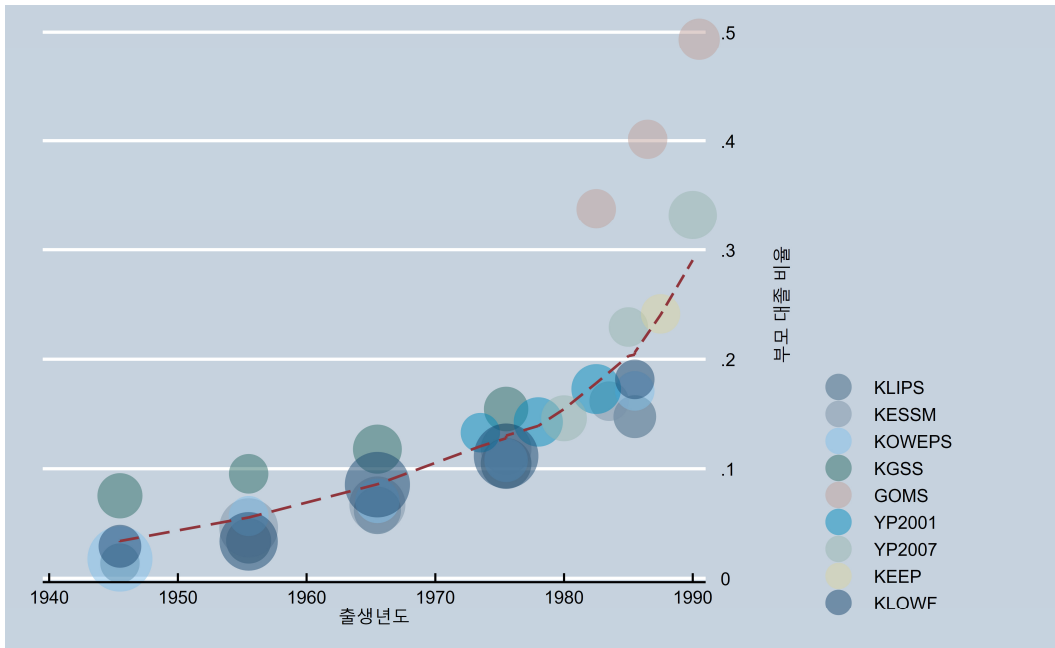
마이클 세스(Micheal J. Seth)가 교육 열병(education fever)이라고 묘사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Seth, 2002)는 이러한 권위주의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중단 없이 이뤄진 교육 확대의 과정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화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Seth, 2002), 문화 환원론에 기대지 않는 한 가지 설명은 상대적 위험 회피(RRA: Relative Risk Aversion)에 따른 설명이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 기대하는 최소한은 본인의 지위와 경험이기 마련이다. 즉, 자녀가 자신들보다 나아지지는 못할지언정 못하게 사는 꼴은 못 보는 것이다(Breen and Goldthorpe, 1997). RRA 관점은 서구 사회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안되었지만, 한편 끊임없이 부모 세대의 학력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한국 사회 맥락에서는 오히려 세대를 막론하고 자녀 세대의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교육 열병’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 부모의 학력 수준 자체가 출생 코호트별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교육 기대 역시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림 2-3]과 [그림 2-4]는 이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림 2-3]은 우리가 구축하고 활용한 KIEOD 데이터를 활용해 출생 코호트 집단별로 부모의 학력 수준([그림 2-3]은 부모의 평균 교육 연수, [그림 2-4]는 대졸 부모의 비율)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부모의 최종 수학 연수로 측정한 부모 학력 수준(그림 2-3)은 데이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세기 출생자들 사이에서 중단 없이 꾸준히 선형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이전 출생자는 평균 4년이 채 안 되었지만, 197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10년, 1990년 출생자의 경우 거의 13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세기 동안 부모의 학력 수준이 세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대졸자 부모의 비율(그림 2-4)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선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증가 추세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197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대졸자인 비율이 10%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중반 출생자들의 경우 20%, 1990년대생의 경우 30%로 급상승하는 추세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부모 학력 분포 변화의 중요성은 부모 학력 지위를 절대적 학력 수준과 상대적 위치로 보고 격차 추세를 비교함으로써 경험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주: 평균 부모 교육 연수 표준오차 제곱(즉, 분산)의 역의 값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확실성이 높은 추정치일수록 크게 표시되도록 시각화했음. 점선은 LOWESS로 추정된 추세 추정치임. GOMS는 대졸자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표본들보다 평균 부모 학력 수준이 높음(LOWESS 추정 시 제외). KLIPS=한국노동패널, KESSM=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KOWEPS=한국복지패널, KGSS=한국종합사회조사, GOMS=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YP2001=청년패널2001, YP2007=청년패널2007, KEEP=한국교육고용패널, KLOWF=여성가족패널.

[그림 2-3] 출생 코호트에 따른 부모의 최종 교육 연수 변화



주: 각 코호트-조사 표본별 크기값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확실성이 높은 추정치일수록 크게 표시되도록 시각화했음. 점선은 LOWESS로 추정된 추세 추정치임. GOMS는 대졸자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표본들보다 대졸자 비율이 높음(LOWESS 추정 시 제외).

KLIPS=한국노동패널, KESSM=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KOWEPS=한국복지패널, KGSS=한국종합사회조사, GOMS=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YP2001=청년패널2001, YP2007=청년패널2007, KEEP=한국교육고용패널, KLOWF=여성가족패널.

[그림 2-4] 출생 코호트에 따른 대졸자 부모 비율의 변화

2 이론적 배경: 대학 진학과 기회 불평등

앞서 연구 배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5년 이후부터 제기되어 온 기회 불평등 및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우려는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육에서 기회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와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의 질문은 과연 한국에서 교육 기회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불평등해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학계의 시각과 질문은 상당히 다르다. 학계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산업화된 사회에

서 공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그리고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감소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Breen et al., 2009; Shavit and Blossfeld, 1993). 즉,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면 교육 기회 불평등이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은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역사적, 비교사회적 연구가 본격화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학계의 논의는 모든 국가에서 발견되는 교육의 확대에도 왜 많은 국가들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생각처럼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불평등이 약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이뤄졌다(Breen and Jonsson, 2005). 이 과정에서 교육에서의 가족 배경에 따른 격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설명들이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한국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세 가지 소개한다.

첫째, 사회학자 애드리언 래프터리(Adrian E. Raftery)와 마이클 하우스트(Michael Hout)가 제안하고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정교화되면서 경험적 검증을 받은 최대한 유지되는 불평등(MMI: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이론이다. MMI 이론에 따르면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 집단 간 격차는 단순히 그 교육 단계의 문호가 넓어지고 확대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교육 확대가 격차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먼저 상위 계층 자녀들의 진학이 완전히 보편화되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포화 상황에 이를 때 시작될 수 있다. 그때부터 진학 증가가 오롯이 하위 계층 자녀들에 의해 이뤄지고 격차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Raftery and Hout, 1993). MMI는 불평등이 이렇게 상위 계층이 더 이상 우위를 추구할 여지가 없어지는 구조적·제도적 조건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버티고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하는 이름이다.

MMI 이론 관점에서 보면 낮은 교육 단계에서의 진학(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에서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경우 그보다 높은 교육 단계에서의 진학(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불평등이 그다음 관심 대상이 된다. 즉, 계층 간 불평등이 유지되는 양상이 낮은 단계에서의 불평등에서 높은 단계로의 불평등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교육 확대는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불평등이 두드러지는 단계 역시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MMI 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급격한 교육 확대 과정, 특히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 확대 과정은 계층 집단 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단계가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진학(전문대 및 4년제) → (보다 선별적인) 4년제 대학 진학으로 상향 이동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이 예측은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에서 상위 계층의 진학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다시 말해, 상위 계층 자녀들 중에 갈 사람은 다 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한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확대 과정이 워낙 급격하고 큰 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대체로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의 사회학자 새뮤얼 루카스(Samuel R. Lucas)가 처음으로 제기하고 이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맥락에 적용되면서 발전한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EMI: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이론이다(Lucas, 2001). EMI는 MMI 이론을 비판적으로 확장 혹은 일반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EMI 이론에 따르면 MMI 이론이 설명하는 불평등 혹은 격차는 오로지 교육의 양적인 차원에만 국한된다. 즉, 진학 및 최종 학력에서 나타나는 격차만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격차나 불평등이 단순히 공식 학교 교육상의 학년이나 학교급 단계로의 이행과 진학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학교급 내에서도 학교교육 내 중요한 선택지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육 불평등은 이런 질적인 차원에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계층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따라서 MMI에 따르면 불평등이 감소했거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가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더 많이 진학하는 반면, 고소득층 학생들의 대다수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 학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학 확대 이후 매년 3/4에 이르는 고교 졸업생들이 어떤 종류든 간에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MMI가 예측하는 바처럼 진학 여부 자체에서의 계층 간 격차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학교에 진학하는지에 따라서는 격차가 여전히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다. 즉 4년제 대학, 더 나아가 매우 선별적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이른바 명문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는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

EMI 이론을 전개하면서 루카스는 MMI가 예측하는 바처럼 양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이 감소할 때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상위 계층 가족

들이 그동안 격차의 대상으로 두드러지게 활용되지 않았던 질적인 부문을 새로운 상위 유지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물론 루카스는 이것을 EMI 이론이 필수적으로 귀결되는 결과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한편 많은 연구자들이 EMI 이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핵심적 함의로 여기는 내용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고교 진학 과정의 개혁을 통해 공립고등학교 간 상당한 서열 완화를 추구한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Kariya and Rosenbaum, 1999). 과도한 고교 입시열과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했던 의도와 달리 이 정책은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사립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사립고교들의 대입 성과(명문대 입학생 수로 평가되는)가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불평등이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감소한다는 MMI 이론과 달리 EMI 이론은 기득권 상위 계층이 늘 더 적극적으로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을 창출해 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EMI 이론은 적어도 불평등 완화와 관련해 교육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을 대변한다. 교육의 양적 팽창만으로는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줄일 수 없고, 심지어 질적인 개혁으로도 상위 계층이 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우위를 효과적으로 지켜 내려는 욕구를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개혁만으로 불평등을 없애기는 어렵다는 함의로 귀결된다.

EMI 이론은 몇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확장된다.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 한국 대학 진학의 기회 불평등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먼저, 불평등이 귀결되는 양적인 차원으로서의 최종 학력과 그 과정에서 질적인 차별화의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학업 성취도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결국 얼마나 경제적 전망이 좋고 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이나 전공에 진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사회학자 시걸 알론(Sigal Alon)은 EMI 이론을 확장하여 대학 진학 자체의 경쟁이 약해질수록(예를 들어, 대학 교육의 확대로 문호가 넓어질수록) 정원이 한정된 ‘좋은 대학’을 향한 경쟁은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들 ‘좋은 대학’ 입학에 있어 가족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확대되는 반면(EEI: Effectively Expanding Inequality),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자체가 치열하고 그 결과 불평등이 강화될수록(예를 들어, 대학 지원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좋은 대학’ 입학에 따른 불평등은 효과적으로 감소한다(EDI: Effectively Declining Inequality)는 이론을 제시했다(Alon, 2009). 한국에서 대학 진학의 양적인 확대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진학 여부에 따른 양적 차원의 불평등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학업 성취도라는 질적 차원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강화될 개연성이 있다(변수용·이성균, 2021). EMI 이론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의한 기회 불평등의 약화가 동시에 학업 성취도에서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EMI는 본질적으로 양적인 위계가 성립하지 않고 질적으로만 분화되는 교육의 영역이 새로운 불평등의 영역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사회학자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후 영속적으로 굳어 버리는 불평등을 범주적 불평등(categorical inequality)이라고 불렀는데(Tilly, 1999), 이는 사회학자 마리아 찰스(Maria Charles)와 캐린 브래들리(Karen Bradley)가 개념화한 수평적 계층화(horizontal stratification) 개념과 일맥상통한다(Gerber and Cheung, 2008). 대학 진학에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고민하는 그리고 연구자들도 중요하다고 지목하는 수평적 영역은 전공과 대학의 위세다(Gerber and Cheung, 2008). 따라서 대학 진학의 양적 측면에서 타고난 배경에 따른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별개로 본질적으로 위계가 없는 수평적 영역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선호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드러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 나라의 고등교육에서 기회 불평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전공의 경우 젠더에 따른 분리가 심하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해 젠더가 어떻게 기회의 불평등한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공이라는 수평적 영역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EMI의 또 다른 중요한 확장적 함의는 교육 기회 불평등 연구의 목적이 단지 몇몇 중요한 교육 부문들에서 드러나는 격차를 측정하고 그 추세를 추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교육 체계 안에서 어떤 양적 혹은 질적 부문을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 밝혀 내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EMI 이론을 처음 제안한 루카스는 한 질적 영역에서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때 그저 단순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격차는 거의 모든 곳에서 존재하므로) 계층 집단 간 주된 선택지가 갈리는 수준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Lucas, 2009; 2018). 예를 들어, 외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어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특목고 진학 여부에 대해 EMI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상위 계층의 다수가 특목고에 진학하고, 중하위 계층은 주로 일반고나 직업계열 고교를 진학할 경

우에만 EMI가 성립되는데, 특목고의 비중이 워낙 작을 경우 EMI가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루카스에 따르면 사회마다 다양한 주요 질적인 부문에서 불평등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EMI가 다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MI가 교육 체계 내 어느 부문들에서 발견되는지는 그 사회의 교육 불평등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MI 이론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특정 교육 부문의 불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전체 교육 체계의 성격을 진단할 필요를 촉구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끝으로, EMI 이론이 가진 갈등론적 성격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EMI 이론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한 분포를 사회적 집단 간 지위 경쟁의 과정과 결과로 본다. 특히 상위 기득권 계층 집단이 가진 지위 유지를 향한 욕구, 그들의 자원 통제와 독점을 위한 집합적 노력이 핵심적 동인이다. 반면 교육 선택에서 선택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효용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EMI 이론은 사람들이 특정 대학, 특정 전공을 선택할 때 변화하는 시장 수요의 전망을 고려해 장기적 수익을 바탕으로 결정할 경우, 대학이나 전공 정원의 공급이 사회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뤄질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MMI와 EMI에 이어 셋째로 중요한 관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론이다 (Autor, 2014; Becker, 1993; Goldin and Katz, 2008). 교육 기회 불평등 및 그 역동성을 개인의 투자와 시장에서 숙련 노동의 수요 및 공급으로 설명한다. EMI 이론과 달리 인적자본 이론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교육 투자 결정 및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능론적 성격을 띤다(Collins, 1979). 개인들이 대학 진학이라는 교육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대학 진학으로부터 얻게 될 경제적 효용(편익-비용)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대학 진학으로 얻게 될 편익(즉, 대학 프리미엄)의 크기는 대학 교육을 통해 개인이 축적하게 되는 유용한 지식과 기술(즉, 숙련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대졸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는지(대졸자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개인이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로부터 높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극심한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인해 투자에 조달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한 경우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로 반영된다. 따라서 인적자본 이론에서 볼 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투자금 유동성 제한(credit constraint)의 결과이다(Carneiro and Heckman, 2002).

인적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 교육에 있어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는 것이다. 하나의 방안은 저소득층이 대학 교육에 필요한 비용(학비)을 충당할 수 있게 등록금을 낮추거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부 논평가들 사이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대학 교육을 공적인 투자로 취급하고 전액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이는 복지국가 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거나 대학 진학률이 대폭 줄어들지 않으면, 혹은 둘 다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다. 그런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십수 년간 이 부분에 있어 나름 개선이 되어 온 상황이다. 등록금은 정부와 사회의 압력 속에서 동결되어 왔고, 2010년대 들어 장학재단의 설립과 함께 국가 장학금이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국가 학자금 대출이 활성화되었다. 또 다른 방안은 저소득층의 합리적 교육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문화적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입 및 성인기의 교육 격차는 그 근원이 유치원·초등학교 취학 이전 초기 아동기 시절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학습 관련 능력과 태도 격차에 있다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들 수 있다(Heckman, 2006). 아주 이른 생애 초기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정책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상당히 낮은 아동 빈곤율 및 OECD 기준 상당히 높은 초기 아동기 교육·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기관(즉, 어린이집 및 유치원) 출석률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 진학에 있어 기회 불평등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인적자본 이론은 적실성이 떨어지는 것일까?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떤 기술과 지식(즉, 숙련)이 향후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과 미래 담론에 대해 정부 정책과 학부모·학생 모두 상당히 민감한 사회다. 따라서 양질의 향후 전망이 밝은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MMI나 EMI 이론과 같은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간과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고등교육정책 중 두 가지가 특히 주목을 요구한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기술 혁신 및 미래 담론을 기반으로 이·공계 전공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정책적 변화가 그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가 대학 서열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대학 서열에 따른 편익의 차이가 단순한 학벌 효과가 아닌 교육의 질에 따른 인적자본 효과로 강화되게 만드는 방식(이범, 2020; 임희성,

2021)이다. 이런 정책들은 어떤 학교 및 전공이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선호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보면 EMI의 영역이 변화되는 역동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소결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확대된 한국의 대학 교육은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사적 배경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점차 악화되어 왔다는 다소 일면적인 사회적 담론과 우려와 달리 MMI, EMI, 인적자본 등 학계의 이론들은 대학을 둘러싼 기회 불평등의 양상이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왜 감소하지 않는지(MMI), 어떤 부문에서 불평등이 유지되는지(EMI), 그것이 더 넓은 시장 및 사회적 맥락과 어떻게 연계되어 변화하는지(인적자본) 등과 같이 복합적인 시각과 설명을 제공한다. 여기에 젠더 역시 기회 불평등 변화를 이해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구축한 KIEO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다.

제3절

연구 전략: 자료의 소개 및 분석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자료

교육 불평등의 추세에 대한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본 연구는 가족 배경, 성별, 자녀의 교육 성취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면서 전국 단위에서 대표성을 갖는 표본 조사 자료들을 모두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포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① 한국노동패널(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le Study)
- ②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KESSM: Korea Educ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Survey),
- ③ 한국복지패널(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 ④ 2001년 청년패널조사(YP2001: Youth Panel 2001),
- ⑤ 2007년 청년패널조사(YP2007: Youth Panel 2007),
- ⑥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05년에서 2018년까지의 누적 자료,
- ⑦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⑧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 2003년에서 2018년까지의 누적 자료,
- ⑨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이들 9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orean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Database, 이하 KIEOD)를 구축했다. KIEOD에 포함된 자료는 모두 전국 단위에서 대표성을 띠도록 표본이 수집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자녀의 학력 취득과 관련된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합한 전체 표본의 수는 약 28만 명에 이른다. 이렇듯 다년간에 걸쳐 다수의 표본을 수집하고 있는 복수

의 표본 자료들을 통합함으로써 KIEOD는 기존 단일 표본 중심의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종합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교육 불평등 추세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KIEOD에 포함된 자료들은 표본 수집 시기, 표본 규모, 조사 방식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이 점을 감안하여 개별 자료의 표본들을 별개로 분석하되, 각 자료에서 조사된 항목들의 측정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자료들을 통해 얻은 추정치들의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KIEOD는 9개 자료의 총 33개 하위 표본으로 구성된다. 하위 표본의 구성은 개별 자료(9개)와 응답자의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출생 시기는 기본적으로 1940~1950년대 출생자부터 1981~1990년 출생자까지 10년 단위로 구분되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수집된 자료들인 YP2001, YP2007, GOMS, KEEP의 경우는 포괄하는 출생 코호트의 범위가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 출생자로 상대적으로 좁고 표본 규모가 충분히 큰 편이기 때문에 출생 시기를 4년에서 5년 단위로 세분화하였다. KIEOD는 이렇게 구성한 33개의 자료-출생 집단 하위 표본들 각각으로부터 분석한 다양한 기회 불평등 추정치들로 구성되며, 이들 추정치를 이용해 출생 집단에 따른 추세를 분석할 수 있게 제공된다.

KIEOD는 다양하고 상이한 횡단면 및 종단 구조를 가진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출생 코호트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표본 대표성을 위해 사후 가중치를 구성하였다. 사후 가중치는 자료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본 가중치와 1965년부터 제공되는 인구 주택총조사(즉, 센서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하였다. 개별 자료별로 사후 가중치 생성 방법이 상이한데, 구체적인 방법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개별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KIEOD 역시 그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표 2-1]은 이렇게 구성된 KIEOD의 하위 표본 목록과 각 표본에서 나타나는 응답자의 최종 학력 수준 분포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모든 자료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는 저학력자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고 고학력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림 2-5]는 [표2-1]의 추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고졸 미만 학력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한 반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다. 최종 학력이 고졸자인 응답자의 비율은 증가하다가 1960년대 출생자들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자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급격한 대학 교육 확대 시대를 경험한 1980년대 출생자들의 경우 전문대와 4년제 대졸자의 비율이 70%를 상회한다. 앞서 살펴봤던 [그림 2-1]의 추세와 일치한다. KIEOD가 교육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통계의 추세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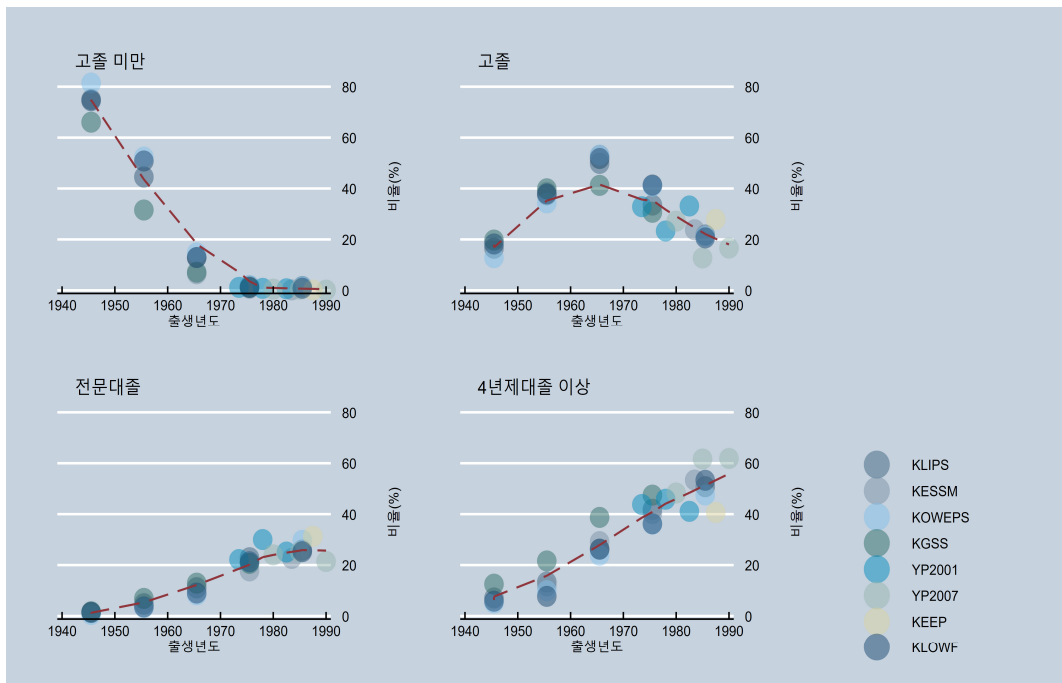
대로 반영함을 보여준다.

[표 2-1] KIEOD 하위 표본별 응답자의 최종 학력 수준 분포

자료	출생 시기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4년제 이상	전체 (%)	표본 수
한국노동패널	-1950	75.01	16.55	1.33	7.10	100	7,576
한국노동패널	1951-1960	44.49	37.52	4.64	13.35	100	5,154
한국노동패널	1961-1970	12.90	49.86	11.01	26.23	100	5,658
한국노동패널	1971-1980	1.68	33.51	22.90	41.91	100	6,538
한국노동패널	1981-1990	1.53	21.76	25.91	50.80	100	4,628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1960	44.67	38.51	5.00	11.82	100	2,402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1961-1970	6.49	53.04	11.25	29.22	100	2,187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1971-1980	0.79	41.22	17.72	40.27	100	1,783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1981-1986	0.19	23.81	22.60	53.40	100	1,075
한국복지패널	-1950	81.44	12.85	0.58	5.13	100	6,568
한국복지패널	1951-1960	52.35	34.37	3.30	9.98	100	2,485
한국복지패널	1961-1970	14.69	53.12	8.31	23.88	100	2,948
한국복지패널	1971-1980	1.93	40.91	21.05	36.11	100	3,102
한국복지패널	1981-1990	1.46	21.29	29.71	47.54	100	2,198
여성가족패널	1941-1950	74.50	18.22	1.45	5.82	100	1,372
여성가족패널	1951-1960	50.82	37.92	3.54	7.72	100	2,603
여성가족패널	1961-1970	12.90	51.81	9.02	26.27	100	3,235
여성가족패널	1971-1980	1.12	41.38	21.29	36.21	100	3,182
여성가족패널	1981-1990	0.81	20.61	25.27	53.31	100	1,172
한국종합사회조사	1941-1950	66.06	19.76	1.67	12.51	100	3,765
한국종합사회조사	1951-1960	31.56	39.9	6.92	21.62	100	2,877
한국종합사회조사	1961-1970	7.13	41.24	12.9	38.73	100	4,433
한국종합사회조사	1971-1980	1.18	30.67	20.67	47.48	100	3,65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981-1984			24.40	75.60	100	57,81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985-1988			25.48	74.52	100	57,59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989-1992			25.79	74.21	100	63,314

자료	출생 시기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4년제 이상	전체 (%)	표본 수
2001 청년패널	1972-1975	1.17	32.86	22.17	43.80	100	1,628
2001 청년패널	1976-1980	0.79	23.31	30.03	45.87	100	2,544
2001 청년패널	1981-1984	0.62	33.15	25.12	41.11	100	2,588
2007 청년패널	1978-1982	0.49	27.19	24.01	48.31	100	2,670
2007 청년패널	1983-1987	0.45	12.75	25.14	61.66	100	1,985
2007 청년패널	1988-1992	0.10	16.61	21.42	61.88	100	2,993
한국교육고용패널	1986, 1989	0.15	27.87	31.31	40.67	100	6,075
전체		8.22	10.21	22.49	59.09	100	279,802

주: 여성가족패널은 여성만 포함함.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대졸자 이상(전문대졸 및 4년제 대졸 이상)만 포함함.



주: GOMS는 대졸자들(전문대 및 4년제)만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이 그림에서 제외했음. 추세선은 LOWESS 추정 곡선임. KLIPS=한국노동패널, KESSM=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KOWEPS=한국복지패널, KGSS=한국종합사회조사, GOMS=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YP2001=청년패널2001, YP2007=청년패널2007, KEEP=한국교육고용패널, KLOWF=여성가족패널.

[그림 2-5] KIEOD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 수준 분포

2 변수 측정

KIEOD에서는 응답자의 다양한 학력 지표를 종속변수로 다룬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응답자의 교육 성취를 교육 연수, 고졸 여부, 대학 진학 여부 등과 같이 상위 교육 단계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에 따른 격차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KIEOD에서는 보다 최근의 출생 코호트로까지 그러한 분석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은 수평적 계층화의 측면들, 즉 대학 서열과 전공 선택까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대학 서열성은 1960년도 이전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의 대학 배치표 정보를 참조하여 1위에서 15위까지의 종합대학들을 명문대 범주로 할당하여 명문대 진학 여부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응답자가 진학 및 졸업한 개별 대학명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명문대 진학 및 졸업 여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에서 각 고등학교 졸업 기준 시기별로 입시 서열 기준 상위권으로 분류된 대학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상위권 대학 구성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한양대, 항공대, 해양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이공계),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이공계), 한국외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이공계),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스텍(이공계), 한국외대, 한양대

전공계열 선택은 대학 졸업자들의 학과 전공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학(물리, 수학, 생물, 화학 등)과 응용과학(공학, 건축 등)을 통칭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전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종속변수를 조작화해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의 양상에 대해 양적인 격차와 질적인 격차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표 2-3]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녀의 학력변수 유형과 해당 유형의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출생 시기 범위 및 가용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 연수, 고졸 여부, 전문대 이상 졸업 여부 및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제공하는 변수들을 통해 조작화할 수 있으나, 상위권 4년제 대학 졸업 여부 및 대학 진학자 가운데 STEM 전공 선택 여부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에서만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가용한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다. 그로 인해 전체 하위 표본의 수는 30개 이상이지만 가용한 변수의 종류에 따라 활용 가능한 표본의 수는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표 2-3] 출생 시기 및 자녀 교육 변수별 가용 자료

자녀의 교육 성취	출생 시기				
	~1950	1951~60	1961~70	1971~80	1981~92
교육 연수	●▲■◆□	●▲■◆□	●▲■◆○△□	●▲■○△◇□	●▲■○△◇
고졸 여부	●▲■◆□	●▲■◆□	●▲■◆○△□	●▲■○△◇□	●▲■○△◇
전문대 이상 졸업 여부	●▲■◆□	●▲■◆□	●▲■◆□	●▲■◆○△□	●▲■○△◇□
4년제 대학 졸업 여부	●▲■◆□	●▲■◆□	●▲■◆□	●▲■◆○△□	●▲■○△◇□
상위권 4년제 대학 졸업 여부	●▲	●▲	●▲	●▲○	●▲▽○◇
STEM 전공 선택 여부	●▲■□	●▲■□	●▲■□	●▲■○△□	●▲■▽○△◇□

●: 노동패널, ▲: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 복지패널, ◆: 한국종합사회조사, □: 여성가족패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2001 청년패널, △: 2007 청년패널, ◇: 한국교육고용패널

KIEOD를 활용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독립변수는 응답자가 타고나는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속성인 가족 배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모 학력과 응답자(자녀)의 성별이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교육 불평등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독립변수일 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다른 변수들인 소득이나 직업에 비해서도 자녀의 교육 성취를 가장 일관되게 예측하는 변수이기도 하다는 분석상의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을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의 이항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졸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두 대졸자로 처리함으로써 대졸 미만 학력을 가진 부모를 하위 계층으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부모를 상위 계층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그림 2-3]과 [그림 2-4]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KIEOD에서

부모 학력은 최근 출생자로 올수록 평균적으로 뚜렷하게 높아진다. 성별의 경우,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 성취에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그 외에도 하위 표본들 내의 출생 연도 변이와 출생 지역 혹은 15세 즈음한 시기의 성장 지역 특징을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가족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 추세를 절대적 격차와 상대적 격차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족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 추세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가족 배경에 기인한 교육 성취에서의 격차 추세가 남성과 여성 각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대학 진학자들 사이에서 가족 배경과 성별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의 추세를 대학 서열과 전공계열 선택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제시되는 분석 결과들은 모두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 먼저, 출생 코호트와 자료별로 구분되는 하위 표본을 대상으로 자녀 학력 격차를 분석한다. 분석은 각각의 하위 표본들을 자녀의 출생 지역 혹은 성장 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격차를 추정한다. 우선 가족 배경, 즉 부모 학력에 따른 절대적 격차를 추정하는 선형회귀 모형은 아래의 수식과 같다.

$$EDUC_{ij} = \alpha_j + \beta_j(PAEDUC)_{ij} + \gamma_j(Male)_{ij} + \sum_{l=1}^{L-1} \delta_{jl}(Region)_{ijl} + \sum_{m=1}^{M-1} \lambda_{jm}(Birth YR)_{ijm} + \varepsilon_{ij}$$

위 수식에서 β_j 는 j번째 하위 표본에서 저학력 부모를 둔 자녀와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 간 학력에서의 격차 추정치를 나타내며, 이 추정치는 성별, 지역, 출생 연도 각각을 통제 한 상태에서 얻은 결과이다. 이러한 회귀분석 모형을 가용한 종속변수를 갖고 있는 모든

하위 표본들에 적용하여 추정치를 얻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 진행된다. 종속변수가 이항(고졸 여부, 대졸 여부, 4년제 대졸 여부, STEM 전공 여부 등)인 경우 선형회귀 분석 모형은 해당 이항 가변수의 확률을 예측하는 선형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이 된다. 따라서 이분산성을 고려해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추정하였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교육 확대 현상의 맥락을 고려할 때, 부모가 취득한 학력(대졸 여부)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동일하더라도 최근의 출생 코호트일수록 부모 세대에서도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가 취득한 학력의 상대적 지위는 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대졸자 비율이 낮은 코호트에 속한 부모의 대졸 학력이 갖는 상대적인 학력상 지위는 대졸자 비율이 높은 코호트에 속한 부모의 상대적인 지위보다 높다. 따라서 절대적인 격차 외에도, 부모가 취득한 학력의 상대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육 성취에서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실제로 감소하였는지 혹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은 모두 부모의 학력을 서열성을 갖는 범주형 변수(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등)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를 바탕으로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사회학자 셴 리어든(Sean Reardon)이 제안한 분석법(Reardon, 2011)을 적용하였다.²⁾

두 번째 분석, 즉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 및 대학 진학자 내 수평적 계층화의 분석은 개별 하위 표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수식의 선형확률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DUC_{ij} = \alpha_j + \beta_{1,j}(PAEDUC)_{ij} + \beta_{2,j}(Male) + \beta_{3,j}(PAEDUC \cdot Male)_{ij} + \sum_{k=1}^{K-1} \gamma_{k,j}(Region)_{k,ij} + \sum_{l=1}^{L-1} \delta_{l,j}(Birth YR)_{l,ij} + \epsilon_{ij}$$

2) 연구에 활용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대한 원정보가 대체로 6개의 서열범주변수(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범주변수(x라고 하자)의 기저에 있는 서열연속변수인 잠재변수 θ 의 각 x의 범주별 평균값은 $\bar{\theta}_k = \frac{c_k + c_{k-1}}{2}$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k는 부모 학력 수준을 나타내는 6개의 범주 중 하나이고, c_k 는 k를 포함 k 이하 범주들에 속한 개인들 비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와 이 $\bar{\theta}_k$ 와의 관계를 선형이라고 가정한다면, 즉 $y_k = a + b\bar{\theta}_k$ 라고 한다면, x_k 의 정보를 통해서 \hat{a} 와 \hat{b} 를 추정할 수 있다. θ 의 80백분위와 20백분위 간 y값의 격차는 $[\hat{y}|\theta = 0.8] - [\hat{y}|\theta = 0.2] = [\hat{a} + \hat{b}(0.8)] - [\hat{a} + \hat{b}(0.2)] = \hat{b}(0.6)$ 이므로, 추정된 \hat{b} 값을 통해서 두 백분위 간 격차를 추정할 수 있다(최성수·이수빈, 2018).

위 수식에서 $\beta_{1,j}$ 는 j번째 하위 표본에서 저학력 부모를 둔 자녀 대비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의 학력 격차를, $\beta_{2,j}$ 는 여성 대비 남성의 학력 격차를, $\beta_{3,j}$ 는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들 사이에서의 남녀의 학력 격차를 나타내며, 이들 추정치는 지역과 출생 연도를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얻어진다. 이들 3개의 추정치는 하위 계층 출신 여성, 하위 계층 출신 남성, 상위 계층 출신 여성, 상위 계층 출신 남성의 4개 하위 집단 간에 나타나는 학력에서의 격차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석에서는 대학 진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서열, 즉 명문대 진학 여부와 STEM 전공 선택 여부를 교차시켜 구성된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부모 학력과 성별에 따른 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적용하여 추세를 구하는 접근을 취하였는데, 분석 모형 자체는 두 번째 분석에서 제시된 수식과 동일한 모형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얻은 하위 표본별 추정치들을 종속변수로 두고, 각각의 하위 표본들이 포괄하는 출생 시기의 중간값을 독립변수로 한 아래와 같은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가족 배경 및 성별에 따른 격차의 추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hat{\beta}_j = \tau_0 + \tau_1 C_j + \tau_2 C_j^2 + \tau_3 C_j^3 + \epsilon_j$$

위 수식에서 $\hat{\beta}_j$ 는 j번째 하위 표본에서 얻은 추정치이며, C_j 는 하위 표본의 출생 코호트 중간값(예를 들어 1951년에서 1960년생 코호트 표본의 경우 중간값인 1955.5를 취함)을 나타낸다. C_j^2 와 C_j^3 은 출생 코호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의 추세를 곡선형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교육 불평등의 추세를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위 표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분석에는 응답자의 출생 연도 및 출생지 혹은 성장지역 정보를 기초로 연구자들이 생성한 사후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분석을 통해 얻은 추정치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부록 참조).

제4절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의 격차 추세³⁾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에 대한 기존 연구들

고등교육 진학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 불평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의 연구 사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 비교 연구를 소개한다. 먼저, 사회학자 요시 샤빗(Yossi Shavit), 리처드 어럼(Richard Arum), 애덤 개모런(Adam Gamoran)이 주도한 국제 비교 연구(Shavit et al., 2007)에서는 부모 학력과 계급으로 측정한 가족 배경에 따라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스웨덴, 대만, 미국, 호주, 체코, 이탈리아). 이들 국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대학 진학자 비율이 높아지는 대학 확대 과정을 경험했다. 그러나 격차가 감소한 국가들은 비교적 소수이고(독일, 호주, 이탈리아, 이스라엘), 격차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국가가 더 많았다(한국,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격차가 다소 강화된 국가도 일부 있었다(대만, 러시아, 체코). 즉, 대체로 MMI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11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사회학자 모리스 트리벤티(Moris Triventi)는 직업교육이 특화되어 있고(즉, 대학 간 계층화가 크고) 수요에 비해 대학 교육 확대가 미진해 경쟁이 심한 나라일수록 전반적인 대학 진학에서의 가족 배경 불평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Triventi, 2013).

한국의 가족 배경에 따른 진학 및 학력 불평등의 추세를 분석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표 2-4]에 정리되어 있다. 전반적인 특징은 모든 연구가 예외 없이 하나의 단일한 서베이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결과가 어떤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표들 어떻게 측정하였는지에

3) 이 섹션은 필자들이 2018년 『한국사회학』에 게재한 논문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최성수·이수빈, 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따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우리는 KIEOD를 활용해 분석하는 접근을 취했다.

[표 2-4]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에 대한 출판 연구

	출생 코호트	자료	자녀 교육 측정	부모 SES 측정	결과
장상수 (2000)	1935 ~1970	한국형평성조사 (1990, 1995)	교육 연수(OLS)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여부 (이항 로짓)	부모 EGP 계급	- 교육 연수에 따른 IEO는 감소 - 그 외 진학에서의 IEO는 뚜렷한 추세 없음
방하남 · 김기현 (2003)	1940 ~ 1970년대생	KLIPS (2001)	교육 연수(OLS),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이항, 다항로짓)	부모 교육 연수, 부모의 직업 지위 점수, 형제자매 수, 사회자본 지수	- 교육 연수에 따른 IEO 감소 - 진학에서의 IEO는 증가
Park (2003)	1920 ~ 1960년대생	한국형평성조사 (1990)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이항, 다항로짓)	부모 교육 연수, 부모의 직업 지위 지수, 출생지	- 아버지 학력이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력 증가
Park (2007)	1960 ~ 1970년대생	KLIPS (2001)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입학 여부(이항, 다항로짓)	부모 EGP 계급, 부모 학력	- 아버지 직업 영향력의 유지 - 아버지의 대졸 여부 영향력 증가
박병영 외 (2011)	1940 ~1986	KESSM (2008-2011)	교육 연수(OLS),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여부(이항, 다항로짓)	부모 교육 연수, 부모의 직업 지위 지수, 교육 관여의 정도 등	- 교육 연수에 따른 IEO의 감소 그러나 최근 코호트에서 반등 - 부모 학력에 따른 영향력은 뚜렷한 추세 없음 - 부모 직업에 따른 영향력 증가
문수연 (2016)	1940 ~1986	KESSM (2008-2011)	고등학교 졸업 및 계열, 대학(진학, 소재지, 해외 연수)(이항, 다항로짓)	화이트 계급, 부모 학력 등	-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진학에서 중간계급의 유리함 강화 추세 - 농민계급 자녀들의 불이익 강화 추세 - 부모 학력에 따라 뚜렷한 추세 없음
김영미 (2016)	1976 ~1995	동그라미 재단 한국 사회 기회 불평등에 대한 조사(2016)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여부	홀링스헤드 SES 지수(부모 직업, 학력 반영)	- 30대 대비 20대 사이 사회 경제적 지수에 따른 서울 소재 대졸 가능성 격차가 더 커짐

2 부모 학력의 절대적 지표에 따른 자녀 학력의 격차 추세

[그림 2-6], [그림 2-7]은 KIEOD 분석 결과 가운데 부모 4년제 대졸 여부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 격차 변화를 추세선으로 요약하여 보여준다. 그림에 제시된 각각의 점들은 자료 및 출생 시기에 따라 구성된 하위 표본들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추세선은 이들 하위 표본들을 대상으로 교육 성취에 대한 부모 교육 수준의 영향을 추정한 것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먼저 [그림 2-6]은 자녀의 최종 교육 기간, 고졸 이상 학력 성취 여부, 전문대 이상 학력 성취 여부 및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성취 여부에서 부모의 4년제 대학 학력 취득 여부에 따른 격차가 자녀 출생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그림의 Y축은 교육 연수를 제외하고 모두 1 이하의 소수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수점에 100을 곱하면 저학력 부모를 둔 자녀와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 사이에 나타나는 교육 성취 격차를 %포인트로 알 수 있다.

먼저, 교육 연수에서의 격차를 살펴보자[그림의 (a) 참조].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부모의 4년제 대졸 여부에 따른 평균 교육 연수가 3~4년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후 그 격차는 점점 감소하여 198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는 1년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 취득 여부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살펴보자[그림의 (b) 참조].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0.3에서 0.4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코호트에서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할 확률이 저학력 부모를 둔 자녀보다 약 30~40%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이후의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점점 감소하여 198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사실상 0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고졸 학력 취득에 있어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격차가 최근의 코호트에서 사실상 사라졌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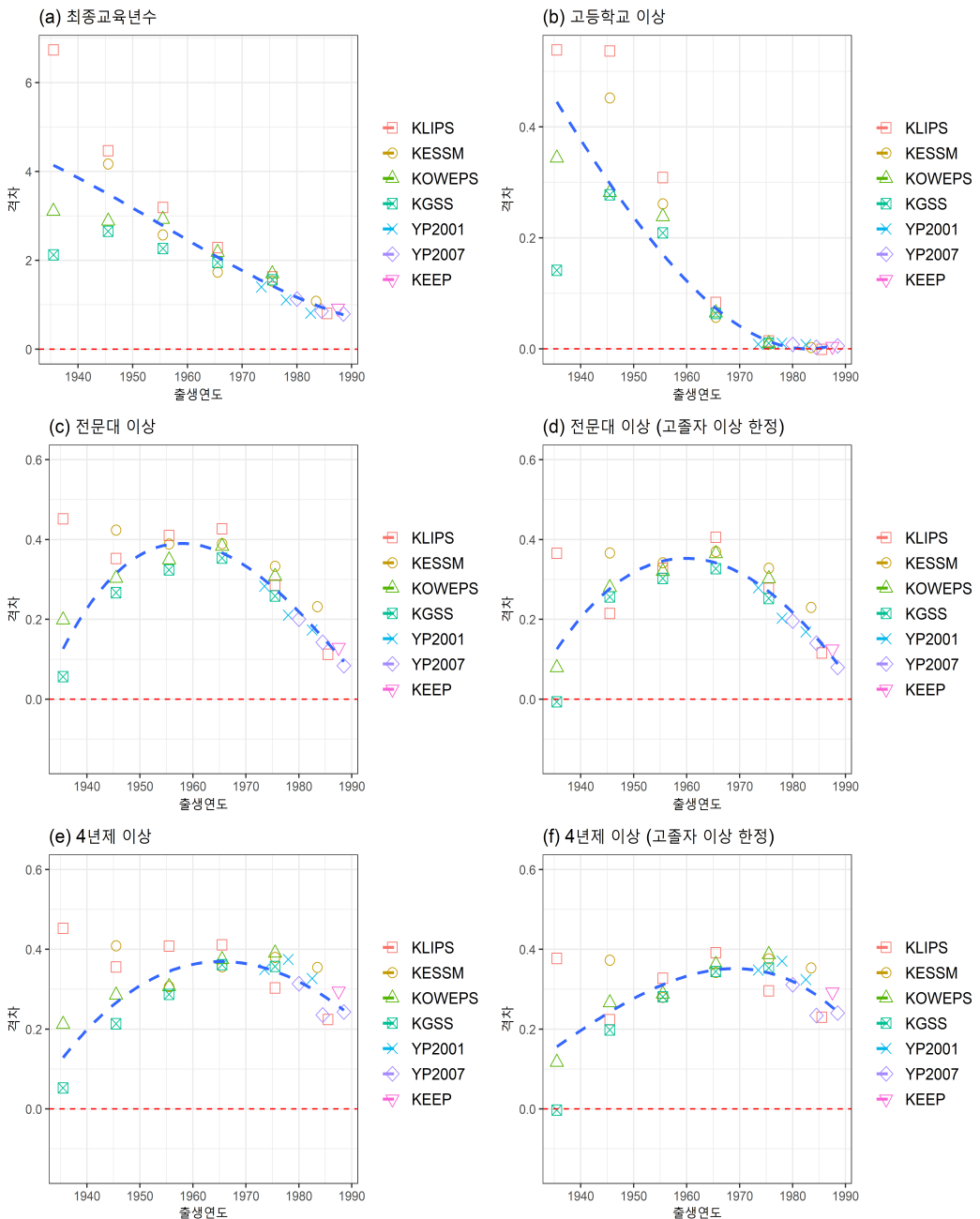
이번에는 전문대 이상 학력 취득에서의 격차 양상을 보자[그림의 (c)와 (d) 참조].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와 저학력 부모를 둔 자녀 간의 격차는 초기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50~60년대 출생자들에 이르러서는 격차가 0.4, 즉 40%포인트 가까이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0.1, 즉 10%포인트

이하로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추세선은 뒤집힌 U자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 취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그림의 (e)와 (f) 참조].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부모 학력에 기인한 격차가 증가세를 보여 196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가 약 0.4(40%포인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 출생자들을 기점으로 격차가 서서히 감소하여 198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0.2, 즉 20%포인트 정도로 줄어들면서 전문대 이상 학력 취득과 마찬가지로 뒤집힌 U자형 곡선의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의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 감소 경향은 [그림 2-1]에 제시된 대학 진학률 증가 추이와도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학력에 기인한 자녀 교육 성취에서의 절대적인 격차는 교육 일반,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 교육의 급격한 확대에 의한 대학 진학률의 급증으로 인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대 이상 학력 취득에서 불평등이 정점을 이루고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와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취득에서 불평등이 정점을 이루고 떨어지는 시기 간에 10~15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에 따른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 1960년대 출생자들의 대입까지는 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어떤 종류의 대학이든 상관없이 진학하는지 여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러한 핵심 불평등의 영역이 4년제 대학 진학 여부로 이행했음을 보여준다. 불평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을 곧 유리한 가족 배경에 따른 특권이 유지되는 영역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그러한 특권 영역이 고교 졸업 후 취업이 아니라 진학을 하는 것에서(대략 1960년대 초반 출생자들까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런 특권 역시 1980년대 출생자들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 배경과 시기적 일치성을 고려하면 이는 급격히 높아진 대학 진학률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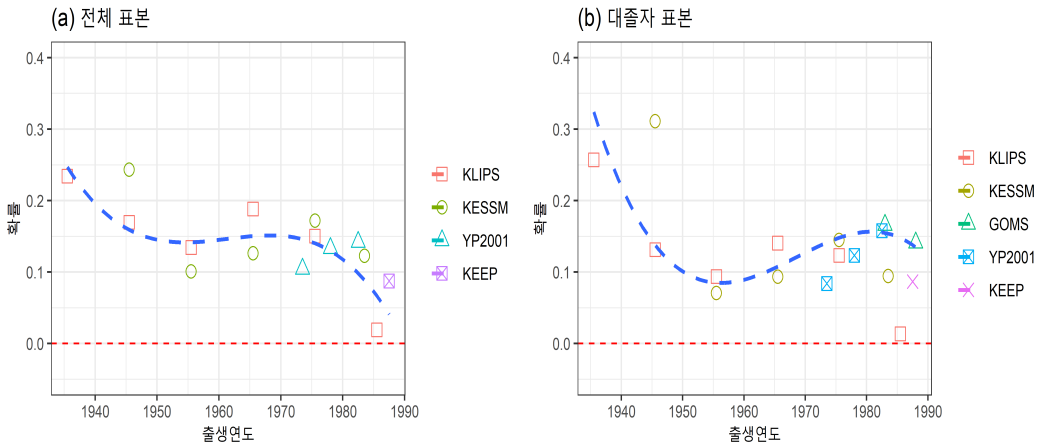
주: KLIPS = 한국노동패널, KESSM =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KOWEPS = 복지패널, KGSS = 한국중합사회조사, YP2001 = 청년패널2001, KEEP = 한국교육고용패널

[그림 2-6] 부모의 4년제 대졸 여부에 따른 교육 성취에서의 격차 추이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대학 진학에서의 불평등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불평등이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불평등(즉, 특권)의 영역이 4년제 대학들 내 모두가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 소위 명문대 진학 여부로 바뀌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림 2-7]은 그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모의 4년제 대졸 학력 취득 여부에 따른 명문대 진학 확률의 차이가 출생 시기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그림의 (a) 참조]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명문대 진학 확률의 차이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문대 이상 학력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는[그림의 (b) 참조] 해당 코호트에서 이전 코호트에 비해 격차가 감소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졸자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그림 2-7의 (b)]에는 GOMS 자료가 포함되는데 그 차이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GOMS는 전문대 이상 대졸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수집되는 자료이다. 표본 규모가 다른 자료들에 비해 상당히 크며, 따라서 다른 표본 자료들에서 얻은 추정치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산출한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가는 대학 진학을 결정한 집단 내에서 추가적으로 분화되는 수평적 계층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진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GOMS 자료를 포함한 [그림 2-7] (b)의 결과를 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와 (b) 두 경우 모두 특별히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다. 1970년대 출생자들 이후 4년제 대학 진학에서의 가족 배경에 따른 격차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198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졸 여부 및 대졸 여부 등과 같이 학력 취득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기회 불평등이 처음에는 낮은 교육 단계에서 점차 높은 교육 단계로 이행하면서 감소했지만, 그런 감소의 결과가 명문대 진학이라는 질적인 부분으로의 불평등 이행을 동반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 KLIPS = 한국노동패널, KESSM =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GOMS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YP2001 = 청년패널2001, KEEP = 한국교육고용패널

[그림 2-7] 부모의 4년제 대졸 여부에 따른 명문대 진학 격차 추이

3 부모 학력의 상대적 지위에 따른 자녀 학력 격차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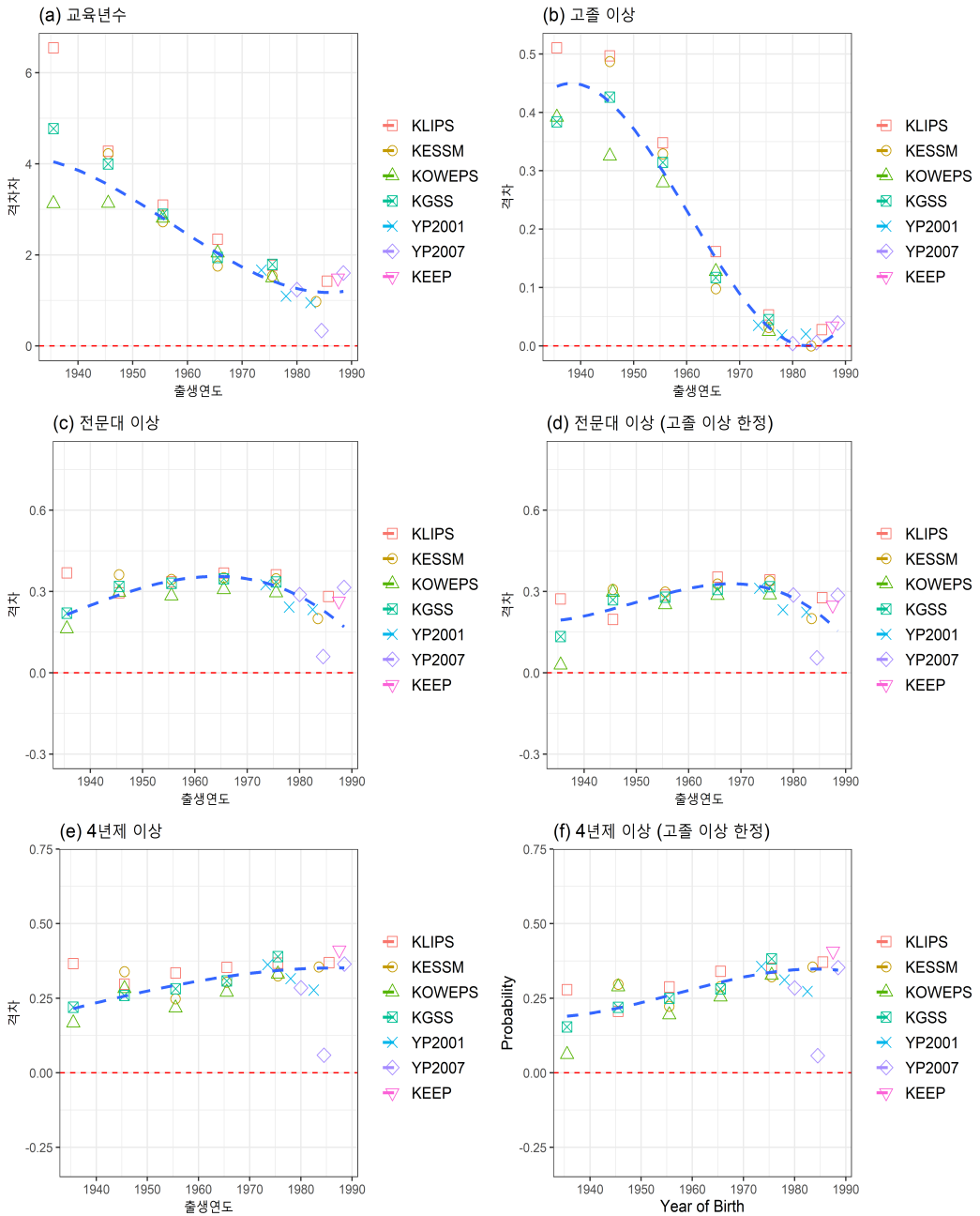
지금까지 부모의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를 통해 제시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교육 불평등은 대체로 감소하였거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모 학력에 따른 상대적 수준에서의 격차 추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절대적 격차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부모 학력의 전반적인 향상이라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교육 기회 격차의 동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가늠할 수 있다.

[그림 2-8]과 [그림 2-9]는 교육 성취 격차를 부모 학력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로 나타내어 그 추세를 추정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 제시된 추세선은 부모 학력 하위 20%에 속한 자녀의 교육 성취를 준거로 하여 상위 20% 출신 자녀가 누리는 교육 성취에서의 격차를 나타낸다. 부모 학력의 상대적 지위에 따른 자녀 교육 성취에서의 격차 추세는 절대적 격차의 추세와 큰 틀에서 볼 때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연수에서의 격차 추세는 1940~195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부모 학력 하위 20%와 상위 20% 간에 3~4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1년 남짓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8의 (a) 참조]. [그림 2-8]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고졸 이상 학력 취득 여부에서의 격차는 0.4(40%포인트)에서 0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절대적 격차의 추세와 사실상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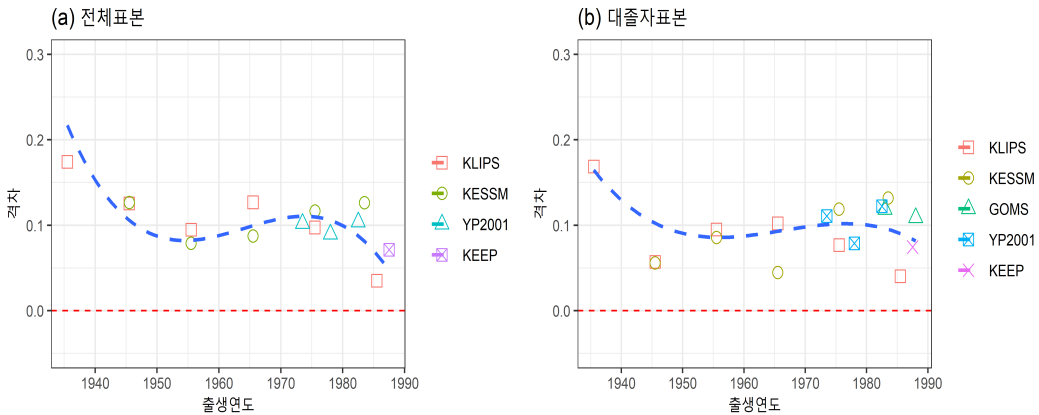
전문대 이상의 대학 진학에서 상대적 격차의 추세는 196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는 격차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8의 (c)와 (d) 참조]. 절대적 격차와 유사한 양상이다. 그러나 추세선 변화의 폭은 절대적 격차에 비해 훨씬 완만하다. 증가 및 감소의 폭이 훨씬 작다.

[그림 2-8]의 (e)와 (f)에서 볼 수 있듯, 4년제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격차는 관찰 코호트 집단들 사이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꾸준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둔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증가세가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출생자들에게서 이전 코호트에 비해 부모 학력의 절대적 지표에 따른 격차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그림 2-6] (e)와 (f)의 결과와 일관되는 내용이다. 다만 상대적 격차는 절대적 격차 추세에 비해 훨씬 완만하고 역동적이지 않다. 전문대 이상 진학 여부와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부모 학력에 따른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 추이가 부모 세대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 분포의 구성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케 한다. 즉 교육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부모 세대에서도 고학력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 학력 분포 변화([그림 2-3]과 [그림 2-4] 참조)가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 격차의 동적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모 학력의 구성적 변화를 통제한 상대적 지위에 따른 격차를 보면, 그 역동적 추세가 훨씬 완만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8]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자녀 교육 성취에서의 상대적 격차 추이 (상위 20% 대 하위 20%)

[그림 2-9]는 상위권 진학에서 부모 학력 하위 20%와 상위 20% 간 상대적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 격차의 추세는 앞서 제시한 명문대 진학에서의 부모 학력에 따른 절대적 격차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GOMS 표본을 포함하여 추정한 대졸자 표본에서의 명문대 진학 격차는 1950년대 출생자부터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의 (b)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급격한 대학 진학을 증가와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의 안정성은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구조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엘리트 계층 재생산의 핵심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명문대 진학에 있어서 출신 배경에 따른 격차가 거의 변화 없이 10%포인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숨은 구조를 밝힌 것이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림 2-9]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명문대 진학에서의 상대적 격차 추이 (상위 20% 대 하위 20%)

4 소결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배경의 차이에 따른 대학 진학의 격차는 양적 측면에서 감소했고, 상위권 명문대 진학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증가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 지위를 절대적으로 측정하든 상대적으로 측정하든 마찬가지였다. 다만 절대적 측정을 바탕으로 한 격차의 변화 양상과 상대적 지위 측정을 바탕으로 한 격차 변화 양상을 비교했을 때, 역동적인 격차 감소 추세의 상당 부분이 부모 학력 수준의 향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 학력지위 상위 20백분위와 하위 20백분위 격차로 측정한 명문대 진학에서의 불평등은 1950년대 출생자 이후로 10%포인트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5절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 추세⁴⁾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 이론적
쟁점은?

앞 절에서 부모의 학력으로 측정한 가족 배경 수준에 따라 대학 진학 결과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출생 코호트 추세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질문은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향유해 왔던 교육에서의 유리함이 감소하고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추세를 생각할 때 그 이론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DiPrete and Buchmann, 2014).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한국도 이런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그림 2-1]에서 본 것처럼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대학 교육 확대의 과정에서 대학 진학률의 남녀 간 격차가 사라졌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이렇게 변화하는 남녀 간 학력 격차가 주로 어느 계층에 의해 주도되는가일 것이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학업 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가 주로 저소득, 하위 계층 학생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경험적 양상을 보고한다. 이런 양상은 인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인지적, 행동적 지표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Buchmann et al., 2008). 또한 이런 차이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난다(García et al., 2018). 이른 시기 다양한 학업, 발달 관련 지표에서 드러나는 이런 양상은 추후 대학 진학 혹은 최종 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다. 학업 성취 및 문제행동, 발달 지표들에서의 차이가 그대로 진학 결정 및 학력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다양한 가정과 학교 내외의 환경적, 맥락적 요소들이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진학

4) 이 섹션은 필자들이 진행했고 곧 출간될 연구 “Gender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Long-term Cohort Trends over the Twentieth Century” 결과(Choi and Lee, 2021)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에서의 남녀 격차 감소 및 역전 추세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중 어느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사회의 젠더 불평등 특징을 이해하고 교육 기회 불평등 변화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미국의 경우 대학 진학 및 졸업에서의 남녀 간 격차 감소와 여성 우위의 추세가 주로 저소득층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Buchmann and DiPrete, 2006). 반대로 독일(Legewie and DiPrete, 2009)과 중국(Wang, 2021)은 고소득, 상위 계층 집단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한편 그 외 다수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대체로 남녀 간 학력 격차의 감소 및 여성 우위 추세가 특정 계층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의 부상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보고되었다(Breen et al., 2010; McDaniel, 2013).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남녀 간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차이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을까?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대체로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가 남성의 경우 평탄한 반면, 여성의 경우 증가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성문주, 2011; 장상수, 2004, 2006). 남성과 여성의 격차 감소가 주로 여성 내 가족 배경에 따른 불평등 증가와 함께 동반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독일이나 중국과 비슷하게 상위 계층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을 보고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들은 모두 한국노동패널이라는 단일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우리는 여러 가능한 데이터들을 다중적으로 활용한 KIEOD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분석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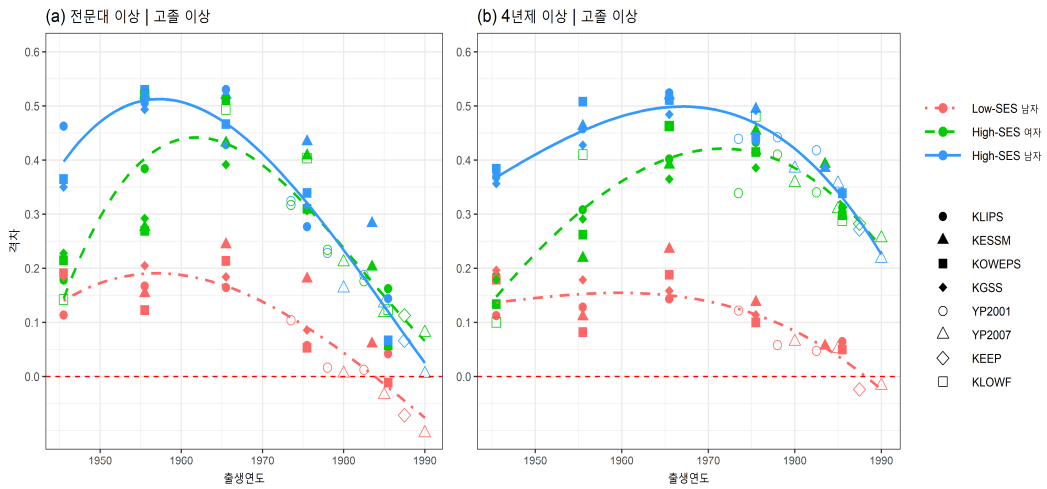
2 KIEOD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그림 2-10]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진학에서 가족 배경과 성별에 따른 격차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의 (a)는 고졸 이상 학력 취득자 가운데 전문대 이상 대학 진학 여부를 예측하는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 추세를, 그림의 (b)는 4년제 이상 대학 진학 여부를 예측하는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에 제시된 세 개의 추세선은 하위 계층 출신 여성의 교육 성취

를 준거집단으로(즉, 0값을 보여 주는 수평선) 하여 각각 하위 계층 출신 남성, 상위 계층 출신 여성, 상위 계층 출신 남성의 진학 확률의 우위를 보여준다. 가족 배경은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 학력이 4년제 미만이면 하위 계층으로, 4년제 이상이면 상위 계층으로 조작화했다.

고교 졸업 후 취업 대신 전문대 포함 대학에 진학할 확률에 있어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의 추이를 먼저 살펴보자(그림의 (a) 참조). 초기에는 상위 계층 자녀가 하위 계층 자녀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 진학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대 이상 진학에서 가족 배경에 기인한 격차는 남성의 경우(즉,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사이 격차) 1950년대 출생자들, 여성의 경우(즉, 초록색 선과 준거집단 기준선 사이 격차) 196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격차는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 남녀 모두 빠르게 감소하면서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률 격차가 0.1 이하로 줄어들었다. 같은 그림을 남녀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1940~50년대 출생자 사이에서 크게 존재했던 동일 가족 배경 집단 내 남녀 간 격차는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상위 계층 여성이 하위 계층 여성보다 같은 계층 집단 내 남성들을 따라잡는 시기가 다소 빠르긴 하다. 상위 계층은 197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이미 남성과 여성 간 진학 격차가 사라졌지만, 하위 계층은 그런 성별 집단 간 수렴이 1980년대 출생자들에 이르러 나타난다.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1990년 출생자들에 이르면 계층을 불문하고 여성이 겪었던 대학 진학에서의 불이익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흥미롭게 강화되고 있는 것은 남녀 간 수렴을 넘어 고교 졸업 후 진학 여부에서 남성의 새로운 불이익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빨간 선(하위 계층 남성)이 뚜렷하고 일관되게 기준 수평선(하위 계층 여성)을 지나 우하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그보다는 덜 명확하지만 파란 선(상위 계층 남성) 역시 초록 선(상위 계층 여성)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파란색 선(상위 계층 남성)은 1990년에는 기준선(하위 계층 여성)과 만나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계층 간이 아니라 다시 성별 간 그러나 이번에는 남녀가 역전된 형태의 격차가 대학 진학의 주요 격차 양태로 바뀔 가능성을 제기한다. 1980년대 출생자 이후 뚜렷해지는 하위 계층 남성들의 대학 미진학 증가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2-10]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 추세

[그림 2-10]의 (b)는 4년제 이상 대학 진학률에서의 가족 배경과 성별의 격차를 보여준다.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를 먼저 살펴보자. 남성 사이에서는(즉, 파란 선과 빨간 선 사이의 차이) 1960~7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198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 줄어드는 양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격차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 여성의 경우(즉, 초록 선과 기준 수평선 간 차이) 이전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증가하다가 1970년대 출생자들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이후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4년제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 격차의 동적 추세가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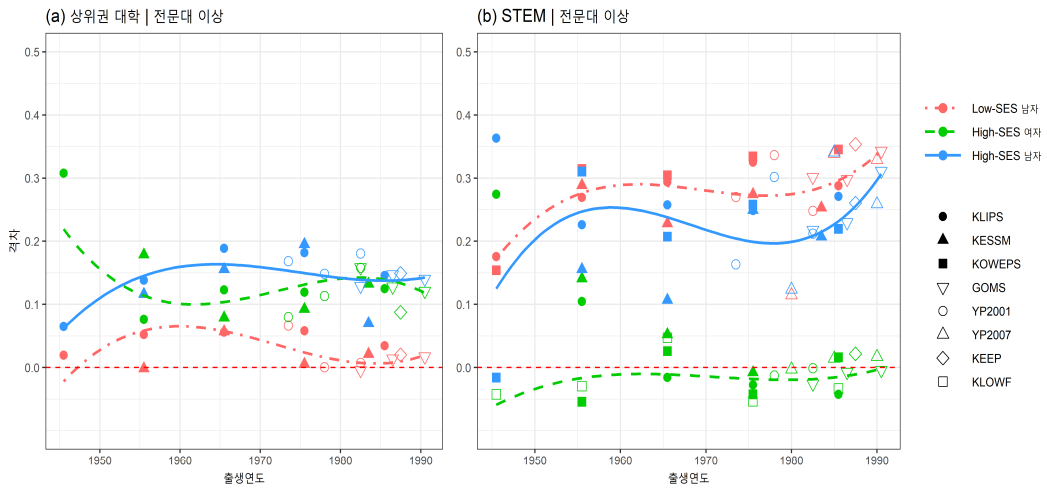
그 결과 1990년 출생자에 이르러서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모두 계층 집단 내 성별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고 약 0.25, 즉 25%포인트 정도의 격차만 남게 되었다. 전문대 학 이상 진학에서의 격차 추세[그림의 (a)]와 달리 여성과 남성의 수렴, 즉 여성이 남성을 따라잡은 시기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거의 비슷하다. 이는 한국에서 대학 진학의 성별 격차가 사라지는 변화가 미국(하위 계층)이나 독일, 중국(상위 계층)과 다르게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특정 계층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전 계층에서 고르게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의 측면, 즉 수직적 계층화 측면에서 성별 격차는 감소하였으며, 성별 내

가족 배경에 따른 격차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 수렴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수평적 계층화, 즉 대학 진학을 했다고 했을 때 분화되어 주어지는 진학 선택지에서도 같은 격차의 추세 경향이 나타날까? 명문대 진학 및 전공계열 선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1]은 전문대 이상 학력을 성취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라 상위권, 이른바 명문대 진학 여부 및 이공계(STEM) 계열 선택 여부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추세를 추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2-11]의 (a)에서 볼 수 있는 상위권 진학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는 [그림 2-10]에서 살펴봤던 수직적 계층화의 양상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전반적인 계층 집단 간 격차가 대학 진학 자체 측면에서는 감소했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10]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1950~6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계층 간 격차보다 두드러졌다면, 1970년 출생자들 이후부터는 남녀 간 격차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1980년 이후 출생자 사이에서는 동일한 계층 집단 내에서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고, 성별 격차는 계층 격차로 완전히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수렴되는 양상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에서 비슷한 속도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계층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2-10]과 [그림 2-11]의 (a)에서 드러난 한국에서의 성별 및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 기회 불평등 양상 추세는 명확한 결과를 보여준다. 성별 격차가 계층 격차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KLIPS를 기반으로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성문주, 2011; 장상수, 2004, 2006)이 보여 준 결과를 더 풍부하고 방대한 KIEOD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림 2-11]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대졸자 내 계층화 추세

[그림 2-11]의 (b)는 대학 진학자들의 이공계열 선택 여부에서 가족 배경 및 성별에 따라 어떻게 격차가 나타나는지 그 변화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 추세는 [그림 2-10] 및 [그림 2-11] (a)의 추세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전문대 이상 학력의 여성이 이공계 전공을 선택할 확률은 1970년 이전 출생자들 사이에서부터 이미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는데(대략 0.2~0.3, 즉 20~30%포인트), 남녀 간 차이 양상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에 다르지 않았다. 즉, 이공계 선택에서는 계층 간 차이는 미미하고 성별 격차가 압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계층 간 차이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이공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상위 계층에 비해 하위 계층에서 약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남성에게서 이런 경향이 좀 더 잘 관찰된다(파란 선이 빨간 선보다 일관되게 약간 아래에 위치한다).

문제는 이런 젠더 격차 양상이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 남녀 간 격차는 30%포인트 수준, 40%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드러난다. 이는 특히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들 사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상위 계층 남성이 하위 계층 남성에 비해 다소 낮았던 이공계 선택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여성 집단과의 격차도 벌어지는 양상이다. 전체적인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

하였고, 대학 진학률이라는 양적 부문에서 여성이 남성을 따라잡았음에도 전공계열 선택이라는 수평적 부문에서의 성별 분리는 유지, 심지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수평적 부문에서 유지되는 기회 불평등 양상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

3 소결

한국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녀 간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가 감소했고 최근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우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특정한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계층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부상이 계층 격차를 강화(독일, 중국)하거나 약화(미국)하기보다 계층 격차와 관계없이 이뤄졌다(독일 이외의 유럽 국가들)고 볼 수 있다. 대학 진학(전문대 이상, 4년제 대학 이상)만 아니라 대학 진학자들 사이에 상위권 대학 진학 여부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다만 이공계 전공 선택 여부에 있어 성별 분리 양상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심지어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감지되었다.

제6절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 추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 문제의 이론적 쟁점

대규모의 대학 교육 확대 과정 속에서 대학 진학의 양적 측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계층 간 격차는 MMI 이론이 예측했던 바대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EMI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대학 진학 자체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감소했지만 모두가 선호하는 상위권 엘리트 대학 접근에서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을까? 대학 진학의 문호가 넓어지고 기회의 격차는 감소했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을 향한 경쟁은 오히려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상위권 대학 진입에서의 격차는 강화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다(Alon, 2009).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효과적으로 확대되는 불평등’(Alon, 2009)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던져 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기존 계층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어떤 제 3의 부문이 새로운 계층화 특권의 영역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부문일까?’에 대한 것이다. 즉, 수평적 계층화의 생성에 대한 질문이다. 대학 진학에서 대표적으로 주목되었던 수평적 계층화 부분은 방금 언급했던 상위권 엘리트 대학 진학과 전공 선택이다(Gerber and Cheung, 2008).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이공계 전공 선택에서 계층 및 남녀 격차는 감소되기보다 유지 및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이공계 전공 선택이 새로운 특권적 영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절에서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짚어 봐야 할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전공 선택의 경우 성별 분리(sex segregation)가 핵심적 이슈라는 점이다. 전공 선택에서의 성별 분리는 단지 교육 혹은 고등교육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직업 성별 분리, 더 나아가서는 오랜 기간 인류의 인식 구조에 공고하게 자리 잡아 왔던 젠더 근본주의(즉, 남성적인 일과 여성적인 일에 대한 차별적 감각), 현대사회의 구조적 근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가부장적 핵가족제도(남성이 주로 생계를 위해 돈을

별고 여성이 집안을 돌보는 분업을 통해 유지되는 핵가족제도와 관련이 있다. 전공 선택에서의 남녀 성별 분리가 바뀔 수 없는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평적 계층화는 동적 추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지배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고정 요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표적인 고등교육 내의 수평적 계층화 영역인 입시 서열과 전공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일종의 다차원적인 수평적 계층화 양상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별 전공 분리가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엘리트 대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성이 더 우위를 보이는 이공계 전공이 더 능력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Xie et al., 2015), 최근으로 올수록 성별 전공 분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능력 있는 여성들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이공계 회피 선택(Charles and Bradley, 2009; Stoet and Geary, 2018)이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공계 전공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더 민감해서 보다 제도적인 자원이 풍부한 상위권 대학에서 더 경쟁력 있게 유지된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상위권 엘리트 대학에서 오히려 남녀 간 전공 분리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 근래에 강조되는 첨단 기술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담론 및 정책적 지향이 이공계 전공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숙련(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공계 전공과 타 전공들 간 노동시장 효용 격차는 학생·학부모가 대학 전공 선택 시 핵심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이공계 전공의 경제적 장기 편익이 다른 인문·사회계 전공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Kim et al., 2015), 경력을 쌓아 나가는 데 있어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이공계 관련 숙련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Cheng and Park, 2020). 한국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공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대 수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선택으로서 이공계 선택의 인기가 높아지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담론과 선호의 변화가 이전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전공 간 계층적 위계 구조의 생성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주로 이공계 전공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임희성, 2021). 즉, 이공계 전공에 대한 선호와 선택이 사회적 특권층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는 새로운 계층적 영역으로 드러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통적 강세는 유지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계층적 선호가 이공계 선택에서 새롭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 상위 계층 남성과 다른 집단들 간의 이공계 선택에서의 격차가 어찌면 새로운 대학 진학에서의 기회 불평등의 주된 양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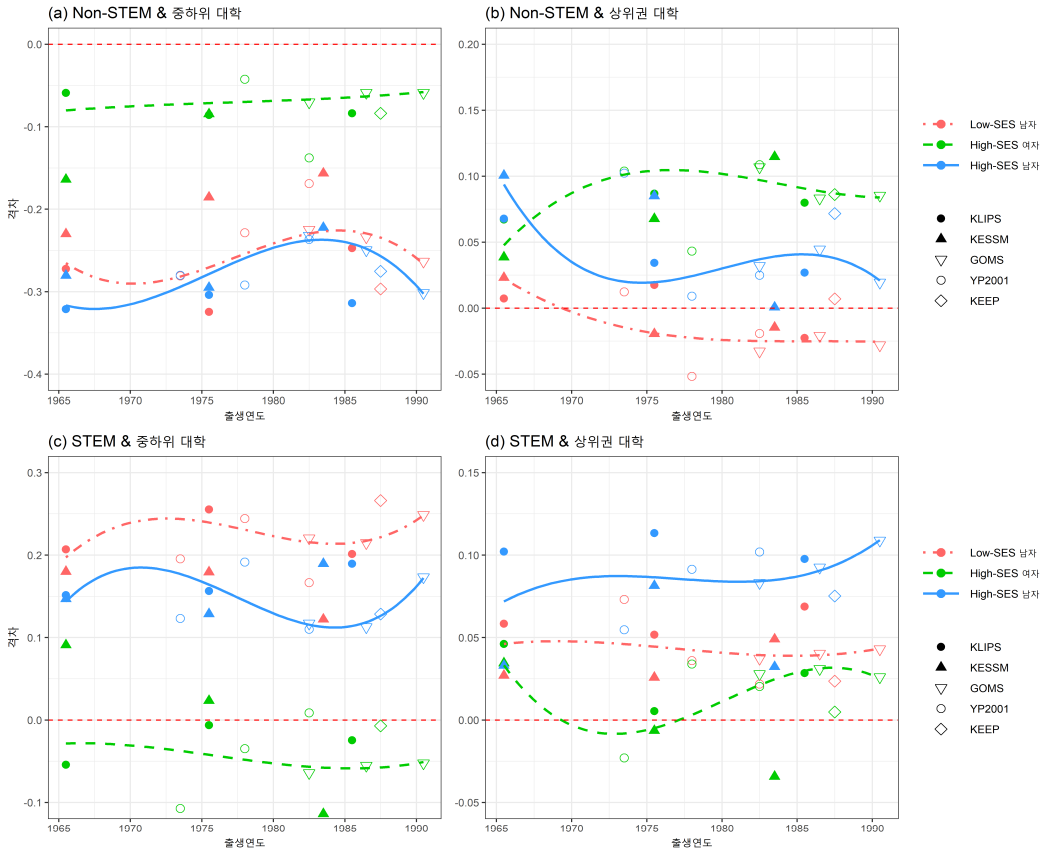
이상, 세 가지 쟁점은 모두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이공계 전공 선택에서 상위 계층 남성의 선호와 선택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새로운 양상의 수평적 계층화가 대학 진학의 기회 불평등의 주된 양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절에서는 이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관찰되는지 KIEOD 자료를 활용해 탐색해 본다.

2 KIEOD를 통한 분석 결과

앞서 수직적 계층화의 측면에서 성별 격차가 사라졌으며,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공계 전공 선택에서 뚜렷한 성별 분리 현상이 유지 및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하 분석에서는 이공계를 STEM이라 칭하겠다). 그렇다면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상위권 진학 및 전공 선택에서의 격차 추이가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양상이 나타날까? [그림 2-12]는 대학 서열성과 STEM 전공 선택을 교차시켜 구성한 네 개의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른 전공 선택의 격차 추세를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 제시된 네 범주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상위권 15개 종합대 여부와 이공계 전공계열 선택 여부에 따라 구성되었다. 각각 범주별로 제시된 추세선들은 하위 계층 출신 여성이 해당 범주에 속할 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 계층 남성, 상위 계층 여성 및 상위 계층 남성 집단 각각의 상대적 확률 차이의 추세를 나타낸다.

먼저, 비(非)상위권 대학 진학자들의 전공 선택에 대해 살펴보자[그림의 (a)와 (c) 참조]. 비상위권 대학 진학자들의 경우 남성의 STEM 전공 선택, 여성의 비STEM 전공 선택의 성별 분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가족 배경보다는 젠더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다만 두 가지의 흥미로운 양상이 발견된다. 첫째, 전반적으로 상위 계층 출신일수록 하위 계층에 비해 비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낮는데, 남성의 경우 이 경향이 STEM 전공 선택에서만 두드러진다(인문·사회계열 같은 비STEM 전공에서는 계층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은 이런 경향이 전공에 따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즉, 비상위권 대학에서는 하위 계층 출신 남성들이 상위 계층 출신 남성들에 비해 STEM 계열 전공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 남성의 비STEM 전공 선택이 여성에 비해 감소하고 STEM 전공 선택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남성과 여성 간 STEM 선택을 둘러싼 전공 분리가 더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하위 계층 남성보다 상위 계층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⁵⁾



[그림 2-12] 명문대 입학 여부 및 STEM 전공 선택 여부에 따라 살펴본 성별 및 가족 배경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 추세

이번에는 상위권 대학 진학자들 사이의 전공 선택 양상을 살펴보자[그림의 (b)와 (d) 참조]. 상위권 대학 진학자들의 전공 선택 양상은 비상위권 대학 진학자들과 상당히 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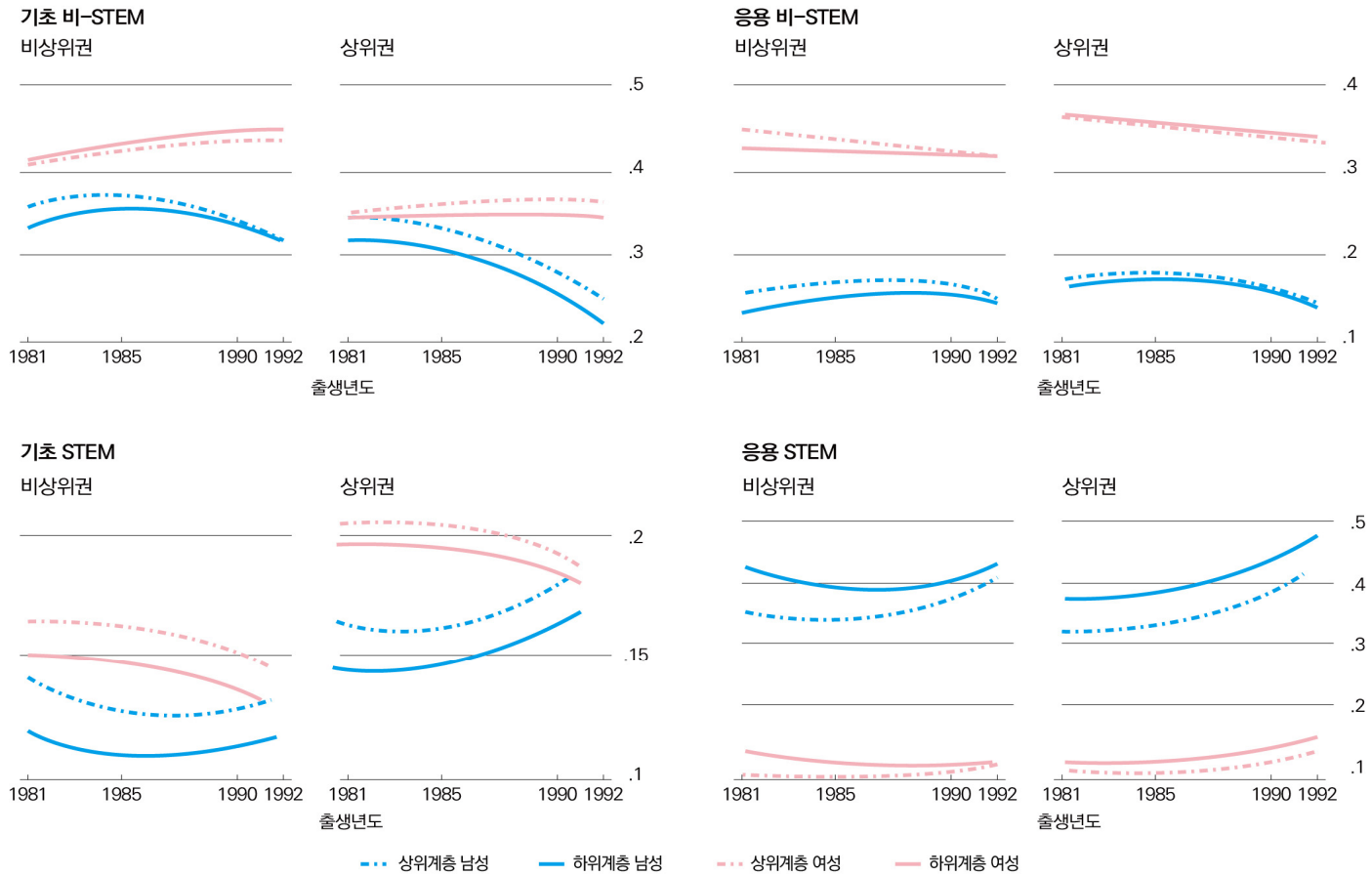
5)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출생 연도의 세제공항까지 포함해 유연한 추세를 추정하는 모수적 모형을 적용했다. 이런 모형 선택에 따른 민감성을 체크하기 위해 fractional-polynomial 모형과 완전한 비모수적 모형인 lowess 모형으로도 추정을 해 봤으나 주된 추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게 나타난다. 전공 선택이 대학 서열 맥락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다차원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상위권 대학 진학 양태와 정반대로 상위권 대학 진학 경향에서는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다. 즉, 상위 계층 출신이 하위 계층 출신보다 전반적으로 진학 확률이 높다. 유일한 예외는 상위 계층 여성의 STEM 전공 선택이다. 인문·사회계열 비STEM 전공에서는 계층 간 차이가 성별 차이보다 두드러지지만, STEM 전공 선택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계층 간 차이보다 두드러진다. 그 외 비상위권 대학 진학자들과 비교해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STEM 전공에서 상위 계층 남성의 선택 경향이 하위 계층 남성에 비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즉, 상위권 대학에서는 비상위권 대학과 달리 STEM 선택이 상위 계층 남성이 선호하는 일종의 특권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반면 비상위권 대학에서는 STEM 전공이 그런 특권적 지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추세와 관련해 (d)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상위 계층 출신 남성들이 STEM 전공을 선택하는 확률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앞서 (c), 즉 비상위권 대학에서도 상위 계층 출신 남성들이 STEM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다른 성별-계층 집단 대비 전통적 우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계층 남성의 상대적 선호가 강화되는 부문으로서 STEM 계열이 부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KIEOD 데이터베이스에서 1980년 이후 출생자들 간 수평적 계층화의 경향에 초점을 맞춰 전문대 이상 대졸자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가장 최근의 출생 코호트를 포괄하면서 표본의 규모가 큰 GOMS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봤다. [그림 2-13]은 GOMS 자료로 성별, 가족 배경 및 대학 서열에 따른 전공계열 선택 추이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STEM 전공 여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초학문인지 응용학문인지 기준에 따라 전공을 분류해 네 개 전공 범주를 종속변수로 가지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네 개 전공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 비STEM 전공(인문학, 심리학, 예체능), ② 응용 비STEM 전공(경영·경제, 법학, 사회과학, 교육, 간호·보건·복지), ③ 기초 STEM 전공(수학, 자연과학, 환경과학, 생활과학, 의학), ④ 응용 STEM 전공(공학). 핵심 독립변수는 성별, 부모 학력(가족 배경), 상위권 대학 여부 그리고 출생 연도를 포함하되 이 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해 최적의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선별했다. 4년제 대졸자들로만 한정해 분석했다. 분석에는 1981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포함되었다. 그림은 상위권과 비상위권 대학 진학을 각각 나눠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



[그림 2-13] 성별, 계층, 대학 서열에 따른 전공계열 선택 추이(1980년 이후 출생자, GOMS 자료)

먼저 기초 비STEM 전공계열(인문학, 심리학, 예체능) 선택 확률 추세를 살펴보자. 비상위권과 상위권 그림을 비교해 보면, 상위권 진학자들에 비해 비상위권 대학 진학자들의 기초 비STEM 전공 선택 확률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위권 대학의 경우 기초 비STEM 전공계열 선택은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전적으로 성별에 따른 분리(여성의 선택 확률이 10%포인트 정도 높음) 양상이 확연하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성별 분리 양상이 아주 뚜렷하지 않았지만 이후 점차 남성들의 선택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성별 분리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응용 비STEM 계열(교육, 경제·경영·법학, 사회과학, 간호, 복지) 선택의 경우 성별 분리가 매우 확연하다. 계층과 상위권 대학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이 이 계열로 진학하는 확률은 0.3, 남성은 0.15 수준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성별 분리 추세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뚜렷한 성별 분리는 주로 교육, 간호, 복지와 같이 성별에 따라 선호가 갈리는 전공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초 STEM 계열(수학, 자연과학, 환경과학, 생활과학, 의학) 선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 전공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비상위권 대학들에 비해 상위권 대학들에서 이 전공 선택 확률이 높다. 또한 그 정도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상위 계층 출신 학생들이 하위 계층 출신 학생들에 비해 이 전공계열 선택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비상위권 대학과 상위권 대학 간 보이는 흥미로운 차이는 상위권 대학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남성들의 기초 STEM 계열 선택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는 양상이 발견되었지만, 비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용 STEM 전공(공학)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은 계층 및 상위권 대학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의 이 분야 선택 확률이 0.1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은 0.4~0.5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앞서 살펴본 응용 비STEM 계열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성별 분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흥미로운 추세는 다른 집단과 달리 상위권에 진학한 남성들 사이에서 응용 STEM 전공을 선택하는 확률이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증가 추세가 특정 출신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의 경우 상위 계층 출신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증가 추세가 대체로 상위 계층 출신에 의해 주도된다고 볼 수 있다.⁶⁾

[그림 2-13]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그림 2-12]에 제시된 결과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남녀 성별 분리는 주로 응용 분야에서 STEM 전공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진다. 한편 기초와 응용 분야 모두에서 남성의 STEM 전공 선택 확률이 상위권 대학 진학자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거울상으로 상위권 대학의 기초 비STEM 전공에서 남성의 선택 확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양상도 발견된다. 이는 남성-상위권 대학(및 상위 계층)-STEM 전공이 서로 교차하면서 대학 진학 과정에서 새로운 특권적 영역이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3 소결

KIEOD 자료 분석 결과, 이공계열 전공 선택에서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상위 계층 남성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강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남성의 인문계열 전공 선택 경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뚜렷하게 감소하고, 그만큼 이공계 전공 선택 경향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양상이 발견된다. 이런 변화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위권 대학에 상위 계층 출신 학생들이 더 많이 진학한다는 구성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규모 대학 확대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대학 진학의 양적 측면에서 계층 및 젠더 불평등 경향이 나타났지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상위 계층 남성들의 이공계 선택이 특권적 영역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6)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남성들의 경우 부모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사람 비율이 54%, 그 이하인 사람 비율이 46%인 반면, 비상위권 대학의 경우 같은 비율이 각각 29%, 71%이다. 이 비율은 응용 STEM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로 한정해도 대동소이하다.

제7절

결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우리는 지금까지 9개의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를 통합해서 구축한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EOD)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세기에 걸쳐 출생한 한국인들의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 진학(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부모의 고학력 여부로 추정)에 따른 격차는 최근 출생자들로 올수록 뚜렷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상위 15개 대학으로 정의한 상위권 엘리트 대학 진학에 있어 격차는 감소하거나 증가했다는 근거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 학력을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측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상대적 지표로 측정할 경우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 부모의 학력 수준 증가가 자녀의 대학 진학 격차의 동적 추세에 중요한 요인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남성보다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보여 줬다. 여성이 대학 진학에서 남성을 추월하는 양상은 특정 계층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계층 불문 여성 전반의 부상에 의한 것임을 찾을 수 있었다.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는 4년제 대학 진학 및 상위권 엘리트 대학 진학의 경우 성별 격차는 완전히 사라지고 계층 간 차이만 남았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 대학 진학에서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 간 대학 미진학의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는 새로운 젠더 격차가 두드러지는 양상도 발견되었다.

한편 이공계열 전공 여부에서의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최근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상위 계층 남성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강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대학 확대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대학 진학의 양적 측면에서 계층 및 젠더 불평등 경향이 나타났다지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상위 계층 남성들의 이공계 선택이 특권적 영역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제3장

대졸 직후의 대학원 진학과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검토

제3절 방법론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제 1 절 서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대학 진학률은 급격히 높아졌다. 1960년대에는 25~64세 핵심 노동인구 중 대졸자 비율이 1.2%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1.2%로 26배 증가하였다(김창환·변수용, 2021, p. 12). 25~34세의 청년층으로 한정해도 동 기간 동안 대졸자는 2.4%에서 48.0%로 20배 증가한다(김창환·변수용, 2021). OECD 국가 중 25~34세 대졸 학력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다(OECD, 2020). 이러한 대학 교육의 양적 확대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교육 기회의 계층적 격차를 줄였다(변수용·이성균, 2021). 대학 교육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서 가족 배경의 계층적 영향력을 크게 줄이기도 한다(Mare, 1980; Mullen, Goyette, and Soares, 2003).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진학까지는 계층에 따른 격차가 나타나지만, 대학 진학 이후의 추가 학력 취득이나 직업 지위 취득에서 가족 배경의 계층적 영향력은 급감하였다(Mare, 1980; Hout, 1988; Torche, 2011). 하지만 대학 교육 기회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위 계층은 교육 기회가 평등해질 때 교육의 추가적 양적 확대와 질적 차별화로 새로운 계층화를 추구한다(Raftery and Hout, 1993; Lucas, 2001; 변수용·이성균, 2021). 그 결과 대학 교육의 팽창은 대학원 교육의 팽창과 중요성 증대로 이어졌다(Posselt and Grodsky, 2019). 이러한 변화 때문에 대학원 교육 기회의 계층적 격차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는 대학원 졸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서 계층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lcon and Bataille, 2018; Torche, 2011, 2015; Oh and Kim, 2020).

대학의 팽창과 더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대학 교육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DiPrete and Buchmann, 2013; van Hek, Kraaykamp and Wolbers, 2016).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 지 오래다(Okahana and Zhou, 2019). 한국에서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9). 하지만 한국의 대학원 교육에서 여성의 진학률이나 학위 취득률이

남성을 추월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원 교육에 끼치는 성별 격차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시절 고등교육 기회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먼저 주어졌다. 가부장제적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지배적이었기에 투자 자원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 전략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의 교육에 더 많은 교육 자원을 투자하였다(장경섭, 2018). 이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와 계층의 상관성은 아들보다 딸에게서 높았다(장상수, 2000, 2004). 이러한 과거의 경향이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교육 기회와 투자의 성별 격차는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원 교육 기회의 계층적 격차와 성별 격차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오창환·정철영, 2009; 이영민·임정연, 2011; 차성현·엄문영·민병철, 2014; 최인희, 2020 등), 사회경제적 계층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른 연구에 비해, 대학원 진학에 관한 엄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여전히 대학 교육이 교육 성취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김두환, 2008). 이 때문에 교육 성취의 계층 격차에 대한 연구는 대학 교육까지로 한정되었다. 교육의 계층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대학원 교육이 아니라 중등교육(즉, 중·고등학교 교육)에서의 학력 격차에 집중되었다(예를 들어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변수용·이성균, 2021). 다른 하나는 자료의 미비 때문이다. 대학원 진학자는 대학 진학자에 비해 소수이다. 서베이 자료로 대학원 진학의 인구학적 특성을 연구하기에 표본 수가 적은 난관이 있다. 대학원 진학의 계층 영향력을 엄밀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관관계를 넘어 졸업한 대학의 명성과 전공을 통제해야 한다. 계층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다르고(장상수, 2000, 2004) 진학하는 대학의 명성(또는 위세)이 다르다(김창환·신희연, 2020). 이 때문에 출신 대학을 통제하지 않으면 대학원 진학의 계층 영향력이 대학 진학의 격차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발생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10~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 배경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력을 졸업 대학과 전공을 통제한 후 순(純) 효과로 측정한다. GOMS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구체적인 대학과 전공, 대학 졸업 직후의 대학원 진학 경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 2010~2018년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대학원 진학에 대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

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출신 대학, 세부 학부 전공, 출신 고교의 유형과 인구학적·기술적 변수를 통제한 후 부모의 소득, 자산, 직업, 교육 4가지 차원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계층과 대학원 진학의 상관관계가 성별로 차이가 나는지 측정한다. 연구 결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은 구체적인 대학과 세부 전공을 통제한 후에도 대학원 진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며, 부모의 소득과 학력 수준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성별로 상이하였다. 아들보다 딸의 대학원 진학에 가족 배경의 중요성이 컸다. 다음 장에서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한국에서의 가족 배경과 대학원 교육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 후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방법론을 설명하고,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제2절 이론적 검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과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

교육 팽창과 대학 진학률의 상승은 계층 간 평등을 촉진한다. 하지만 상위 계층은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불평등 유지 전략을 도입한다. 사회학에서는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의 지속 기제로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하나는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MMI)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EMI)이다. 전자는 교육 팽창의 효과는 상위 계층이 먼저 전유한 후 상위 계층의 교육 수준이 포화 되었을 때 하위 계층이 교육 팽창의 혜택을 보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Raftery and Hout, 1993). 따라서 교육 성취의 가족 배경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상위 계층이 교육 포화 지점에 도달한 이후다. 이 논의의 함의 중 하나는 국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할 때, 초기 수혜자는 상위 계층이고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의 수혜가 포화점에 도달한 이후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공공교육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초기 수혜자는 계층적으로 차별화된다. 이 논의의 또 다른 함의는 상위 계층의 교육 성취가 포화 지점에 도달하고 하위 계층으로 교육 팽창의 혜택이 확대될 때, 상위 계층은 교육 성취의 목표를 수정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육이 ‘고등’ 교육으로 여겨질 때는 상위 계층이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까지 신경 쓰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교육이 되면, 상위 계층은 교육 성취의 목표를 대학으로 수정한다.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의 팽창으로 대학 교육이 보편교육화될 때 상위 계층은 교육 성취 목표를 대학원 교육으로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하위 계층과의 교육적 격차를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팽창에도 불구하고 가족 배경이 교육 성취에 끼치는 영향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교육 팽창은 곧 교육기회의 평등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간주된다.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필연적으로 기존에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계층에게 기회가 확대될 수밖에 없

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은 이러한 교육 기회의 확대가 실제 계층의 기회 평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육 기회의 극단적 확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육 기회의 실제적 평등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준다.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은 고등교육이 확장되고 대학 교육이 팽창할 때 고등교육에서 수직적 계층화(Vertical Stratification)가 발생할 것을 예측한다(Oh and Kim, 2020; Posselt and Grodsky, 2017). 일반적으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추가적 교육(즉, 대학원 교육)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계층화의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본다. 이와 달리 고등교육의 수직적 계층화는 과거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계층화되었듯,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내에서도 대학원 진학이 계층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아직 많은 연구들이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응답자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사회학에서 대학 교육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수직적 계층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대학원 교육의 계층화에 대한 종합 검토로 Posselt and Grodsky, 2017 참조). 한국은 대학 교육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보편화되었지만, 대학원 진학의 계층화 현상, 수직적 계층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수직적 계층화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시도이다.⁷⁾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이 고등교육의 수직적 계층화와 관련되어 있다면,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은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Horizontal Stratification)와 관련되어 있다(Oh and Kim, 2020; Posselt and Grodsky, 2017).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은 교육의 양적 계층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인 반면,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은 교육의 질적 계층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이 이론을 제안한 루카스(Lucas, 2001)에 따르면 교육 기회가 확대될 때 상위 계층은 교육의 양적 확대를 우선 전유함으로써 교육 기회 불평등을 유지하고, 계층적 지위를 재생산하기 전이라도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통해

7) 대학원 진학 확률을 탐색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고등교육의 수직적 계층화와 관련된 또 다른 이론은 2년제 대학의 계층화와 관련된 냉각배제(Cooling-out) 가설이다(Dougherty, 1994; Kim and Tamborini, 2019; Rosenbaum et al. 2017). 이 이론은 2년제 대학의 주요 기능은 하위 계층 출신 학생들이 높은 직업 지위와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열망을 꺾고 2년제 대학에서의 교육 성취에 만족하여 중간 지위 획득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2년제 대학이 고등교육이 팽창하는 시대에 계층의 재생산과 고착화를 유도한다는 가설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교육의 준비가 미비한 하위 계층 출신 학생들이 2년제 대학을 통하여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고(Rosenbaum et al., 2017), 소득의 측면에서도 2년제 대학의 수익률이 4년제 대학보다 낮지 않다(Kim and Tamborini, 2019). 한국에서도 2년제 대학이 하위 계층의 계층 상승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최성수·이수민, 2018).

하위 계층과 차별화하고 계층 지위를 재생산한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질적 차별화란 대학 명성과 전공의 차별화를 의미한다. 대학의 명성에 따른 위계를 당연시하는 한국에서는 대학의 명성에 따른 계층화를 수평적 계층화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 오히려 대학의 명성에 따른 계층화를 수직적 계층화의 하나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어떤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는 엄격한 위계가 있기보다는 개인적 선호에 의한 선택이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 대학의 수직적 위계가 없거나 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아이비리그 대학의 명성이 더 높지만, 우수 학생이 거주 지역의 주립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데일과 크루거(Dale and Krueger, 2002, 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 SAT, 봉사활동 등에서 비슷한 성적을 가진 고등학생이 아이비리그와 주립대에 각각 진학했을 때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우수 학생의 집중도가 높아 명성이 높지만, 인적자본을 키우는 교육의 실제적 측면에서 주립대와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졸업은 명백한 수직적 계층화인 반면, 대학 내에서의 명성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의 수평적 계층화다. 한국 내에서 비슷한 명성의 대학 중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가는 개인적 선호에 의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수평적 계층화의 대상은 엄격한 위계적 차이가 아니라 명목적 차이의 대상이었다.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은 이렇게 명목적 차이였던 대학의 명성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분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 한국에서 명문대 진학자들의 상위 계층 집중화 현상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한국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 심화 현상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자사고 특목고를 둘러싼 논란도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교 유형에 대한 연구로 예를 들어, 김성훈·김안나, 2009;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1980년대에 단행된 고교평준화 조치는 고등학교 교육 내에서의 계층화를 차단하였다. 지역 집중에 의한 계층화 외에 고등학교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박탈한 조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상위 계층은 고등학교 수월성 교육에 대한 니즈를 꾸준히 제기하였고, 과학고,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설립함으로써 동일한 교육 단계인 고등학교 교육 내에서의 계층화를 이루어 냈다. 일부에서는 자사고나 특수목적고가 성적 상위 계층 학생들을 선발하여 동일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성적 상층 학생들 내부에서는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계층화를 완화시

킬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명문대 진학 확률 측면에서 자사고나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내부에서의 계층 영향력이 일반고 내부에서의 계층 영향력보다 크다(김창환·신희연, 2020). 달리 말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사고 특수목적고 출신들의 명문대 진학 확률의 가족 배경에 따른 계층 격차가 일반고 출신들보다 크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는 교육 기회의 계층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확대시킨다. 이를 통해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는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을 강화한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 존속에 대한 지지가 상위 계층에서 높고 하위 계층에서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등교육 수평적 계층화의 또 다른 축은 전공의 계층 분리이다. 전공 선택은 대학의 명성보다 훨씬 더 개인적 선호에 따른 명목적 차이가 큰 분야이다. 대학 명성의 위계적 측면에 비해 전공 선택의 위계적 측면은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과 다른 전공을 택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측면을 차별화한다. 한국에서의 전공을 축으로 한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는 다른 국가, 특히 미국보다 약한 편이다. 전공의 계층 분리는 졸업 후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공은 상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전공은 하위 계층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대학 전공에 따른 계층 분리는 아 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작용한다. 직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교양의 측면을 강조하는 리버럴 아트(Liberal Arts) 전공은 상위 계층이, 직접적인 직업교육이 강조되는 공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전공에는 하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었다(Davies and Guppy, 1997; Goyette and Mullen, 2006). 리버럴 아트 전공은 영문학·역사학 등의 전통 인문학과 사회학·심리학 등의 사회과학, 그리고 수학·물리학·생물학 등의 자연과학을 포함한다. 경영학, 공학, 교육학 등 전공과 직업 선택의 연관성이 밀접한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위 계층은 대학 교육을 직업 지위 획득을 위한 인적자본 획득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본의 축적을 통해 전반적 교육 수준을 높임으로써 계층의 문화적 지표로 삼는다. 이것이 상위 계층의 전공을 통한 수평적 계층화 전략이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 중에서 상위 랭크를 점하는 윌리엄스대(Williams College), 애머스트대(Amherst College), 스와스모어대(Swarthmore College), 웰즐리대(Wellesley College) 등의 등록금이 5만~6만 달러(약 5,500만~6,200만 원)에 달하고, 의무적으로 입사해야 하는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포함하면 1년 학비가 8만 달러(약 9,200만 원)에 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학부에서의 리버럴 아트 전공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계층화가 대학원 진학의 수직적 계층화와 결부된다. 미국에서는 리버럴 아

트를 전공한 상위 계층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직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큰 분야를 전공한 하위 계층의 대학원 진학 확률보다 상당히 높다.⁸⁾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과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은 교육 팽창 시대의 대학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 메커니즘을 밝혔다. 두 가지 이론은 여러 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지지되었다(예를 들어, Byun and Park, 2017; Hout, 2006; Lucas and Byrne, 2017; Tolsma, Coenders, and Lubbers, 2007). 이 이론과 이에 기반한 타 국가의 경험적 결과들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원 진학 확률의 계층적 격차에 대한 연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한다.

2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 교육

교육 팽창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세대 간 사회이동을 촉진한다는 기획은 미국 사회의 경험적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롭 메어(Rob Mare)를 시발점으로(Mare, 1980)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 진학까지는 가족 배경의 계층 차이에 따라 다음 단계 교육으로의 진학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급속히 축소되고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성취가 달라진다(Breen and Jonsson, 2007; Breen and Luijckx, 2007; Hout, 1984, 1988; Vallet, 2004). 부모 교육, 소득, 자산 등으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계층의 자녀들이 대학 진학까지는 하위 계층의 자녀들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만, 일단 대학에 진학한 후 대학원 진학 확률이나 대학 졸업 후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성취에서는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물론 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Mullen et al., 2003)에 따르면 MBA 과정과 석사 과정 대학원 진학은 학부의 성적에 의해 주로 좌우되지 부모의 교육 수준과 무관했다. 즉, 대학 진학 조건부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의 상관관계는 영(零)에 수렴한다. 수식으로는

8) 미국 노동시장에서 아시아계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성공은 대학 교육의 수평적 계층화에서 노동시장 수익률이 높은 이공계(STEM) 분야의 전략적 적응과 선택(strategic adaptation and choice)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Xie and Goyette, 2003; Kim and Sakamoto, 2010). 백인 중상층의 교육 규범을 따르지 않고 노동시장 수익이 높은 대학 전공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전략적 선택과 적응은 이민 대상국 주류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동화(assimilation)를 통하여 이민자가 주류와 경제적 평등(parity)을 달성한다는 이론에 대비되는 사례이다.

$r(\text{SES, family background} \mid \text{college}) = 0$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은 대학에 진학한 후 상위 계층 지위 획득 확률의 출신 계층 격차가 없다는 의미다. 일단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개천 용’으로 표현되는 하위 계층 출신의 상향 사회이동 확률이 상위 계층의 상위 계층 유지 확률과 같아진다. 대학 진학 이후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는 가족 배경이 아니라 능력주의(meritocracy)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 바탕하여 교육사회학과 계층론에서는 대학을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the Great Equalizer)’로 명명하였다(Hout, 1988).⁹⁾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 교육은 세대 간 사회이동 촉진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교육과 계층 지위 획득의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학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Rosenbaum, 2001).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 교육론을 도출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회 평등과 활발한 세대 간 계층이동을 저해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대학 진학까지는 가족 배경의 계층 영향력이 공고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교육을 마친 후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 팽창은 이 두 가지 난관을 모두 우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에 따르더라도 대학 교육의 극단적 팽창은 궁극적으로 하위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시킨다.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좁은 대학 진학 확률의 계층 간 평등성을 확보할 최선의 방안은 발견되지 않았다.¹⁰⁾ 하지만 대학 팽창을 통해 대학 진학률 자체를 높이면 상위 계층 출신의 대학 진학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하위 계층 출신의 대학 진학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대학 진학 확률의 계층 간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졸 미만의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의 가족 배경 영향력이 지속되는 원인과 해결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상

9) 물론 설사 대학이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일지라도 남은 이슈가 있다. 하위 계층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상위 계층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 선택(positive selection)일 가능성이 높다. 하위 계층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연구자에게 관찰되지 않지만 대학 진학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노력이나 야망, 타고난 인지능력 등에서 상위 계층보다 더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10) 한국에서 강남과 기타 서울 지역의 대비, 서울과 지방의 대비처럼 계층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출신 중고교에 따른 학력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불평등 재생산의 한 요인으로 학교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교육이 계층 간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계층 재생산 효과를 꾸준히 연구한 더글러스 다운니(Douglas B. Downey)의 연구를 종합한 책(Downey, 2020)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학창 시절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가정과 사회에서 보낸다. 또한 학기 중의 계층 간 성적 격차와 방학 기간의 계층 간 성적 격차 변화를 비교하면, 학교교육이 진행 중인 전자보다는 학교교육이 멈추는 후자에서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된다. 학교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계층 간 격차는 오히려 축소된다.

속과 증여 등에 의한 사업 기회의 격차가 원인일 수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기회 불평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 정보는 약한 연대(weak ties)의 지인을 통해 확보되는데(Granovetter, 1973), 상위 계층이 약한 연대의 폭이 넓고, 또한 적절한 정보를 가진 약한 연대의 구조적 고리(structural holes)와 더 많은 연대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Burt, 1992). 대학 팽창은 대졸자 미만 집단에서의 강한 계층 간 유지성(intergenerational social persistency)을 우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두에게 대학 교육을(College for All)”이라는 구호가 기회 평등과 세대 간 사회이동을 촉진하려는 기획을 방책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든다.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과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에서 제안되었듯 고등교육 내에서의 추가적 계층화를 통해 대학 교육이 더 이상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낮았던 20세기에는 대학이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21세기에는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의 위치는 흔들리고 있다. 그 메커니즘은 대학원 진학과 대학원 진학 이후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일련의 연구 시작은 2012년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에 실린 플로렌시아 토치(Florencia Torche)의 논문이다(Torche, 2011).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의 관계는 교육 수준에 따라 U자형 패턴(U-shaped pattern)을 따른다. 자녀의 교육 성취도가 낮을 때는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높지만, 자녀의 교육 성취도가 높아지면서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점점 약화된다. 자녀가 대학 교육을 받는 수준에 이르면,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낮아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의 교육 성취도가 더 높아져 대학원 교육을 받게 되면,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다시 나타난다. 미국에서만 이러한 U자형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Oh and Kim, 2020; Witteveen and Attewell, 2020),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이 형태가 확인되었다(Falcon and Bataille, 2018).

교육 수준이 증가하면서 대학에 이를 때까지 줄어들던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의 상관관계가 다시 나타날 때, 두 가지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하나는 누가 대학원에 진학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학부 졸업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던 가족 배경의 효과가 대

학원 졸업자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자에서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의 상관관계가 다시 나타난 원인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오병돈·김창환(Oh and Kim, 2020)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메커니즘이 학부 졸업자와 달리 대학원 졸업자에서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이유를 모두 설명한다. 첫째 메커니즘은 가족 배경에 따른 고등교육의 수직적 계층화이다. 대학 진학 이후 대학원 진학 확률은 가족 배경의 영향이 없었던 기존 연구(Mare, 1980)와 달리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확률이 높아졌다. 상위 계층 가족 배경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자녀의 출신 대학 명성, 전공, 기타 인구학적 배경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대학교, 같은 전공 출신일지라도, 상위 계층 출신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 확률이 높다. 특히 등록금이 비싸고 장학금이나 수업, 연구 조교 등 재정 지원이 부족한 로스쿨(Law School)이나 메디컬스쿨(Medical School) 또는 MBA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고, 석사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박사 학위 취득 확률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컸다.

둘째 메커니즘은 가족 배경에 따른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상위 계층은 R1 대학(Research 1 University)이라고 얘기되는 연구중심대학이나 리버럴 아트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다. 흥미로운 지점은 전공에 따른 수평적 계층화다. 상위 계층 출신은 학부에서 인문, 자연과학 등 리버럴 아트 관련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하위 계층 출신보다 높은 데 반해, 하위 계층 출신은 공학이나 교육, 비즈니스 등 직업(vocational) 중심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런데 리버럴 아트를 전공한 상위 계층은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동일한 리버럴 아트 전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 의료, 공학 등 노동시장에서 보상이 높은 전공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세부 전공을 통제하지 않고 학부 출신자의 가족 배경 영향력을 측정하면, 가족 배경의 효과가 과소 추정된다. 학부 출신 학교와 학부 전공을 통제한 후에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학부 졸업자 중에서도 가족 배경의 효과가 드러난다. 달리 말해, 대학 내 가족 배경에 따라 달리 작동하는 수평적 계층화 때문에 기존 연구는 대학을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 오인한 것이다. 마지막 메커니즘은 대학 졸업 연령의 차이이다. 상위 계층 출신은 고교 졸업 직후 갭이어(gap year) 없이 대학에 바로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다른 준비 기간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최종 학위를 획득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이에 반해 하위 계층 출신은 자신의 노동으로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는 등 대학 졸업 연령이 상위 계층 출신보다 높고,

대학원 진학도 일정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한 후에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설사 동일한 전공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대학원 졸업 당시의 연령은 상위 계층 출신보다 하위 계층 출신이 높다. 따라서 동일 연령대에서 상위 계층 출신의 최종 학위 취득 후 노동시장 경력이 하위 계층 출신의 노동시장 경력보다 많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통제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학부 졸업자의 가족 배경 영향력의 차이가 모두 사라진다.

한국에서도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의 관계가 교육 수준에 따라 U자형 패턴을 보여준다는 연구는 아직 없다.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한 김기현(2004)의 연구는 학력 레벨이 상승하면서 가족 배경의 효과는 줄어들고, 대학원 진학에 가족 배경의 영향은 없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U자형 패턴이 다른 국가에서도 최근에 나타난 현상임을 고려할 때, 최근 자료를 사용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 졸업자 중 가족 배경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목한다. 대학 교육 팽창과 더불어 대학원 진학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대학원 진학의 계층 격차를 확인하는 것은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대학원 졸업자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의 가족 배경 효과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의 교육 수준에 따른 U자형 패턴이 대학 교육의 평등 촉진 효과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대학원 졸업자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학부 졸업자보다 컸더라도, 여전히 대학 미진학자에 비해 대학 진학자의 가족 배경 영향력이 작다. 대학 팽창이 기회 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이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대학은 여전히 평등의 촉진자로 기능하고 있다.

3 한국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기존 연구

한국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학 팽창과 이에 따르는 고등교육의 변화로부터 가설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대학원 진학의 기본적 결정 요인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영민·임정연, 2011; 차성현·엄문영·민병철, 2014; 최인희, 2020). 예를 들어, 차성현과 연구진(2014)은 대학원 진학 결정 요인을 성과 연령 등의 개인 변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가족 변인, 대학의 소재지와 전공 등의 대학 변인, 학점 등의 대학

생활 변인, 그리고 졸업 당시의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다른 논문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논문은 대학원 진학자가 아니라 대졸자나 대졸 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의사를 연구하기도 하였다(길혜지 외, 2018; 오창환·정철영, 2009).

이들 연구는 대학원 진학에 대한 연구의 상대적 부족 속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기술통계와 다변량 분석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대학원 진학자의 성별 비중을 단순 비교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한 기술통계 결과와 다변량 분석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혼합하여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예를 들어, 이영민·임정연, 2011; 차성현·엄문영·민병철, 2014; 최인희, 2020).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많은데(이영민·임정연, 2011; 길혜지 외, 2018; 최인희, 2020), 패널 데이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가 적어서 정확하고 유의도 높은 계수 추정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차성현 외(2014)의 논문은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코호트의 4년제 대학 졸업자 4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데이터의 문제 때문에 기존 연구는 충분한 변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원 진학에서 출신 대학 명성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지만(Millett, 2003; Mullen et al., 2003), 기존 연구들은 구체적인 출신 대학을 통제하기보다는 대학의 소재지 효과 정도를 측정하는 데 그쳤다. 전공도 세부 전공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인문사회계 대비 자연/공학계의 상대적 효과를 보는 등 대분류 수준에 머물렀다. 기존 연구는 또한 정치한 이론적 예측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보다는 여러 대학원 진학 결정 요인의 상대적 크기를 확인하고 있다. 김기현(2004)의 연구가 예외적으로 가족 배경과 교육 성취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사회학의 보편적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한다. 교육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족 배경의 효과가 감소하고,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는 가족 배경이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원’과 일치하는 결과다.

본 연구의 주 관심 주제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원 진학 확률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연구의 수는 적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족 배경이 여전히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인희(2020)는 모친의 대학원 학력은 자녀의 대학원 진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데 반해, 부친의 대학원 학력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다. 실제 대학원 진학자가 아니라 졸업 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의사를 타진한 연구이지만, 오창환·정철영(2009)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이영민·임정연(2011)은 부모의 교

육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영민·임정연의 부모 소득 효과에 대한 결론은 기술통계에서만 지지되고 다변량 분석에서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원 진학에 가족 배경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김기현(2004)의 연구에는 부모 소득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존 연구는 부모의 소득과 교육, 직업변수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층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하위 계층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보다 높은 것은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확인된다. 하지만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원 진학 확률의 상관관계가 가족 배경과 출신 대학의 긍정적 상관에 의해 매개된 효과인지, 아니면 출신 대학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남는 순 효과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으면 명성이 높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 입시제도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김창환·신희연, 2020). 그런데 상위권 대학 출신자가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구체적인 졸업 학교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가족 배경과 진학 대학의 상관관계가 가족 배경과 대학원 진학의 상관관계로 잘못 측정되는 생략변수편향(omitted variable bias)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졸업 대학을 통제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생략변수편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성별과 대학원 진학 확률의 관계에 대해 혼합된 결과를 보여준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지만(이영민·임정연, 2011),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다(오창환·정철영, 2009). 기술통계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지만 다변량 분석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최인희, 2020). 한국 사회에서 하위 계층에서 교육 투자 자원이 부족할 때 딸보다는 아들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장경섭, 2018). 고등교육 기회에서도 여성은 2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김두환, 2015). 교육의 성별 격차가 동일 대학, 동일 학과를 졸업한 후에도 나타나는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 단계에서 성별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고등교육에서의 여성의 부상과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론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에서 성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대학 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김창환·오병돈, 2019).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공계열 전공자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인문사회계보다 확실히 높다(차성현 외, 2014; 최인희, 2020).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결과이다. 성별 전공 분리는 잘 알려진 현상이다(England and Li, 2006; Jacobs, 1995). 같은 이공계 내에서도 생물학 등에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물리학 등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정확한 성별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세부 전공을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엄밀한 변수 통제 후에 대학원 진학 확률에 끼치는 성별 효과를 검증한다.

가족 배경과 대학원 진학의 관계가 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가족 배경과 대학원 진학이 구체적인 출신 대학과 세부 전공을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한지 확인한 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성별로 다른지 측정한다. 하위 계층에서 성별 교육 투자가 달랐던 과거를 고려할 때, 동일한 대학,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하위 계층에서 대학원 진학에 성별 격차가 상위 계층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더 엄밀한 변수 통제 후에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원 진학 확률에 상관이 있는지, 이 상관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원에 의하면 대학 졸업 후의 추가적 인적자본 축적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은 가족 배경과 무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이나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에 따르면 대학 팽창으로 대학원 교육이 증시될 때 대학원 진학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 배경의 중요성은 증가한다. 대립되는 이론적 예측에 대한 기존 연구보다 엄밀한 경험적 증명을 본 연구는 제공한다.

제3절 방법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0~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사용한다. GOMS는 매년 전 연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재학 당시의 경험과 대학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경력에 대한 표본 조사이다. 전국 대표성을 가진 조사로 2년제, 4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통계청 승인하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GOMS의 각 연도는 조사가 수행된 해가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졸업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8 GOMS는 2018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에 조사가 수행되어 2020년에 데이터 작업을 마치고 2021년 3월에 일반에 공개된 자료이다. GOMS 조사는 2007년부터 수행되었지만, 대학원 진학 경험에 대한 질문은 2010년 조사 이후에 일관되게 포함되었기에 2010년 이후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2년제 대학 졸업자는 대학원 진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고,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 졸업 연령이 30세를 초과하는 비일반적 사례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 연령이 21세 이하인 극소수의 사례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모의 가족 배경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 시기 정보가 누락된 사례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년제 대학이나 교육 대학 졸업자 중에서 표본 제한에 의해 제외된 사례는 7,615로 전체 표본 수 11만 9,175의 6.4%이다. 그중 절반 이상(3,969 표본)이 연령 제한에 의해 제외되었다. 최종 표본 수는 11만 1,560이다.

2 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주 종속변수는 더미변수로 측정된 대학원 진학 여부이다. 진학자는 1로, 비진학자는 0으로 처리하였다. 주 종속변수 외에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보조 종속변수로 고용 상태를 사용하였다. 고용 상태는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1) 현재 일하고 있거나 고용이 결정되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 (2) 일자리를 현재 찾고 있거나 직업학교에 다니는 등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3)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마지막으로 (4) 노동시장에 있지도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상태로 구분하였다.

나. 주 독립변수: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주 독립변수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모 소득, 부모 자산, 부모 교육, 부모 직업 네 가지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사회경제적 변수는 GOMS의 현재 부모 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 GOMS에서 부모 소득은 소득 없음을 포함한 9개의 구간변수와 무응답, 부모 부재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있을 때의 최소 구간은 월 100만 원 이하이고, 최대 구간은 월 1,000만 원 이상이다. 연도별 소득 분포가 다르고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사 연도별로 소득의 상대적 위치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하여 구간변수의 값을 각 구간의 중위값으로 전환하였고, 톱코딩(top coding)이 적용된 소득 최댓값 1,000만 원 이상은 1.3을 곱하여 1,300만 원 값으로 전환하였다.¹¹⁾ 그 후 연도별 소득을 표준화 점수(Standardized Score)로 전환하였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결측치(missing)로 처리하였다. 소득을 표준화 점수로 전환할 경우 연도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연도의 평균 소득이 모두 0, 표준편차는 1로 전환됨으로써 연도별 소득 증가에 따른 분포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부모 소득 지위의 상대적 위치만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자산변수는 부모의 총자산이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구간변수로 조사되었는데, 소득보

11) 톱코딩이 적용된 소득 범주에 1.3배를 곱하여 조정하는 방식은 널리 사용된다(Autor, Katz, and Kearney, 2008). 소득의 로그정규분포를 가정하여 톱코딩을 조정하는 방식도 적용하였지만, 결과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 구간의 범위가 훨씬 넓어 자산 없음을 포함하여 7개의 구간 항목과 무응답, 부모 부재가 GOMS 조사의 응답 선택지이다. 자산이 있을 때의 최솟값은 5천만 원 이하이고, 최댓값은 10억 원 이상이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 항목을 중위값으로 전환하고, 톱코딩의 값은 1.3배를 적용하였다. 그 후 연도별 자산을 표준화 점수로 전환하였다. 자산변수는 2015 GOMS에서 새로 추가된 설문 항목이다. 이전 GOMS에서는 자산변수를 묻지 않았다. 소득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산변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5~2018 GOMS만을 대상으로 자산변수가 포함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부모의 교육 변수는 부친과 모친 각각의 경우를 별도로 측정하였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성취보다 모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을 각각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도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모 각각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0) 대졸 미만, (1) 대졸, (2)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하였다. 미국이나 타 국가의 연구들이 대학과 대학원 졸업을 통합하여 부모의 최종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비교할 때, GOMS 자료는 부모 학력을 대졸과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교육을 세 가지 범주가 아니라 교육 연수(years of schooling)로도 측정하였다. 교육 변수의 유의성에서는 범주형 척도나 교육 연수로 측정한 연속형 척도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범주형 척도를 사용했을 때, 모친의 대학원 졸업 여부가 대학원 진학 확률에 끼치는 성별 격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마지막 가족 배경 변수인 직업 지위는 부친과 모친을 별도로 측정하였다. 부친은 관리직·전문직(1)과 기타 직업(0)으로 이항변수를 사용하였고, 모친은 관리직·전문직(1), 가정주부(2), 기타 직업(0)으로 명목변수를 사용하였다. 가정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직업 지위라고 칭할 수 없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와 직업 지위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3개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분석의 편의와 결과의 실제적 해석에서 장점이 있다.

다. 대학 교육 변수: 졸업 대학, 명성, 전공, 학점

본 연구는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를 졸업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도 구분한다. 공개된 GOMS 자료는 구체적인 졸업 대학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한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구체적인 226개 졸업 대학 정보와 공개된 원자료를 통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출신 대학을 명성, 국공립대와 사립대 여부, 소재지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최상위 명문대, 둘째는 차상위 명문대, 셋째는 기타 서울 소재 사립대, 넷째는 기타 지방 소재 국공립대, 다섯째는 지방 소재 사립대, 마지막은 모든 의과대학이다. 최상위 명문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대학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차상위 명문대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 결과의 상위 20개 대학 중에서 최상위 8개를 제외한 12개 대학을 포함한다. 일부 분석에서는 6개 범주가 아니라 226개 졸업 대학의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모두 통제하였다.

학부 전공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계를 준거집단으로, 인문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로 구분하였다. 일부 분석에서는 7개 대분류가 아니라 131개 전공 세분류의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신 대학과 학부 전공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 배경 변수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가족 배경 변수의 효과가 전공이나 출신 대학에 따라 달라지는지 파악한다.

출신 대학과 전공 이외에 학부 학점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학점이 결측치인 경우에는 결측치 변수를 더미변수로 통제하였다. 대학 재학 당시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지도 통제하였다.

라. 고교 교육 변수: 고교 유형, 고교 위치

출신 고등학교의 효과는 두 가지 변수로 측정한다. 하나는 출신 고교의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출신 고교의 지역이다. 출신 고교의 유형은 (0) 일반 인문계, (1) 일반 자연계, (2) 과학고/자사고/특목고, (3) 기타로 나눈다. 학부 출신 대학과 전공을 통제한 후에도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대학원 진학 확률이 달라지는지 파악한다.

거주지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달라지지만, GOMS 응답자의 현 거주지는 가족 배경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출신 고교의 위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 고교 위치를 15개 광역시·도로 측정하고, 서울 강남 3구 소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출신은 별도로 그 효과를 측정한다.

마. 기타 통제변수

위에 언급한 변수 외에 인구학적 변수와 기술적 변수를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성(0)을 준거집단으로 여성(1)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령은 연령의 주 효과에 더불어 연령의 비선형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자승을 포함하였다. 남성은 군복무로 인하여 여성에 비해 대학 졸업 시기의 연령이 높다.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제는 성별 효과와 공선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령은 성별로 성별 평균값으로 중심화(centering, 즉 연령에서 성별 연령의 평균값을 차감)하였다. 연령 효과의 성별 격차를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성별 평균값으로 중심화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출생지의 광역시·도를 통제하였다. 기술변수는 졸업 연도를 2010년으로 중심화한 후 연속변수로 통제하였다. 졸업 시기가 겨울인지 여름인지도 통제하였다.

3 분석 전략

집단별,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변수별 대학원 진학 확률에 차이가 있는지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다변량 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주요 분석 방법론으로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 다항로짓 회귀분석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방정식 (1)은 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보여준다.

$$\log\left(\frac{p_i}{1-p_i}\right) = \alpha + \sum_{j=1}^J \beta_j SES_{ij} + \sum_{j=1}^J \gamma_j (SES_{ij} \times F_i) + \sum_{k=1}^K \delta_k Edu_{ik} + \sum_{l=1}^L \delta_k X_{il} \quad (1),$$

여기서 종속변수는 응답자 i의 대학원 진학 확률(Pi)의 로짓이다. 본 연구의 주 관심사는 J개의 가족 배경 변수인 SESj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즉, β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0과 다른지)와 성별에 따라 가족 배경 변수의 효과가 달라지는지(즉, γ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표준화 점수를 사용하였기에 β 추정치는 소득과 자산이 1 표준오차 증가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부모 교육 변수는 대졸 이하 학력 대비 부모가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일 때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부모 직업 SES 변수는 부모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때 기타 다른 직업일 경우에 비해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달라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Eduk는 K개의 교육 관련 변수이고, XI은 L개의 통제변수이다. 일부 모델에서는 SES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변수와 성별, 교육 관련 변수와 가족 배경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도 검증한다. 출신 대학과 전공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 배경 효과가 대학원 진학에 여전히 영향을 끼친다면 β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陽)의 값을 보일 것이다. 또한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남성보다 가족 배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면 γ 추정치도 유의하게 양의 값을 보일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직관적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준거집단 대비 승산비(odds ratio)로 해석하거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계산하여 해석한다. 일부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보다 선형확률 모형을 분석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할 것이다. 선형확률 모형의 결과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보다 더 직관적 해석이 가능한 분명한 장점이 있다(Mize, 2019). 하지만 본 연구는 각 계수 추정치의 조건부 평균의 효과를 추정할 뿐만 아니라, 가족 배경의 계층 분위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를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변수로 추정한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모두 낮으면서 출신 대학의 명성이 낮을 경우, 또는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모두 높으면서 출신 대학의 명성도 높을 경우 선형확률 모형의 추정치는 허용 가능한 오차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대학원 진학 확률이 마이너스값을 기록하거나 100%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을 추정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해석에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인과적 의미가 아닌 상관관계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인과적 의미로 사용할 때는 별도로 ‘인과적 효과’ 내지는 ‘원인’이라고 명시하여 상관관계 효과와 구분하였다. 모든 분석은 표본확률의 역수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제4절 분석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표 3-1]은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2010~2018년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대학원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4.7%이다. 남성은 15.8%, 여성은 13.5%로 남성이 여성보다 2.3%포인트 높다. 그런데 현재 주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비율이 남성은 13.8%, 여성은 13.0%로 성별 격차가 0.8%포인트 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원 진학 경험은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와 대학원에 재직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대학원에 진학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다니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반해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응답은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할 경우 둘 중 하나만 택하게 된다. 대학원 진학 경험의 성별 격차가 현재 하는 일에서 대학원 비중의 성별 격차보다 큰 것은 남성은 다른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 기술통계

	전체	남성	여성
대학원 진학 경험	14.7%	15.8%	13.5%
현재 주로 하는 일			
일하였다.	71.5%	72.9%	70.1%
실업, 취업 준비	11.9%	11.1%	12.6%
대학·대학원 재학, 진학 준비	13.4%	13.8%	13.0%
기타(가사 등 NIFL)	3.2%	2.2%	4.3%
평균 연령	26.4	27.5	25.4
대학 전공			
인문	12.3%	8.1%	16.6%
사회	27.9%	27.5%	28.3%
교육	6.6%	4.2%	9.0%
공학	24.4%	38.4%	10.0%
자연	12.1%	10.8%	13.4%

... 제3장 대졸 직후의 대학원 진학과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전체	남성	여성
의약	5.8%	3.3%	8.4%
예체능	10.9%	7.6%	14.3%
출신 대학			
최상위 명문대	9.2%	11.0%	7.3%
차상위 명문대	12.8%	11.9%	13.8%
서울 소재 사립대	8.9%	7.2%	10.7%
지방 소재 국공립대	23.1%	25.2%	20.9%
지방 소재 사립대	45.1%	43.8%	46.4%
의대	0.9%	0.9%	0.9%
출신 고교			
일반 인문계	50.4%	42.1%	58.9%
일반 자연계	37.9%	47.1%	28.4%
과학고/자사고/특목고	3.6%	3.1%	4.1%
기타	8.2%	7.8%	8.6%
부친 교육			
초대졸 이하	59.0%	61.7%	56.3%
대졸	31.7%	29.5%	34.0%
대학원	9.3%	8.8%	9.8%
모친 교육			
초대졸 이하	74.1%	76.7%	71.6%
대졸	22.3%	20.2%	24.5%
대학원	3.6%	3.2%	4.0%
부친 직업			
전문직	36.5%	35.6%	37.4%
기타	63.5%	64.4%	62.6%
모친 직업			
전문직	21.7%	18.9%	24.6%
기타	31.8%	32.6%	31.0%
가정주부	46.5%	48.5%	44.4%
부모 소득 표준화 점수	.000	-.050	+.057
부모 자산 표준화 점수	.000	+.039	-.033
표본 수	111,560	51,108	60,452

주: 표본가중치 적용.

자료: 2010-2018 GOMS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

최상위 명문대는 전체 4년제 대졸자의 9.2%이고, 차상위 명문대는 12.8%로 전체 대졸자의 2할 정도를 차지한다. 지방 소재 국공립대가 23.1%, 지방 소재 사립대가 45.1%로 전체 대졸자의 7할이 비명문 지방 소재 대학 출신자이다. 성별 격차는 크지 않지만, 최상위 명문대 재학자의 비율은 남성이 11.0%로 여성보다 다소 높다. 최상위 명문대의 각 학교별로 분석해봐도 모든 학교에서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다. 성별로 차상위 명문대 졸업자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명문 여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문 여대를 제외하면 성별 차상위 명문대의 비율은 비슷하다. 학부 전공 분포에서 남성은 공학이 38.4%(여성은 10.0%)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사회계가 28.3%(남성은 27.5%) 가장 많다. 그렇다고 여성의 사회계 비율이 남성보다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여성은 공학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 모두에서 남성 대비 비율이 골고루 높다.

다음으로,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4년제 대졸자 부친의 4할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모친은 4분의 1 정도가 대학 이상 교육을 받았다. 특이한 것은 부모가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5%포인트 이상 높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딸의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자원을 투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의 직업 분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남성 대학 졸업자보다 여성 대학 졸업자 부모의 전문직 비율이 높다. 특히 모친의 직업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 남성 대졸자는 어머니의 18.9%가 관리/전문직이고 48.5%가 가정주부인데, 여성 대졸자는 어머니의 24.6%가 관리/전문직이고, 44.4%가 가정주부이다. 부모의 소득을 표준화 점수(standardized score 또는 z-score)로 바꿨을 때 여성 대졸자의 평균은 .057인데 남성은 -.050이다. 여성 대졸자 부모의 소득이 0.057 표준편차만큼 높다.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에서 여성 대졸자의 가족 배경이 남성 대졸자보다 높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지고 있어, 이를 '여성의 부상(the Rise of Women)'이라고 칭한다(DiPrete and Buchmann, 2013).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계층 지위에 따라 부모의 교육 투자가 성별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듯 보인다. 계층 지위가 낮은 부모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 경향이 계층 지위가 높은 부모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는 시사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교육 성취에 끼치는 부모의 계층 지위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본 연구에서의 질문은 이러한 성별 격차가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 진학에서도 계속되는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추가 교육에 끼치는 가족 배경 계층 지위 영향력에 성별 격차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 대학원 진학 확률에 관한 기술적 분석

다변량 통계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교육 배경별, 가족 사회경제적 지위별 대학원 진학 확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표 3-2]를 보면 학부 전공별로 대학원 진학률이 가장 높은 전공은 자연계이다. 28.6%의 자연계 졸업자가 졸업 후 1년 이내에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 다음은 공학계로 18.3%이다. 사회계 전공자는 단지 7.0%만이 대학원에 진학해 비율이 가장 낮다. 학부 전공에 따라 대학 졸업 직후의 대학원 진학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출신 대학별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최상위 명문대의 대학원 진학률이 30.9%로 가장 높고, 지방 소재 사립대의 진학률이 10.4%로 가장 낮다. 차상위 명문대와 지방 소재 사립대의 대학원 진학률 격차는 6.4%포인트인데, 최상위 명문대와 차상위 명문대의 격차는 무려 14.0%포인트에 달한다. 대학원 진학률에서 최상위 명문대와 다른 대학들의 격차가 크다. 출신 고교의 유형별로는 과학고/자사고/특목고 출신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다. 이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출신 고교의 유형이 대학원 진학에 독립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다변량 분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교 소재지별로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률이 17.2%로 가장 높고, 호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이 13.3%로 가장 낮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원 진학률이 19.6%로 다른 서울 지역보다 높다.

[표 3-2] 교육 배경별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 진학률

	전체	남성	여성	격차 (여성 불이익)
전체 응답자	14.7%	15.8%	13.5%	-2.3%
대학 전공				
인문	15.2%	17.6%	13.9%	-3.7%
사회	7.0%	6.4%	7.6%	+1.2%
교육	9.8%	11.4%	9.0%	-2.4%
공학	18.3%	18.2%	18.5%	+0.3%
자연	28.6%	32.0%	25.7%	-6.3%
의약	9.8%	16.1%	7.2%	-8.9%
예체능	16.0%	15.3%	16.3%	+1.0%

	전체	남성	여성	격차 (여성 불이익)
출신 대학				
최상위 명문대	30.9%	32.5%	28.5%	-4.0%
차상위 명문대	16.9%	16.2%	17.5%	+0.7%
서울 소재 사립대	14.0%	15.3%	13.0%	-2.3%
지방 소재 국공립대	15.8%	17.2%	14.2%	-3.0%
지방 소재 사립대	10.4%	11.0%	9.9%	-1.1%
의대	10.0%	11.0%	9.1%	-1.9%
출신 고교				
일반 인문계	10.1%	10.0%	10.1%	+0.1%
일반 자연계	20.0%	20.6%	19.0%	-1.6%
과학고/자사고/특목고	28.7%	34.3%	24.4%	-9.9%
기타	12.3%	11.3%	13.2%	+1.9%
고교 소재지				
서울	17.2%	18.4%	15.9%	-2.5%
(서울 강남 3구)	(19.6%)	(20.7%)	(18.4%)	(-2.3%)
경기	14.4%	15.5%	13.3%	-2.2%
충청	15.3%	16.0%	14.5%	-1.5%
호남	13.3%	14.4%	12.2%	-2.2%
영남	13.8%	15.0%	12.4%	-2.6%
기타	16.3%	17.8%	14.7%	-3.1%

주: 표본가중치 적용.

자료: 2010-2018 GOMS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

교육 배경별 대학원 진학률의 성별 차이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다. 우선 전공별로 살펴볼 때, 대학원 진학률이 가장 높은 자연계에서 성별 격차가 의약계를 제외하고 가장 크다. 남성은 32.0%가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여성은 25.7%로 여성이 6.3%포인트 낮다. 그다음으로 성별 격차가 큰 전공은 인문계이다. 남성의 대학원 진학률은 17.6%, 여성은 13.9%로 여성이 3.7%포인트 낮다. 이에 반해 사회계와 공학계 졸업생은 여성의 대학원 진학률이 남성보다 각각 1.2%포인트, 0.3%포인트 높다. 사회계에 비해 인문계의 평균 소득이 낮고 공학계에 비해 자연계의 평균 소득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전공에서 전반적인 대학원 진학률이 높고, 성별 격차도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발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선택 전공의 소득이 낮을 때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더 축적하고 노동시장 소구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출신 대학의 명성별로는 차상위 명문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다. 성별 격차가 최상위 명문대에서 4.0%포인트로 가장 크고, 지방 소재 국공립대가 3.0%포인트로 그다음이다. 최상위 명문대에서 성별 격차가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남성의 비중이 높고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이들 두 학교를 제외하여도 최상위 명문대에서 대학원 진학의 성별 격차가 다른 유형의 대학보다 높다. 차상위 명문대에서 여성의 대학원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는 명문 여대가 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부터 명문 여대가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신 고교별로는 일반고는 성별 격차가 없거나 미미한데, 과학고/자사고/특목고 출신은 대학원 진학 확률에서 상당히 큰 성별 격차가 있다. 과학고/자사고/특목고 출신 대졸자 남성의 34.3%가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여성은 24.4%에 그친다. 격차가 9.9%포인트에 이른다. 출신 고교의 소재지별로는 성별 격차의 패턴을 찾기 어렵다. 영남 지역의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학원 진학 확률은 얼마나 달라질까? 앞서 논의하였듯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원에 따르면 일단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추가 학력 취득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 확률이 가족 배경과 무관하거나, 그 효과가 있더라도 미약해진다. 한국에서도 그러한지 우선 기술통계로 [표 3-3]에서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듯 보이고, 성별 격차도 드러난다.

[표 3-3] 가족 배경별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 진학률

	전체	남성	여성	격차 (여성 불이익)
전체 응답자	14.7%	15.8%	13.5%	-2.3%
부모 소득 수준 1				
상층	20.2%	20.9%	19.4%	-1.5%
중상층	16.0%	17.5%	14.7%	-2.8%
중하층	13.0%	14.3%	11.5%	-2.8%
하층	13.2%	14.0%	12.1%	-1.9%
부모 자산 수준 2				
상층	15.4%	16.4%	14.3%	-2.1%
중상층	14.4%	15.4%	13.5%	-1.9%
중하층	13.0%	14.4%	11.6%	-2.8%
하층	13.8%	15.7%	12.1%	-3.6%
부친 교육 수준				
대학원	25.8%	26.9%	24.7%	-2.2%
대졸	16.6%	18.5%	14.9%	-3.6%
초대졸 이하	11.9%	13.0%	10.7%	-2.3%
모친 교육 수준				
대학원	29.1%	29.1%	29.1%	+0.0%
대졸	19.7%	22.0%	17.8%	-4.2%
초대졸 이하	12.5%	13.7%	11.2%	-2.5%
부친 직업				
화이트칼라	17.0%	18.3%	15.7%	-2.6%
블루칼라/기타	13.4%	14.5%	12.2%	-2.3%
모친 직업				
화이트칼라	18.0%	19.9%	16.4%	-3.5%
블루칼라/기타	12.3%	13.4%	11.2%	-2.2%
전업주부	14.8%	15.9%	13.5%	-2.4%

주: 표본가중치 적용.

1. 부모 가구 소득은 조사 시점에서의 소득임. 연도별 표준화 점수(z-score)를 계산한 후 -1 이하는 하층으로, -1~0은 중하층으로, 0~1은 중상층으로, 1 이상은 상층으로 분류함.
2. 부모 재산 수준은 2015년 이후에 조사 시작. 연도별 표준화 점수(z-score)를 계산한 후 -1 이하는 하층으로, -1~0은 중하층으로, 0~1은 중상층으로, 1 이상은 상층으로 분류함.

자료: 2010-2018 GOMS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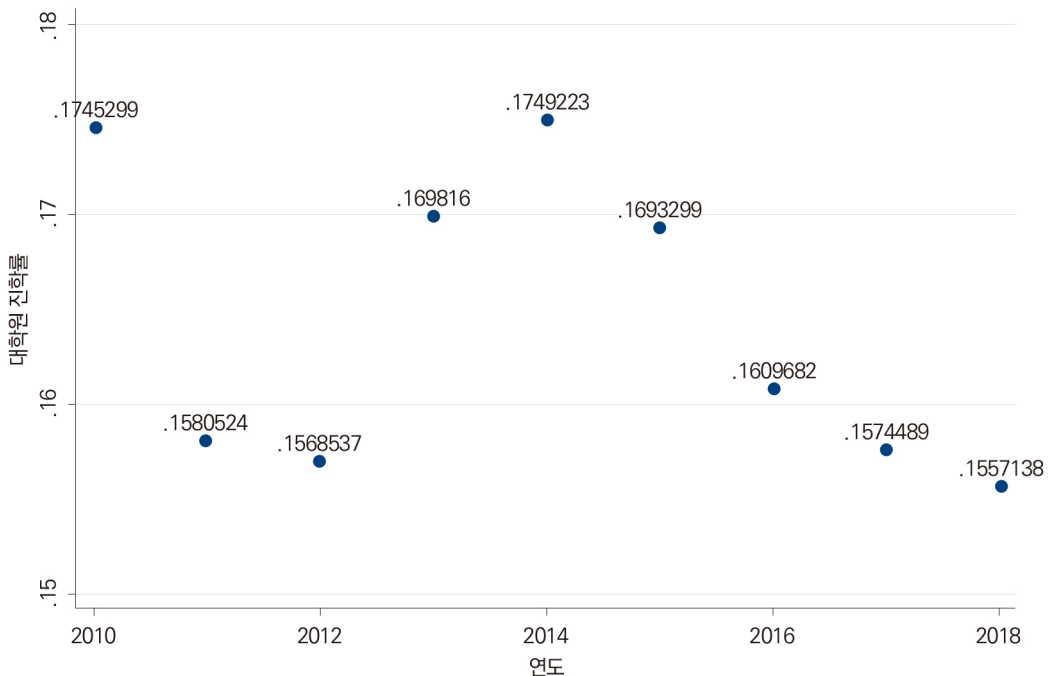
우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을 살펴보자. 부모의 소득 수준은 연도별 표준화 점수를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이상(상위 16%)은 상층, 0에서 1 표준편차 사이(차상위 34%)는 중상층, 0에서 -1 표준편차 사이(차하위 34%)는 중하층, -1 표준편차 이하(최하위 16%)는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소득이 상층일 때 대학원 진학 확률은 20.2%인데 중하층 이하는 13.0% 내외로 떨어진다. 같은 4년제 대학 졸업자라도 평균 소득 이하의 부모를 둔 경우와 상층 소득 수준의 부모를 둔 경우는 7%포인트 이상 대학원 진학 격차가 벌어진다.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률이 14.7%인 점을 고려할 때, 7%포인트는 매우 큰 실제적 격차이다. 부모 소득 상층과 중하층은 상당한 대학원 진학 확률 격차가 있지만, 부모 소득 중하층과 하층은 차이가 없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소득 수준은 선형적 효과가 아니라 비선형적 효과를 가진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 가족 배경이 2년제 대학 졸업자나 대학 미진학자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표 3-3]의 결과는 대학원 진학에서 부모 소득의 효과를 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부모 소득 상층과 소득 하층의 대학원 진학 확률 격차가 더 클 수 있다.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에 비해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다. 재산 상층의 진학 비율이 15.4%, 하층은 13.8%로 1.6%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자산이 소득보다 계층 격차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 부모 자산 측정의 정확도가 소득보다 낮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 모두 독립적으로 대학원 진학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소득과 자산의 공선성(collinearity)이 커서 두 변수가 동일한 가족 배경 효과를 측정하는지도 다변량 분석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문화자본이 교육 성취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 연구의 예상대로 부모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실제로 유의하게 영향을 끼친다. 특히 부친의 학력보다 모친의 학력이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컸다. 부친이 대학원을 나왔을 때는 25.8%가, 모친이 대학원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29.1%가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부모 학력 효과에서 부모 학력이 대학원일 때와 대졸일 때의 격차가 대졸과 초대졸 이하의 격차보다 더 큰 것도 인상적이다. 부모가 초대졸 이하일 때와 비교해서 부모가 대학원을 나왔을 때 그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은 2배 이상 높아진다.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 격차는 성별로도 다르다. 거의 모든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남성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여성보다 높다. 단 하나의 예외가 모친이 대학원을 나왔을 때다. 이 경우 성별 격차는 없어진다. 모친이 대학만 나왔을 때 아들은 22%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딸은 17.8%가 진학해 4.2%포인트의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소득과 자산의 상층·중상층 간 성별 격차가 중하층이나 하층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 확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3-1]에서 보이듯이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해는 17.5%, 낮은 해는 15.3% 정도다. 최근 몇 년간 대학원 진학률이 낮아졌지만, 연도를 유일한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했을 때 연도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2010년 이후 대학원 진학 비율은 2%포인트 범위 내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원 진학 비율의 통시적 변화에 특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학 졸업 연도와 시간은 통제변수로만 사용하고,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참조 : 선형확률모형을 측정하면 $y = .1691 - .0012 \text{ year} + e$ 지만, 시간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그림 3-1] 연도별 대학원 진학률

이상의 기술통계 분석은 대학원 진학 확률이 졸업 대학과 고등학교의 특성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고, 성별로도 실제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발견된 사항들이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의 순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별 효과가 사라지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2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3-4]는 로지스틱 회귀 기법으로 대학원 진학 확률의 상대적 격차를 추정한 것이다. ‘모형 1’은 성별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만을 통제한 것이고, ‘모형 2’는 대학, 고등학교 교육 변수 및 기타 인구학적 변수를 모두 통제한 것이다. 모형1에서 여성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같은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대학원 진학의 오즈(즉, 대학원 진학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P/(1-P)$)가 22%($=[\exp(-.2442)-1]*100$) 낮다. 하지만 이 격차의 절반 이상이 교육 관련 변수와 인구학적 변수로 설명된다. 모형 2에서 여성의 계수값은 모형 1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여성의 남성 대비 낮은 대학원 진학 오즈가 출신 대학의 전공과 명성에 의해 상당히 설명되지만, 여성의 계수값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99.9%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오즈비도 .889로 실제적으로도 작지 않다. 즉, 가족 배경과 교육 배경이 모두 같을 경우에도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은 남성보다 낮다.

[표 3-4] 4년제 대졸자 대학원 진학 확률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모형 1 2010~2018		모형 2 2010~2018		모형 3 2015~2018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여성(ref=남성)	-.2442	***	-.1181	***	-.1059	***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 부모 소득 Z-score	.0919	***	.0760	***	.0947	***
* 부모 자산 Z-score					-.0584	***
* 부모 직업(ref=기타 직업)						
부친 - 관리·전문직	-.0421	*	-.0382		-.0286	

	모형 1 2010~2018		모형 2 2010~2018		모형 3 2015~2018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모친 - 관리·전문직	.1204	***	.1189	***	.1142	**
- 가정주부	.0758	**	.0461	*	.0791	*
* 부모 교육(ref=초대졸 이하)						
부친 - 대졸	.2040	***	.1224	***	.0821	*
- 대학원	.5980	***	.5237	***	.5517	***
모친 - 대졸	.3223	***	.2335	***	.2161	***
- 대학원	.6714	***	.5786	***	.5554	***
대학 전공(ref=사회계)						
- 인문계			.8934	***	.8875	***
- 교육계			.0094		.0177	
- 공학계			.7412	***	.7288	***
- 자연계			1.3316	***	1.3831	***
- 의약계			.0615		-.0342	
- 예체능계			.8856	***	.8989	***
대학 명성(ref=최상위 명문대)						
- 차상위 명문대			-.5489	***	-.6345	***
- 서울 소재 사립대			-.7459	***	-.7552	***
- 지방 소재 국공립대			-.8268	***	-.8872	***
- 지방 소재 사립대			-1.1219	***	-1.1543	***
- 의대			-1.0802	***	-.9461	***
고등학교 (ref=인문계)						
일반 자연계			.4504	***	.4365	***
과학고/자사고/특목고			.5891	***	.6919	***
기타			.1211	**	.2024	**
고등학교 지역 (ref=서울)						
강남 소재			.0944		.1868	*
기타 지역 통제			○		○	

	모형 1 2010~2018		모형 2 2010~2018		모형 3 2015~2018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연령			-.3247	***	-.3395	***
연령 * 여성			.1086	***	.0641	**
연령자승			.0270	***	.0301	***
학점			.8216	***	.7613	***
학점 missing			2.8410	***	2.8485	***
해외 어학연수			-.1407	***	-.1314	**
출생 지역 통제	×		○		○	
불학기 졸업 통제	○		○		○	
조사 연도 통제	○		○		○	
상수항	-1.7473	***	-4.9611	***	-4.5353	***
Log pseudolikelihood	-1,085,736		-972,081		-441,242	
표본 수	111,560		111,560		52,102	

주: 부모의 자산 수준은 2015 GOMS부터 조사되었음. 표본가중치 적용.

* < p = .05; ** < p = .01; *** < p = .001 (양방향 검증)

자료: 2010-2018 GOMS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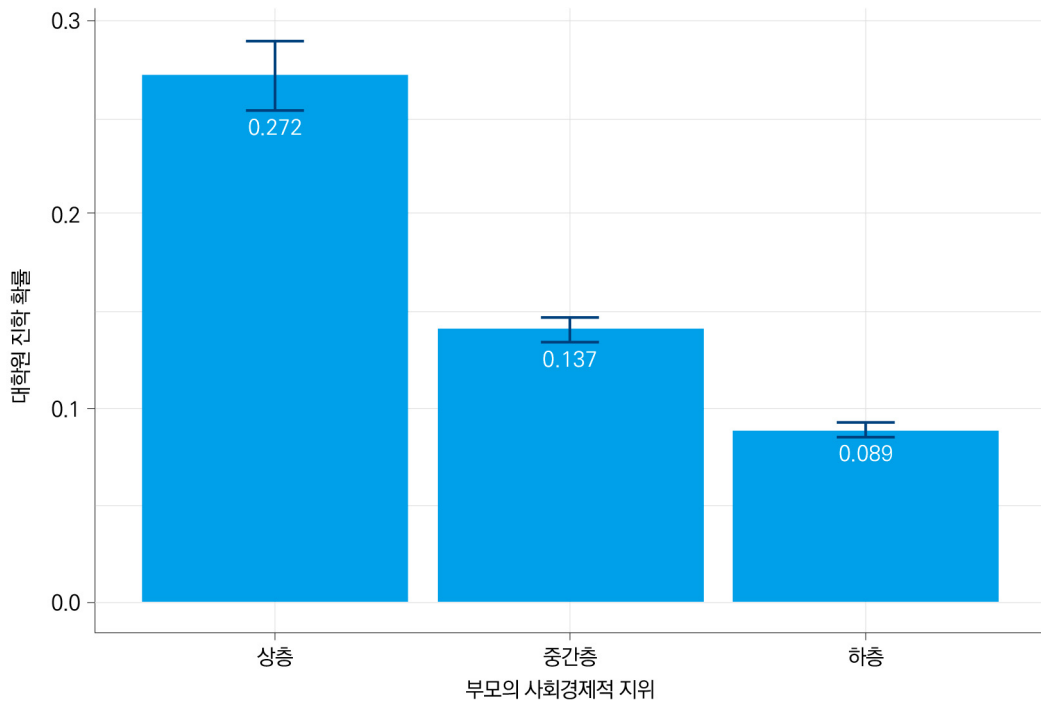
대학원 진학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부모의 소득, 직업, 교육 모두 유의하다. 세 변수를 동시에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독립적으로 대학원 진학 확률과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모형 2에서 출신 고교와 대학 관련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영향력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여기서는 모형 2를 중심으로 논의하자. 같은 학교에 전공이 동일하고,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이 같더라도 부모 소득이 상위 16% 분위에 해당(즉, 소득 표준 편차 +1 지점)하는 자녀의 대학원 진학의 오즈는 부모 소득 하위 16% 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에 비해 1.16배 높다. 부모의 직업 중 부친의 직업은 대학원 진학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 반해 모친이 관리/전문직이면 대학원 진학 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모친이 가정주부인 경우가 모친이 비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과 긍정적 상관을 가진다.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다. 부친이 대학원 졸업자이면 자녀의 대학원 진학 오즈가 부친이 2년제 대학 이하인 경우보다 1.68배 높다. 모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과 긍정적 상관을 가진다. 2년제 대학 이하 대비 대학원 학력 모친의 자녀 대학원 진학 확률 오즈비는 1.78이다. 부모가 모두 고학력이면 부모 각각이 고학력일 때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 학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으나¹²⁾ 부친과 모친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각각 독립적인 효과를 가진다. 가족 배경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효과를 종합하여 가설적으로 세 가지 계층을 만들어 대학원 진학 확률을 비교해 보자. (가) 상층: 부모 소득이 84% 분위값으로 상위 16%에 해당하고 양친이 관리·전문직이며 부모 모두 대학원 학력을 가진 경우, (나) 중간층: 부모 소득이 대졸자 평균값이고 부친은 관리·전문직이 아니고 모친은 가정주부이며 부모 모두 대졸 학력인 경우, (다) 하층: 부모 소득이 하위 16% 분위이고 부모 모두 관리·전문직이 아니며 부모 모두 2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인 경우를 가정하자. 모형 2에 근거해 여기서 제시한 가상적 상층하 계층의 대학원 기대 확률을 계산한 것이 [그림 3-2]이다. 이 중 상층의 대학원 진학 오즈가 하층의 대학원 진학의 오즈보다 3.95배 높다. 졸업 대학, 전공, 학점, 출신 고교, 인구학적 변수 등 다른 모든 조건이 같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만 다를 경우, (가)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27.2%이고, (나)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13.7%, (다)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8.9%에 불과하다.¹³⁾ 각 계층 간 기대 확률의 격차는 99.9% 유의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원과 달리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 확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상층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중간층이나 하층에 비해 크게 높다. 대학 진학 이후 출신 계층이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 끼치는 영향이 급감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은 대학 졸업 이후에도 대학원 진학이라는 측면에서 출신 계층의 영향이 지속된다.

12) 이 보고서에 결과표를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필진에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13) Stata의 margins 옵션으로 계산하였다. 부모 사회경제적 배경 외의 모든 변수는 평균값으로(즉, atmean option) 균일화하였다.



참조 : 기대확률은 [표3-4] <모형 2>의 분석에 기반하여 추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은 소득 84%분위, 부모 모두 전문직, 부모 모두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중층은 소득 중위값, 부친은 비전문직, 모친은 가정주부, 부모 모두 대학 교육을 받은 경우; 하층은 소득 16%분위, 부모 모두 비전문직, 부모 모두 2년제 이하 교육을 받은 경우. 바 그래프의 실선은 대학원 진학 확률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그림 3-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

모형 2의 분석에 부모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GOMS 표본을 2015년 이후로 제한하고 모형 2와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한 다음, 부모의 자산 표준화 값을 추가하여 모형 3을 측정하였다. 그랬더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모의 자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였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대학원 기대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어긋나고, 앞서 기술통계에서 보여 줬던 결과와도 다르다. 자산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 확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하였다(구체적인 분석은 여기에 제시하지 않음). 그 결과, 다른 조건이 같으면서 자산이 많은 가족의 자녀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취득하는 확률이 자산이 적은 가족의 자녀보다 높았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자산은 대학원 진학보다는 괜찮은 일자리 취득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은 동일하지만 자산이 더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대학원 진학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금융자본 축적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선택편향을 보인다.

성별과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 외에도 [표 3-4]의 분석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대학 전공과 명성에 따라 대학원 진학 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사회계 전공자의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 진학 확률이 가장 낮고, 자연계 전공자의 확률이 가장 높다. 사회계에 비해 오즈가 무려 3.79배 높다. 그다음으로 대학원 진학 확률이 높은 전공은 인문계다. 사회계의 오즈보다 2.44배 높다. 승산비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 같을 때의 진학 확률의 격차, 즉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로 따지면 자연계는 사회계 대비 15.5%포인트, 인문계는 9.0%포인트, 공학계는 7.1%포인트 대학원 진학 확률이 높다. 출신 대학의 명성별로는 최상위 명문대의 진학률이 가장 높다. 진학 확률의 한계효과로 볼 때, 차상위 명문대는 최상위 명문대보다 8.2%포인트 낮고, 서울소재 사립대는 10.6%포인트, 지방 소재 국공립대는 11.6%포인트, 지방 소재 사립대는 14.6%포인트 낮다.¹⁴⁾

쉽게 예상할 수 있듯 대학 학점은 대학원 진학 확률과 정의 상관을 가진다. 재학 중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학원 진학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다.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연구에서는 밝히기 어려웠다. 다른 연구를 통해 해외 어학연수의 효과와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 졸업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정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컸다. 이는 남성은 연령이 높아지면 독립적 경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은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에 선택편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의 결과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대학의 명성과 전공,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출신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대학원 진학 확률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일반고 인문계에 비해 일반고 자연계나 과학고/자사고/특목고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한계효과 면에서 각각 5.0%포인트, 6.8%포인트 높다. 일반고 자

14) 한계효과는 기대 확률과 마찬가지로 Stata의 margins 옵션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로짓분석의 한계효과는 선형확률 모형의 계수 추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연계와 과학고/자사고/특목고 사이에도 격차가 있어서 분석 대상을 대학에서 자연계나 공학계를 전공한 사람으로 한정했을 때 과학고/자사고/특목고의 대학원 진출 오즈가 일반고 자연계 출신자보다 1.95배 높았다(구체적인 대학과 상세 전공을 모두 통제한 결과로, 분석 결과표는 따로 제시하지 않음). 분석 대상을 대학에서 인문계나 사회계를 전공한 사람으로 한정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과학고/자사고/특목고의 대학원 진출 오즈가 일반고보다 높다. 일반고 자연계 출신으로 대학에서 인문계나 사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일반고 인문계 출신으로 대학에서 인문계나 사회계를 전공한 사람보다 대학원 진학 오즈가 높았다. 과학고/자사고/특목고 출신은 이공계로 대학 전공을 정하든 인문사회계로 정하든, 동일 학교 동일 과를 나오더라도 일반고 출신보다 더 높은 대학원 진학 확률을 보인다. 과학고/자사고/특목고가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출신 고교의 소재는 대학원 진학 확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모형 2에서 기타 서울 지역 대비 강남 3구 소재 고교 출신자의 대학원 진학 로짓 계수치가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한계효과 계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았다.

3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

앞의 분석에서 출신 대학과 전공,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남성보다 낮았다. 추가적 질문은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가 성별로 달라지는가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도 검토하였듯, 한국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아직도 계속된다면 자녀에게 투자할 자원이 부족한 하위 계층에서 성별 교육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 격차가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의 성별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3-5]의 분석에서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과 여성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¹⁵⁾

15) 2015년 이후 GOMS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산은 성별 효과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을 포함하는 분석은 [표 3-5]에서 제외하였다.

[표 3-5] 4년제 대졸자 대학원 진학 확률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여성과 가족 배경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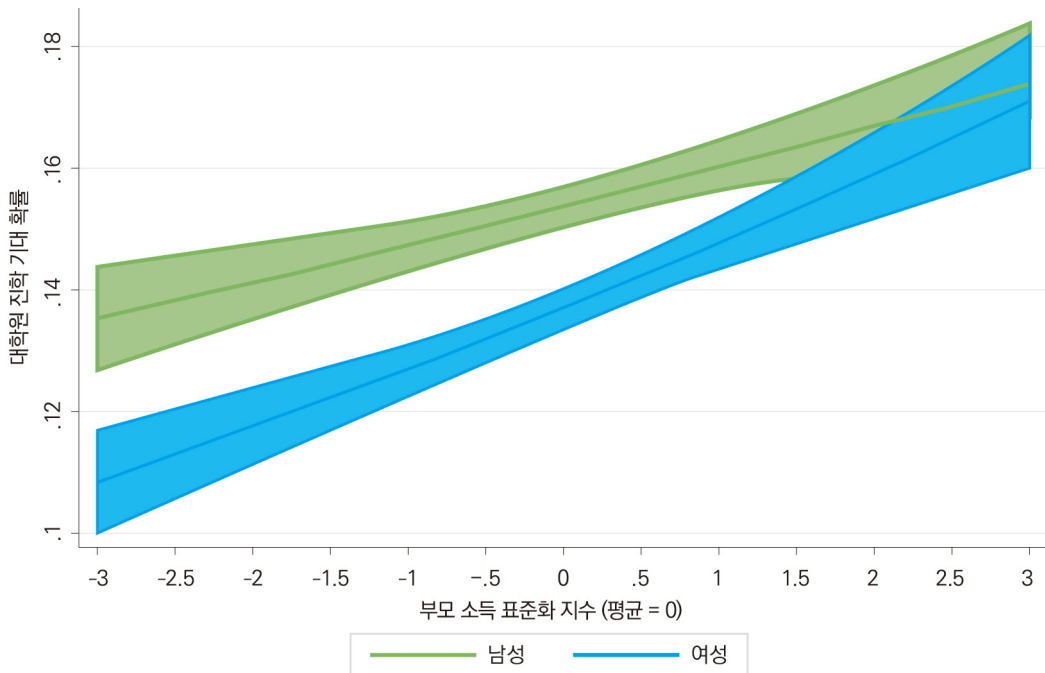
	모형 1 2010~2018		모형 2 2010~2018	
	계수값	Sig.	계수값	Sig.
여성 (ref=남성)	-.2294	***	-.1169	**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 부모 소득 Z-score	.0729	***	.0568	***
* 부모 직업(ref=기타 직업)				
부친 - 관리·전문직	-.0453		-.0352	
모친 - 관리·전문직	.1485	***	.1289	**
- 가정주부	.0728	*	.0486	
* 부모 교육(ref=초대졸 이하)				
부친 - 대졸	.2396	***	.1420	***
- 대학원	.5907	***	.5405	***
모친 - 대졸	.3255	***	.2190	***
- 대학원	.5324	***	.4372	***
가족 배경 변수 × 여성				
* 부모 소득 Z-score × 여성	.0422	*	.0418	*
* 부모 직업				
부친 - 관리·전문직 × 여성	.0071		-.0055	
모친 - 관리·전문직 × 여성	-.0547		-.0196	
- 가정주부 × 여성	.0050		-.0073	
* 부모 교육				
부친 - 대졸 × 여성	-.0764		-.0404	
- 대학원 × 여성	.0109		-.0353	
모친 - 대졸 × 여성	-.0061		.0298	
- 대학원 × 여성	.2601	**	.2578	**
대학 전공, 명성, 학점	×		○	
고등학교 종류, 지역	×		○	
인구학적 변수	×		○	
기술적 변수	○		○	
Log pseudolikelihood	-1,085,421		-971,885	
표본 수	111,560		111,560	

주: 부모의 자산 수준은 2015 GOMS부터 조사되었음. 표본가중치 적용. 모든 통제변수는 [표 3-4]의 종류와 동일.

* < p = .05; ** < p = .01; *** < p = .001 (양방향 검증)

자료: 2010-2018 GOMS 원자료.

그 결과 두 가지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성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부모의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모친의 대학원 학력이다. [표 3-5]의 모형 1에서 부모 소득의 주 효과는 0.0729인데, 부모 소득과 여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0.0422로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부모 소득의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 남성은 부모 소득이 1 표준 오차 증가할 때 대학원 진학 오즈비가 1.07배 증가하는데, 여성은 1.12배씩 증가한다. 모형 1에 대학과 고등학교 교육 관련 변수를 통제하여 모형 2를 측정하여도 계수 추정치는 줄어들지만, 성별에 따라 부모 소득이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오즈비로 표현해서는 부모 소득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관적 해석이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부모의 소득만 달라질 때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계산하였다. [그림 3-3]이 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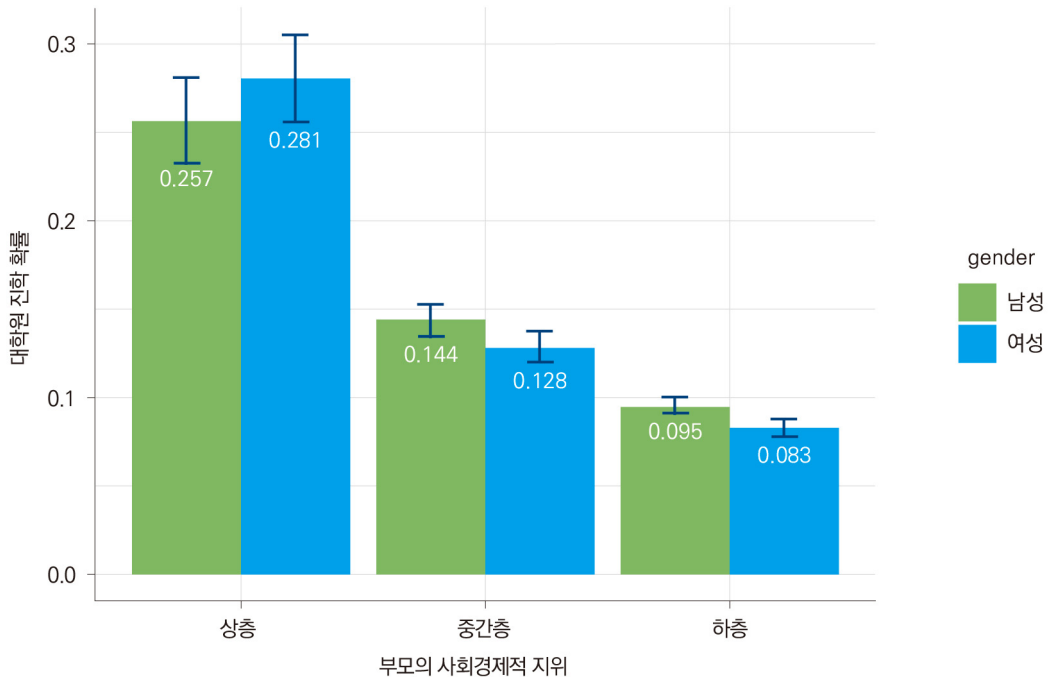


참조 : 기대확률은 [표 3-5] (모형 2)의 분석에 기반하여 추정. 부모 소득 표준화 지수와 성별 외의 다른 통제변수는 평균값으로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

[그림 3-3] 부모 소득 수준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 남성과 여성

[그림 3-3]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사실은 소득 전 분위에 걸쳐 여성보다 남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소득 상위보다 하위 분위에서 더 크다. 하위 7% 분위(즉, 소득 표준화 지수 -1.5)에서 남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은 14.4%고 여성은 12.2%로 격차가 2.2%포인트인데, 평균 소득에서는 남녀 각각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15.4%, 13.7%로 격차가 1.7%포인트로 줄어들고, 소득이 상위 7%(즉, 소득 표준화 지수 +1.5)에 이르면 남녀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각각 16.4%, 15.3%로 격차가 1.1%포인트로 줄어든다. 이 지점에서부터 남녀의 기대 확률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소득 표준화 지수 -1.5에서의 2.2%포인트 격차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남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을 1로 했을 때 여성은 .847밖에 되지 않는다. 설사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하층 출신 여학생의 추가적 교육 기회가 같은 소득 하층 출신 남학생의 추가적 교육 기회보다 낮다. 소득 하층과 달리 소득 상층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대학원 교육 기회의 유의미한 격차가 관찰되지 않는다.

부모의 계층 지위에 따른 성별 대학원 진학 기회의 이질성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3-5]에서 부친의 교육 수준은 대학원 진학 확률과 정의 상관을 가지지만, 딸과 아들 사이에 격차가 있지는 않다. 이와 달리 모친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보다 딸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모친이 대학원 학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들의 대학원 진학 오즈는 모친이 대학 학력인 경우에 비해 1.23배(=exp(.5324-.3255)) 높다. 같은 비교에서 딸의 대학원 진학 확률 오즈비는 1.60배(=exp(.5324-.3255+.2061+.0061))에 달한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이 아들과 딸이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그림 3-4]는 앞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세 가지로 가설적으로 나눈 것에 따라 성별로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세 가지 가설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상층은 부모 소득이 84% 분위값으로 상위 16%에 해당하고 양친이 관리·전문직이며 부모 모두 대학원 학력인 경우, 중간층은 부모 소득이 대졸자 평균값이고 부친은 관리·전문직이 아니고 모친은 가정주부이며 부모 모두 대졸 학력인 경우, 마지막으로 하층은 부모 소득이 하위 16% 분위이고 부모 모두 관리·전문직이 아니며 부모 모두 2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인 경우이다.



참조 : 기대확률은 [표 3-5] <모형 2>의 분석에 기반하여 추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은 소득 84%분위, 부모 모두 전문직, 부모 모두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중층은 소득 중위값, 부친은 비전문직, 모친은 가정주부, 부모 모두 대학 교육을 받은 경우; 하층은 소득 16%분위, 부모 모두 비전문직, 부모 모두 2년제 이하 교육을 받은 경우. 바 그래프의 실선은 대학원 진학 확률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그림 3-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성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

[그림 3-4]에서 나타나는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부모의 소득, 교육 수준, 직업을 모두 고려했을 때, 상위 계층에서는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남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상층에서 남성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25.7%인데, 여성은 28.1%이다. 특히 모친의 대학원 교육 여부가 딸의 대학원 교육 확률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림 3-4]의 가상적 상위 계층에서 모친의 교육 수준만 대학원에서 대학으로 바꾸고 다른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고정하면, 아들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21.8%, 딸은 20.1%로 아들의 기대 확률이(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더 높다. 가족 계층 지위 하층에서는 남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여성보다 높고 계층 지위 최상층에서는 여성이 더 높아서 남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의 계층 지위 상하층 격차는 16.2%포인트(=0.257-0.095)인데, 여성은 19.8%포인트(=0.281-0.083)로 여성이 더 크다. 남녀 모두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원 진학 확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만,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은 남성보다 가족 배경의 계층 격차에 더 민감하다.

4 대학의 수평적 계층화와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

마지막으로, 출신 대학의 명성과 전공에 따라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도록 하자. 앞서 기술통계에서 대학원 진학의 성별 격차는 대학의 명성과 전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격차가 성별에 따른 대학 유형과 전공의 선택 차이에서 발생하는, 대학 입학 이전의 개인적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대학 졸업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차이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공과 대학 유형의 효과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이번 분석에서는 각각의 대학 유형 내에서 구체적인 대학명과 세부 전공을 통제하였다. 대학 유형에 따른 결과가 [표 3-6]이고¹⁶⁾ 전공별 격차가 [표 3-7]이다. 이 분석에서 통제변수는 앞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고등학교 관련 변수, 인구학적·기술적 변수를 모두 포함한다. 지면의 제약상 그리고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표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계수만 보고하였다.

16) 의과 대학의 대학원 진학은 다른 전공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6] 대학 유형별 대학원 진학 확률에 미치는 성별 효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최상위 명문대		차상위 명문대		서울 소재 사립대 (세칭 명문대 제외)		지방 소재 국공립대 (세칭 명문대 제외)		지방 소재 사립대 (세칭 명문대 제외)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여성(ref=남성)	.1539	*	.1344	*	-.2701	***	-.0830		-.0861	*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		○		○		○		○	
출신 대학, 전공, 학점, 어학연수	○		○		○		○		○	
출신 고교 유형, 지역	○		○		○		○		○	
인구학적, 기술적 변수	○		○		○		○		○	
Log pseudolikelihood	-114,602		-132,642		-81,854		-228,301		-347,487	
표본 수	10,945		14,760		10,087		28,982		45,918	

주: 부모의 자산 수준은 2015 GOMS부터 조사되었음. 표본가중치 적용. 출신 대학과 전공을 제외한 통제변수의 종류는 [표 3-4]의 종류와 동일함. 출신 대학과 전공은 구체적 대학명과 세부 전공을 통제함.

* < p = .05; ** < p = .01; *** < p = .001 (양방향 검증)

자료: 2010-2018 GOMS 원자료.

대학 유형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차이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앞서의 분석에서 여성은 모든 변수를 통제된 후에도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남성보다 낮았는데, 대학 유형을 구분해서 봤을 때, 최상위 명문대와 차상위 명문대에서는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남성보다 높다.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확실히 낮은 대학은 서울 소재 사립대다. 지방 소재 국공립대와 사립대도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낮지만 계수값의 크기가 작고, 지방 소재 국공립대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다. 서울 소재 사립대가 [표 3-6]에서 사용된 5개 대학 분류 중 대학원 진학률이 중간에 속한다. 출신 대학의 명성이 명문대에 속하지도 지방대에 속하지도 않는 중간 위치의 대학 출신일 때, 남성은 여성보다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추가로 축적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낮은 것은, 계수의 성별 격차 차원에서 서울 소재 사립대와 지방 소재 대학에서 여성의 진학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성별 대학 분포의 차이에서 전체 4년제 대학에서 차지하는 중하위권 학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 두 효과의 복합적 결과로 인해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남성보다 낮다.

전공별로도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가 다르다. 인문, 교육, 자연계는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가 유의하지만, 사회계, 공학계, 예체능계는 성별 격차가 없다. 사회계는 남녀 모두 대학원 진학 확률이 낮다. 전체 졸업자 중 7.0%만이 대학원에 진학한다. 자연계와 공학계는 대학원 진학 확률이 가장 높은 두 계열(각각 28.6%와 18.3%)인데, 전자는 유의한 격차가 있는 반면 후자는 격차가 없다. 명문대 인문계나 자연계의 성별 격차는 다른 대학과 다른지, 대학 유형과 전공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여 보았으나 유의미한 발견이 없었다.

[표 3-7] 대학 전공별 대학원 진학 확률에 끼치는 성별 효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예체능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계수값	Sig.
여성(ref=남성)	-.1670	**	.0138		-.2539	**	-.0350		-.1089	*	-.0766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		○		○		○		○		○	
출신 대학, 전공, 학점, 어학연수	○		○		○		○		○		○	
출신 고교 유형, 지역	○		○		○		○		○		○	
인구학적, 기술적 변수	○		○		○		○		○		○	
Log pseudolikelihood	-114,602		-132,642		-81,854		-228,301		-347,487		-347,487	
표본 수	10,945		14,760		10,087		28,982		45,918		45,918	

주: 부모의 자산 수준은 2015 GOMS부터 조사되었음. 표본가중치 적용. 출신 대학과 전공을 제외한 통제변수의 종류는 [표 3-4]의 종류와 동일함. 출신 대학과 전공은 구체적 대학명과 세부 전공을 통제함.

* < p = .05; ** < p = .01; *** < p = .001 (양방향 검증)

자료: 2010-2018 GOMS 원자료.

전공계열에 따라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효과의 성별 격차도 달랐다. 부모 소득에 따른 대학원 진학의 성별 격차는 자연계, 교육계, 자연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분명히 나타났지만, 사회계와 공학계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부모 소득 효과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계와 공학계 졸업자는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도 없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성별 격차도 없었다. 다만, 모친이 대학원 졸업자이면 딸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아들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현상은 모든 전공 계열에서 나타났다.

제5절 결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지금까지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4년제 대졸자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대학원 진학 확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발견이 있다.

첫째,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 확률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친이 관리·전문직에 있을수록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일반적 기대와 달리 부모의 자산은 대학원 진학 확률을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 수준이 동일할 때 부모의 자산이 높은 자녀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대학원 진학의 기대 확률은 최상위 명문대(평균 대학원 진학 확률 23.0%)에서 다른 대학군에 비해 확실히 높았다. 차상위 명문대와 서울 소재 사립대의 격차(14.7% 대 12.4%)보다 최상위 명문대와 차상위 명문대의 격차(23.0% 대 14.7%)가 컸다. 전공별로는 자연계의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 진학 확률이 가장 높았고, 사회계가 가장 낮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연계(21.9%)의 진학 확률이 사회계(평균 6.9%)보다 3.2배 높았다.

셋째, 여성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남성보다 낮았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남성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12.0%인데 여성은 10.8%였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의 격차가 컸다. 부모의 소득이 낮을 때 여성의 대학원 진학 확률은 동일한 부모 소득 수준의 남성보다 컸다. 이에 반해 부모의 소득이 높을 때는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친의 고학력은 남녀 모두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딸의 대학원 진학 확률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

넷째, 성별 대학원 진학 확률의 격차는 대학의 명성과 전공 계열에 따라 다르다. 최상위 명문대나 차상위 명문대 출신자 중에서는 대학원 진학에 성별 격차가 없었다. 성별 격차

가 가장 크게 나타난 대학군은 최상위/차상위 명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사립대였다. 지방 소재 사립대에서도 대학원 진학의 성별 격차가 나타났지만, 서울 소재 사립대에 비해 크기는 작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와 자연계에서는 성별 격차가 나타났고 사회계, 공학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문계와 자연계 졸업자의 소득이 사회계나 공학계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추가적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한 노동시장 기대 확대를 더 원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출신의 대학원 진학 확률이 일반고 인문계 출신보다 높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 출신 고교의 지역은 대학원 진학 확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원의 기대와 달리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성별 격차도 유의하다. 특히 하위 계층에서 성별 격차가 분명하다. 한국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대학 졸업 후에도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생애사적 관점에서 한국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서구 국가들보다 늦다. 비록 최근 들어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입학이 가족으로부터 1차 독립하는 시기로 간주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은 혼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20대 후반까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둘째로,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의 경로로 학력 취득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능력주의가 학력 취득의 단계 그리고 학력 취득 후 노동시장 이행의 단계마다 영속 경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서구와 달리, 한국의 능력주의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학력 취득 단계의 경쟁이 강조된다. 자녀 교육이 부모의 책임 중 하나로 여겨지는 문화와 결합하여 대학원 진학에서도 가족 배경 효과가 여전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원은 한국 사회에서 수정을 요한다. 상대적으로 대졸 이후의 가족 배경 영향력이 그 전에 비해 줄어들 수 있어, 대학이 여전히 평등의 촉진자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위대한' 촉진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의 팽창으로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가 다른 사회보다 어렵다는 의미이다.

대학 졸업 이후 대학원 진학에서 지속되는 성별 격차와 그 격차가 하위 계층에서 더 큰 것은 명문대 졸업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층 노동시장과 명문 대학원에서의 적

극적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로 성별 격차를 줄이는 기획의 한계를 노정한다. 여성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상층보다는 하층이다. 최상위나 차상위 명문대보다는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여성의 대학원 진학률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현상은 추가 학력 취득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논리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출신 계층과 여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여성의 불이익이 성별 변수 하나에 의해 측정되지 않고 계급과 교차성을 띠는 것을 나타낸다(Choo and Ferree, 2010). 이러한 성별 차이는 남녀의 성향 차이에 따른 개인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고, 대학원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에 따른 구조적 제약의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둘 중 어느 효과가 더 큰지는 알 수 없다.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달리 구체적인 대학과 세부 전공을 통제하였고,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도 소득, 자산, 직업, 교육 등 다차원으로 분석한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GOMS 자료의 한계로 인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의 대학원 진학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대학 졸업 후 1년이 지난 다음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나, 직장을 그만둔 후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를 본 연구는 측정하지 못한다. 대학원의 유형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영민·임정연(2011)이 지적하듯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그 성격이 다르다. 남성의 대학원 진학 우위가 대학원의 종류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원이 석사와 박사 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본 연구는 대학원 과정에서 석·박사 과정을 나누어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유학을 선택한 경우가 생략된 것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가족 배경이 상위인 명문대 출신이 유학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가족 배경 효과는 과소 추정일 가능성도 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변수가 엄밀하게 측정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대학원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서 성별 격차가 있는지도 추후 연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 팽창 후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대학원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하위 계층 출신 남성들의 낮아지는 대학 진학률

제2절 1990년대 대학 교육 확대 정책이 기회 불평등(사회이동성)에 가져온 결과 평가

제3절 엘리트 대학 중심 이공계 지원 정책과 젠더 및 계층 불평등

제4절 대학원 이상 교육의 출신 계층 및 젠더 효과 감소 필요성

제5절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다음의 순서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2장과 3장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된 연구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하위 계층 출신 남성들의 낮아지는 대학 진학률, 둘째, 1990년대 이후 있었던 급격한 대학 교육 확대 정책의 결과에 대한 기회 불평등 관점에서의 평가, 셋째, 이공계 지원 정책이 젠더 격차를 심화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넷째,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평가를 통한 부실 대학 정리 정책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대학 정리가 장기적으로 교육 불평등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계층화 및 불평등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기계적인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더 주목할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 1 절

하위 계층 출신 남성들의 낮아지는 대학 진학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장의 분석 결과 확인된 1980년대 출생자들 이후 점차 강화되는 하위 계층 남성들의 대학 미진학 증가 양상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것이 회피인지, 실패인지, 포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도로 드러난 출생아 성비의 불균형이다. 이 시기에 태어난 남성들의 수가 여성들 수보다 많고, 따라서 남성들이 더 큰 경쟁 압력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남성의 대학 진학에서의 상대적 하락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

다른 요인은 대학 진학률이 더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정점을 찍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고졸자 전성시대’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마이스터고교와 같이 명문 직업계열 고

등학교를 세우고 지원했고 유능하지만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이 주로 이에 반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4-1]에서 보듯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절대적으로 남성에게 해당되는 정책이었다.

[표 4-1] 성별에 따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 및 학생 수

연도	학교 수			학생 수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남	여			
2011	6	1	14	11326	1560	4737	380	7769
2012	9	1	17	11338	1852	4928	346	7916
2013	12	1	21	13461	2267	6461	352	8915
2014	11	1	24	13418	2296	5783	356	9575
2015	10	1	29	15103	2399	5516	352	11634
2016	11	1	30	15153	2465	5798	346	11474
2017	10	1	34	15584	2908	5453	354	12685
2018	11	1	34	15346	2759	5680	349	12076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끝으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구조적 요인이다. 남성 대학 진학률의 하락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문화가 청년들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데(Lukianoff and Haidt, 2019; Twenge, 2017), 그런 변화가 드러나는 방식, 전유되는 방식이 남성 청년들과 여성 청년들 사이 그리고 계층 집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차이가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된 인식과 문화, 선택에 차별적인 영향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 역시 기저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 세 가지 요인들로 하위 계층 남성들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점점 더 많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향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들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각 요인들은 각각 다른 사회적,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코호트 내 남녀 성비 불균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출생 성비가

급격히 정상화되었다. 따라서 이 요인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 하위 계층 남성 중심의 대학 진학을 하락은 곧 반등할 것이라 조심스레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구조적 요인 역시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문화가 청년들의 정신건강 및 인적자본 축적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사회적,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대응 체계를 세심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구조적 요인은 우리 교육정책의 한계 혹은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나라의 관련 연구와 대응 사례들을 모니터하면서 인프라를 공고하게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고교 직업교육 확대 및 강화 정책의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의 노력과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후 의도했던 바대로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전문화 교육이 건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직업계 고교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제대로 공급해 줄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직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갖추는 숙련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영위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노동시장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의 영역이다. 2010년대 이후 한국 노동시장이 이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표 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0년대 기간 동안 직업계 고교의 수와 학생 수 모두 증가했지만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 또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¹⁷⁾

소수 상위권 엘리트 대학 진학을 둘러싼 공정성 담론에 매진해 있는 중산층 중심 담론의 편향된 시각과 달리 대다수의 청년들은 전문대와 지방 소재 4년제 사립대학에 진학하거나 아예 진학 대신 취업을 한다. 특히 하위 계층 청년들일수록 그렇다(이수빈·최성수, 2020). 이런 상황에서 직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육성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적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중등교육 내의 직업교육 계열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엄청난 규모의 대졸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졸자 대비 대학 교육 프리미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김창환·변수용, 2021)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상대적 프리미엄은 소폭이지만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17)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중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도 2011년 50%에서 2017년 33%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43%까지 증가했다(교육통계연보).

따라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되 전문대학과 4년제 사립대학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실시하는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혹은 아예 하나로 통합된 4~5년 학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전문대학과 같이 하위 계층,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역량을 높일 경우,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전문대 졸업자들의 상승이동률은 다른 대학 졸업자들과 달리 눈에 띄게 상승했다(이수빈·최성수, 2020).

최근 많은 대학들에서 학과 조정 및 통폐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교육 수요에 맞춘 새로운 학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활발하다. 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제2절

1990년대 대학 교육 확대 정책이 기회 불평등(사회이동성)에 가져온 결과 평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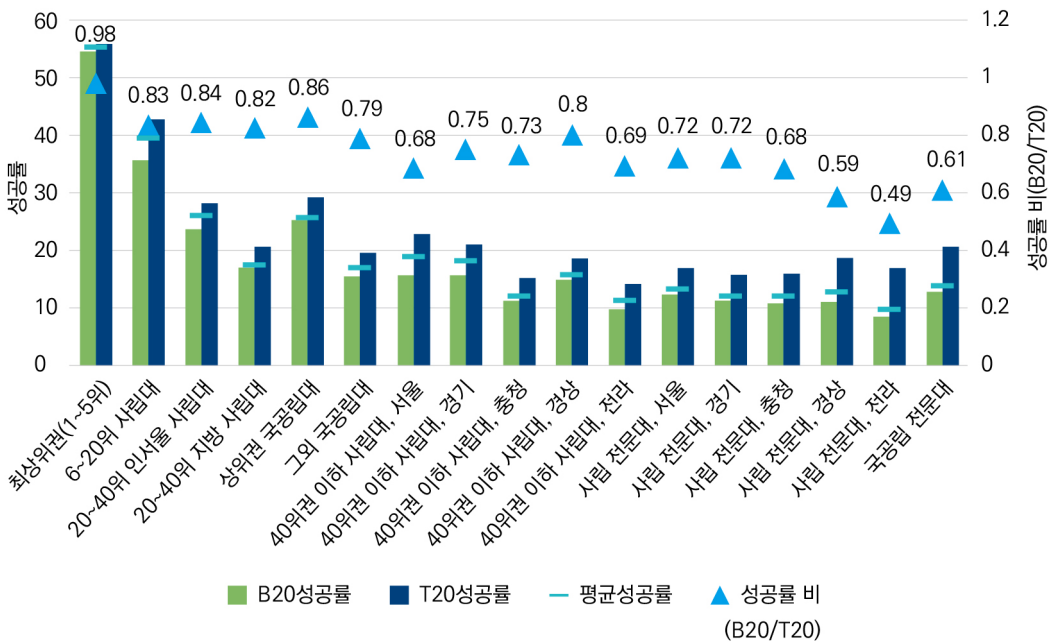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있었던 대규모 대학 교육 확대 정책이 가족 배경에 따른 세대 간 기회 불평등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당시 이뤄졌던 대학 교육의 확장이 어떤 성격으로 이뤄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학들을 설립하면서 기존 고등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식이었다면 공교육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고등교육의 시장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민간 자본이 쉽게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있었던 대학 교육 확장은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대학 교육 확대는 많은 수의 사립대학들이 설립되면서 이뤄졌는데, 이 시기 신설 대학들은 모두 사립이었고 또한 대부분 지방 소재였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의 대학 교육 팽창이 사회이동성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

먼저 지적해야 할 지점은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대학 교육의 경제적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그것이 노동시장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을 상승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고학력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숙련 노동의 수요와 가치가 상승한 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국의 경우 대규모의 대졸자 증가가 대학 교육 확대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숙련노동의 공급이 대학 교육 프리미엄의 증가를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한국 노동자들의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1990년대 초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창환·변수용, 2021). 대학 교육 확대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 교육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들에 비해 대졸자들 사이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대학 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되면 그만큼 졸업 후 자신의 성취에서 부모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인데, 대학을 평등 촉진자(equalizer)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따라서 대학 확대에 의해 대졸자 비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사회이동성도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한국의 대규모 대학 교육 확대는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Chung and Park, 2019).

한편 1990년대 이후로 신설된 대학들이 과연 충분한 평등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별개로 던져 볼 수 있다. 지방 소재 4년제 사립대학들과 전문대학들이 다른 상위권 대학들, 국립대학들에 비해 졸업생들의 졸업 후 소득과 부모 소득 간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수빈·최성수, 2020). [그림 4-1]은 이런 양상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같은 대학군 내에서도 고소득 부모를 둔 졸업자와 저소득 부모를 둔 졸업자 간 졸업 후 본인이 고소득자가 될 확률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대학 확대 이전부터 있었던 상위권, 국립대학들 사이에서는 작게 나타나지만 지방 사립대 및 전문대 사이에서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확대 과정을 통해 신설된 대학들의 평등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기존 대학들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료 : GOM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수빈·최성수(2020), p. 209의 분석 결과

[그림 4-1] 대학군별 부모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 고소득 진입 확률의 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대학 교육 확대를 통해 신설된 대학들이 사회이동성을 촉진한 것은 맞지만 기존 대학들이 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던 대학 교육 확대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 즉 국가가 직접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고등교육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대학 설립 준칙 완화를 통해 민간 자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확장했다는 측면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민간 자본이 하위 계층 학생들의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면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만한 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의 대학 교육 확대는 학생들이 학업 및 성취에서 가족 자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들을 대거 양산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해법은 국가 재정을 통해 이런 불리한 여건의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국가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국가 장학금 확대 등 과거에 비해 한국의 고등교육 국가 지원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 역할의 증가가 충분한 수준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학생들 간 출신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가 대학들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규모는 입시 서열 순서와 거의 다르지 않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범, 2020; 임희성, 2021). 정책이 학생들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촉진하는 셈이다. 연구진이 미공개 데이터를 통해 대학 군별 1인당 국가 장학금의 수혜 총액을 추산한 결과, 국가 장학금 수혜 금액이 최상위 대학에 재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장학금이 확대될수록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혜택이 상위권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만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이야기다. 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출신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를 감안하면 이 역시 국가 지원이 불평등을 충분히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일례를 보여 주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제언은 일단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꾸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투입 수준은 OECD 내에서 여전히 최하 수준이다(OECD, 2019).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과 같이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서 학비를 사실상 없애는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만 지금처럼 OECD 최하 수준의 재정 규모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 내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 대학 자체의 위기, 지방의 위기라는 다중적 고등교육 위기의 상황이다. 정부의 투자를 최소화하고 사립대학들에 주된 책임을 아웃소싱하는 과거 방식에 기대서는 이런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정부의 실패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집단은 하위 계층,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반적인 사회이동성 저하와 그에 따른 진짜 공정성 위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다수 사립대학에 대한 인허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및 대학 개편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부실 대학 정리를 목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일반 재정지원대학 선정·탈락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정책 및 이에 따른 재정 지원 중단이라는 처벌에 기반한 조정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미래 수요를 파악한 대학의 직업교육 연계 프로그램 마련, 전공의 학문성, 특수성, 무엇보다 형평성을 고려한 대학과 학과의 종합적 재편 등 미래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진지한 지원책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교육 불평등을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엘리트 대학 중심 이공계 지원 정책과 젠더 및 계층 불평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술 혁신 수준이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매년 조사하는 블룸버그 혁신평가에서 1위를(2021년 기준), 제조업 로봇 자동화 수준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2019년 기준), 연구·개발(R&D) 수준은 절대금액 기준 세계 5위, GDP 대비 2위 수준(2019년 기준)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대외적인 인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이공계열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강조하고 지원을 늘려 왔다. 앞서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이 대학마다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것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나타나는 이런 차이는 주로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때문에 발생한다(임희성, 2021).

이렇게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이 이공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이런 이공계 중심의 지원이 젠더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2장의 KIEOD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공계열 선택을 둘러싼 성별 분리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공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책에는 반드시 젠더 인지적 접근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 필요한 감수성을 갖추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례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일명 프라임(PRIME) 사업]은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정원을 이공계열 전공으로 전환하도록 대학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젠더적 관점에서 어떤 고려와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교육 당국이 밝힌 사업의 공식적인 의의와 계획 과정에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유정기, 201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진학의 양적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앞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리함이 개선될 전망은 요원한 상황이다. 많은 부

분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기인한다는 진단은 틀리지 않지만,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불이익이 대학 졸업 직후 경력 초기부터 상당한 정도로 발생한다는 점(김창환·오병돈, 2019)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3장의 분석 결과, 대학원 진학 차원에서는 여전한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학 진학 과정에서 성별 전공 분리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공계열 중심의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정부의 이공계열 지원 강화가 의도하지 않게 이공계 전공 선택에서 성별 분리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재정 지원의 효과가 남녀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는 단지 젠더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 차원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공계 중심 지원이 정부 재정 지원에서 비상위권 대학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분명한 계층적 효과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계층 인지적 시각을 가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에서야말로 젠더 및 계층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공계 편향적 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 국가 장학금이나 국가 지원금의 대다수는 이공계열에 주어지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진학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전공 선택 자체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하락 등 인문사회계 교육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공계 학생들의 교양교육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 지원은 형평과 분배의 측면을 반영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인문사회계에도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인문학적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이는 단순히 기술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는 인문사회적 감수성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이 보다 균형각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4절

대학원 이상 교육의 출신 계층 및 젠더 효과 감소 필요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위대한 평등의 촉진자로서의 대학원의 기대와 달리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성별 격차 역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하위 계층에서 성별 격차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대학원 이상 진학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에서 하위 계층 남성의 진학을 하락이 문제가 되듯이, 대학원 이상 교육에서도 성별과 계층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대학원 진학에서 출신 계층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하위 계층 출신 남성의 대학 진학을 하락이나, 여성 및 하위 계층의 낮은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두 경우 모두에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문의 분석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대학원 진학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일반대학원의 교육은 향후 연구 직종에 종사하게 될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인 만큼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학력, 성별과 같은 요인이 진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BK21(Brain Korea 21: 두뇌한국 21)은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신진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다. BK21과 같은 교육부의 지원 사업은 미래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상당히 풍족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만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BK21 프로그램이 특정한 학교(대부분의 경우 최상위 명문대)의 특정 학과에 대한 지원이며, 이들 대다수가 상위, 최상위 명문대학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학교/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하위 계층 출신 학생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BK21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우선 BK21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상위

명문 대학원의 입학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지방의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해도 대학원의 규모가 작고 학교와 학과의 재정지원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자비 진학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은 진학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한계이다. 최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에도 BK21 프로그램을 분산하려 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근본적으로 수월성을 지닌 특정 학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문과 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학 졸업생들의 보편적인 진학 기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하위 계층 출신의,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더욱 일반적인 지원, 가령 성적이나 연구 능력,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일반 학생이 순수학문과 관련한 대학원에 진학할 때 주어질 수 있는 국가의 일반장학금이나 대여장학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상위 명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사립대 및 지방 소재 사립대에서도 대학원 진학의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는 3장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양성평등적인 진학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국비유학장학금이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국내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도 하위 계층 출신이나 지방 출신 인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진학 희망 인구를 고려할 때, 이의 진학에 필요한 비용 역시 최소한 대여 형태로라도 주어질 수 있다면 순수학문 전공에 재능과 열정을 지닌 학생들의 선택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 선택 자체의 계층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상위 계층 출신의 이공계 선택 현상이 관찰되었다. 하위 계층 출신은 고등학교에서 (보통 사교육을 통한 추가적 보충이 필요한) 수학과 과학 심화 과정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렵다. 이는 수학, 과학 과목 포기 현상으로 이어져 하위 계층 출신 여학생의 경우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계열로의 진학이나, 남학생의 경우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또는 아예 대학 진학 포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미래 소득이 보다 더 높은 이공계 전공으로의 진학에 성별에 따른 구조적 제약 요인 혹은 편견이나 문화적 요인에 따르는 제약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도 상당수 존재한다. 여성의 이공계 진학에 대한 편견이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실질적 수준에서의 격차를 크게 줄이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사회 진출 초기에 겪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사고들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진학 선택이 전적으로 출신 배경의 경제적 제약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보편적이고 형평의 시각에 기초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5절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보통 일반 시민들에게 수시나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수능시험이 더 공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중심으로 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그 어떤 시험 방식보다 오히려 공정하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수시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은 (특히 상위권 대학의) 수시 원서에 채워 넣을 항목과 경험들이 결여되어 있기에 기회의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상층계급일수록 수시 혹은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수능을 선호한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문정주·최을, 2019), 통념과는 다르게 수능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결과 사회적 형평이나 다양성을 고려한 선발의 폭이 더 크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지적과 해법은 대부분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대부분 기회의 공정 담론을 통한 기계적인 공정 추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즉, 상위 계층 출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간에는 애초에 그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따라잡기 매우 어려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적인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아무리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계적인 기회의 평등 보장에 치중해있다면 이것이 결과적 평등의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더 과감한 정책적 고려는 어떠한가? 즉, 대학의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더 높이고,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대학 입시에서의 성적이 다소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교육을 받는 경우 학력 수준의 편차는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선발이 존재한다고는 해도, 상위 명문대학의

경우 저소득층의 진학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수능이나 수시 혹은 학생부 등 모든 측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선발을 어느 정도 정원 외로 두는 정책적 고려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 우선선발과 같은 결과적 평등에 대한 정책들처럼 교육에서의 사회적 이동성은 단순히 기계적인 기회의 평등(가령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달성되는 측면보다는, 결과적 평등을 위한 과감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시간 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 어떤 입시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상위 계층은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의 경로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이들의 열망과 더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를 이기적인 것으로만 보고 비판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하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지속적인 실험이 사실 교육 불평등 완화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다. 모두가 최고 명문대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인가? 학생들의 대다수는 평범한 수준의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또한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는 더는 명문대 진학만이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최상위 명문대 진학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관심이나 입시제도의 기계적 공정성에 대한 과한 집착보다는 수많은 일반 대학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지원, 그래서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적절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졸업하여 충분히 좋은 인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교육 지원이 아닐까?

이러한 맥락에서 부실 대학 정리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수험생의 선택이나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를 정부 재정 지원을 담보로 하는 과도한 대학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강제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대학의 수직적 계층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의 할당된 비율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명백한 부실 대학 정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시급하며, 교육부의 역할은 과도한 개입보다는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은 아마도 이러한 견해에서 출발할 것이다. 대학 입시에 너무 과도한 사회적 자원과 정책적 노력을 쏟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다수의 대학들이 인문사회계, 이공계 상관없이 균일하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그리하여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질적 차이를 줄여 졸업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좁게는 교육 불평등, 나아가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나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나 더 바람직한 정책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부의 균형적인 학생 및 대학 지원, 그리고 단순히 기계적 기회의 평등보다는 하위 계층 출신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촉진하는 등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교육개혁위원회. 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제2차 대통령 보고서).”
- 길혜지·백순근·양현경·신은주. 2018.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2): 453-475.
- 김기현. 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9(5): 109-142.
- 김두환. 2008.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 대학진학 포부 및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8(4): 29-53
- 김두환. 2015.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과 교육 불평등: '학력주의'의 관점에서.” 97-143. 장덕진 외. *압축성장의 고고학: 사회조사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1965-2015*. 한울 아카데미.
- 김성훈·김안나. 2009.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특목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4): 47-61.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27-52.
- 김원. 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역사의서*. 개정판. 서울: 이매진.
- 김창환·변수용. 2021.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 박영스토리*.
- 김창환·신희연. 2020. “입시 제도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법칙과 엘리트 대학 진학의 공정성.” *한국사회학*. 54(3): 35-83.
- 김창환·오병돈. 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167-204.

- 문수연. 2016.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 분석- 중간계급 및 코호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141-171.
- 문정주·최율. 2019.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 한국사회학 53(3), 175-215.
- 박병영·김미란·김기현·류기락. 2011.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V):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방하남·김기현.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31-65.
-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인식 33(12):204-24.
- 변수용·이성균. 202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한국에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박영스토리.
-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위세 높은 대학 진학에서의 외고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2(3): 133-162.
- 성문주. 2011. “젠더와 교육 기회 불평등: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나타난 젠더와 가족 배경 효과.” 젠더와 문화 4(1):7-42.
- 오창환·정철영. 2009.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199-218.
- 유정기. 2016.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행복한 교육(교육부), February.
- 이범. 2020. 문재인 이후의 교육: 교육평론가 이범의 솔직하고 대담한 한국교육 왜도난마. 메디치미디어.
- 이수빈·최성수. 2020.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과 유지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 한국사회학 54(1):181-240.
- 이영민·임정연. 2011.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233-258.
- 이정규. 2001. “대학정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아시아교육연구 2(2):21-40.

- 임희성. 2021.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대학교육연구소 현안보고 22호. 대학교육연구소.
-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FAL):671-708.
- 장상수. 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 장상수. 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냈는가?” 한국사회학 40(1):127-56.
- 차성현·엄문영·민병철. 2014. “대학원 진학 결정의 영향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2); 209-233.
- 최성수·이수빈. 2018.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4): 77-113.
- 최인희. 2020. “대학원생의 특징 및 대학원 진학 영향 요인 분석: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8(4): 23-43.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9.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 통계청-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21. "취학을 및 진학을 현황". 시계열 조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520&stts_cd=152001&freq=Y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9. 한국전문대학교육 30년: 1979-200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Alon, Sigal. 2009. “The Evolution of Class Inequality in Higher Education Competition, Exclusion, and Adap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5):731-55. doi: 10.1177/000312240907400503.
- Autor, David H. 2014. “Skills, Education, and the Rise of Earnings Inequality among the ‘Other 99 Percent.’” Science 344(6186):843-51. doi:

10.1126/science.1251868.

Autor, David H., Lawrence F. Katz, and Melissa S. Kearney. 2008. "Trends in US wage inequality: Revising the revisionis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2): 300-323.

Becker, Gary S.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landen, Jo, and Stephen Machin. 2004. "Educational Inequality and the Expansion of UK Higher Education."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1(2):230-49. doi: 10.1111/j.0036-9292.2004.00304.x.

Breen, Richard, and Jan O. Jonsson. 2005.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cent Research on Educational Attainment and Social Mobi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223-43. doi: 10.2307/29737718.

Breen, Richard, and John H. Goldthorpe. 1997. "Explain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Towards a Formal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ity and Society* 9(3):275-305. doi: 10.1177/104346397009003002.

Breen, Richard, Jonsson, Jan O., 2007. "Explaining change in social fluidity: educational equalization and educational expansion in twentieth-century Swed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6): 1775-1810.

Breen, Richard, Ruud Luijkx, Walter Müller, and Reinhard Pollak. 2009. "Nonpersistent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Eight Europe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5):1475-1521.

Breen, Richard, Ruud Luijkx, Walter Müller, and Reinhard Pollak. 2010. "Long-Term Trends in Educational Inequality in Europe: Class Inequalities and Gender Differenc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1):31-48. doi: 10.1093/esr/jcp001.

- Breen, Richard, Ruud, Luijckx, 2007. "Social mobility and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period and cohort trends in Britain and Germany." In: Scherer, S., Pollak, R., Otte, G., Gangl, M. (Eds.), *From Origin to Destination: Trends and Mechanisms in Social Stratification Research*. Campus Verlag, Frankfurt, NY, 102-24.
- Buchmann, Claudia, and Thomas A. DiPrete. 2006. "The Growing Female Advantage in College Completion: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 and Academic Achiev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515-41. doi: 10.1177/000312240607100401.
- Buchmann, Claudia, Thomas A. DiPrete, and Anne McDaniel. 2008. "Gender Inequalities in Edu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1):319-37. doi: 10.1146/annurev.soc.34.040507.134719.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yun, Soo-yong and Hyunjoon Park. 2017. "When Different Types of Education Matter: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Kore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1(1): 94-113.
- Carneiro, Pedro, and James J. Heckman. 2002. "The Evidence on Credit Constraints in Post-Secondary Schooling." *The Economic Journal* 112(482):705-34. doi: 10.1111/1468-0297.00075.
- Charles, Maria, and Karen Bradley. 2009. "Indulging Our Gendered Selves? Sex Segregation by Field of Study in 44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4):924-76. doi: 10.1086/595942.
- Cheng, Siwei, and Barum Park. 2020. "Flows and Boundaries: A Network Approach to Studying Occupational Mobility in the Labor Marke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6(3):577-631. doi: 10.1086/712406.

- Choi, Kang-Shik. 1996. "The Impact of Shifts in Supply of College Graduates: Repercussion of Educational Reform in Kore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5(1):1-9. doi: 10.1016/0272-7757(95)00031-3.
- Choi, Seongsoo, and Subin Lee. 2021. "Gender and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Korea: Long-term Cohort Trends over the Twentieth Century." Unpublished manuscript.
- Choi, Seongsoo. 2021. "Democracy and the Educational System in South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 Choo, Hae Yeon and Myra Marx Ferree. 2010. "Practicing Intersectionality in Sociological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of Inclusions, Interactions, and Institutions in the Study of Inequalities." *Sociological Theory* 28(2): 129-149.
- Chung, Inkwan, and Hyunjoon Park. 2019.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Social Science Research* 83
- Collins, Randall. 1979. *The Credential Society: A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NY: Academic Press.
- Dale, Stacy Berg and Alan B. Krueger. 2002. "Estimating the Payoff to Attending a More Selective College: an Application of Selection on Observables and Unobservabl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4): 1491-1528.
- Dale, Stacy Berg and Alan B. Krueger. 2014. "Estimating the Effects of College Characteristics over the Career Using Administrative Earnings Data."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9(2): 323-358.
- Davies, Scott and Neil Guppy. 1997. "Fields of Study, College Selectivity, and Student Inequalities in Higher Education." *Social Forces* 75(4): 1417-1438.

- DiPrete, Thomas A. and Claudia Buchmann. 2013. *The Rise of Women: the Growing Gender Gap in Education and What It Means for American School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Prete, Thomas A., and Claudia Buchmann. 2014.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w Century: Trends, Causes and Consequences." Pp. 375-414 in *Diversity and Disparities: America Enters a New Century*, edited by J. Logan. Russell Sage Foundation.
- Dougherty, Kevin J. 1994. *The Contradictory College: The Conflicting Origins, Impacts, and Futures of the Community Colle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owney, Douglas B. 2020. *How schools really matter: Why our assumption about schools and inequality is mostly wro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ngland, Paula, Li, Su. 2006. "Desegregation Stalled: The Changing Gender Composition of College Majors, 1971-2002." *Gender & Society* 20(5):657-77.
- Falcon, Julie and Pierre Bataille. 2018. "Equalization or Reproduction? Long-Term Trend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dvantages in Higher Education in Franc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4(4): 335-347.
- García, Jorge Luis, James J. Heckman, and Anna L. Ziff. 2018. "Gender Differences in the Benefits of an Influential Early Childhood Program." *European Economic Review* 109:9-22. doi: 10.1016/j.eurocorev.2018.06.009.
- Gerber, Theodore P., and Sin Yi Cheung. 2008. "Horizontal Stratifica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Forms,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1):299-318. doi: 10.1146/annurev.soc.34.040507.134604.

- Goldin, Claudia, and Lawrence F. Katz. 2010.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yette, Kimberly A. and Ann L. Mullen. 2006. "Who Studies the Arts and Sciences? Social Background and the Choice and Consequences of Undergraduate Field of Study."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3): 497-538.
- Granovetter, Mark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eckman, James J. 2006. "Skill Formation and 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Disadvantaged Children." *Science* 312(5782):1900-1902. doi: 10.1126/science.1128898.
- Hout, Michael, 1984. "Status, autonomy, and training in occupational mo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6), 1379-1409.
- Hout, Michael,. 2006.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and Essentially Maintained Inequality: Crossnational Comparisons." *Sociological Theory and Methods* 21(2): 237-252.
- Hout, Michael. 1988. "More universalism, less structural mobility: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in the 1980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1358-1400.
- Jacobs, Jerry A. 1995. "Gender and Academic Specialties: Trends among Recipients of College Degrees in the 1980s." *Sociology of Education* 68(1):81-98.
- Kariya, Takehiko, and James E. Rosenbaum. 1999. "Bright Flight: Unintended Consequences of Detracking Policy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7(3):210-30.
- Kim, ChangHwan and Arthur Sakamoto. 2010. "Have Asian American Men Achieved Labor Market Parity with Whi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934-57.

- Kim, ChangHwan and Christopher R. Tamborini. 2019. "Are They Still Worth It? The Long-Run Earnings Benefits of an Associate Degree, Vocational Diploma or Certificate, and Some College."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5(3): 64-85.
- Kim, ChangHwan, Christopher R. Tamborini, and Arthur Sakamoto. 2015. "Field of Study in College and Lifetime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88(4):320-39. doi: 10.1177/0038040715602132.
- Kim, Taehoon. 2021. "Estimating Pecuniary and Non-Pecuniary Returns to College Education for Academically Marginal Students: Evidence from the College Enrollment Quota Policy in South Kore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83:102-142. doi: 10.1016/j.econedurev.2021.102142.
- Legewie, Joscha, and Thomas A. DiPrete. 2009. "Family Determinants of the Changing Gender Gap in Educational Attainment: A Comparison of the U.S. and Germany." *Schmollers Jahrbuch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Studies)* 129(2):1-13.
- Lucas, Samuel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1642-1690.
- Lucas, Samuel R. 2009. "Stratification Theory,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Educational Attainment." *Rationality and Society* 21(4):459-511. doi: 10.1177/1043463109348987.
- Lucas, Samuel R. 2018. "Comment: On Ignoring the Literature and Relevant Tests in Evaluating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Social Science Research* 71:1-5. doi: 10.1016/j.ssresearch.2017.08.012.
- Lucas, Samuel R. and Delma Bryne. 2017.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An Introduc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1(1): 3-7.

- Lukianoff, Greg, and Jonathan Haidt. 2019. *The Coddling of the American Mind: How Good Intentions and Bad Ideas Are Setting Up a Generation for Failure*. Illustrated edition. New York City: Penguin Books.
- Mare, Robert D. 1980. "Social Background and School Continuation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5(370):295-305.
- McDaniel, Anne. 2013. "Parental Education and the Gender Gap in University Completion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29(3):71-84. doi: 10.4054/DemRes.2013.29.3.
- Millett, Catherine. M. 2003. How undergraduate loan debt affects application and enrollment in graduate or first professional school.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4(4): 386-427.
- Mize, Trenton D. 2019. "Best Practices for Estimating, Interpreting, and Presenting Nonlinear Interaction Effects." *Sociological Science* 6(4); 10.15195/v6.a4.
- Mullen, Ann L., Kimberly A. Goyette, and Joseph A. Soares. 2003. "Who Goes to Graduate School? Soci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Educational Continuation after College." *Sociology of Education* 76(2): 143-169.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OECD.
-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Paris, France: OECD Publishing.
- Oh, Byeongdon and ChagnHwan Kim. 2020. "Broken Promise of College? New Educational Sorting Mechanisms for Intergenerational Association in the 21st Century." *Social Science Research* 86: Article 102375.
- Okahana, Hironao and Enyu Zhou. 2019. "Graduate Enrollment and Degrees: 2008 to 2018." *Council of Graduate Schools Report*.
- Park, Hyunjoon. 2003.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in Korea."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14:33-58.

- Park, Hyunjoon. 2007. "South Korea: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Pp. 87-112 in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osselt, Julie R. and Eric Grodsky. 2017. "Graduate Educ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 353-378.
- Raftery, Adrian E., and Michael Hout.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41-62.
- Reardon, Sean F. 2011. "The Widening Academic Achievement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New Evidence and Possible Explanations." Pp. 91-115 in *Whither Opportunity?: Rising Inequality, Schools, and Children's Life Chances*, edited by G. J. Duncan and R. J. Murnane. New York, NY: Russell Sage.
- Rosenbaum, James E. 2001. *Beyond College for All: Career paths for the Forgotten Half*. Russell Sage Foundation.
- Rosenbaum, James E., Caitlin E. Ahearn, and Janet E. Rosenbaum. 2017. *Bridging the Gaps: College Pathways to Career Succes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eth, Michael J. 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havit, Yossi, and Hans-Peter Blossfeld, eds. 1993.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Boulder, CO: Westview Press.
- Shavit, Yossi, Richard Arum, Adam Gamoran, and Gila Menahem, eds. 2007.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oet, Gijsbert, and David C. Geary. 2018. "The Gender-Equality Paradox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Education." *Psychological Science* 29(4):581-93. doi: 10.1177/0956797617741719.
- Tilly, Charles. 1999. *Durable Inequal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olsma, Jochem, Marcel Coenders, and Marcel Lubbers. 2007. "Trends in Ethnic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Netherlands: A Cohort Desig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325-339.
- Torche, Florencia. 2010. "Economic Crisis and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Latin America." *Sociology of Education* 83(2):85-110. doi: 10.1177/0038040710367935.
- Torche, Florencia. 2011. "Is a College Degree Still the Great Equalizer? Intergenerational Mobility across Levels of 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3): 763-807.
- Torche, Florencia. 2015. "Analyses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 Interdisciplinary Review."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7(1): 37-62.
- Triventi, Moris. 2013.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Inequality: A Comparative Study of 11 European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3):489-502. doi: 10.1093/esr/jcr092.
- Twenge, J. M. 2017. "Have smartphones destroyed a generation". *The Atlantic*, September.
- Twenge, Jean M. 2017. *IGen: Why Today's Super-Connected Kids Are Growing Up Less Rebellious, More Tolerant, Less Happy--and Completely Unprepared for Adulthood--and What That Means for the Rest of Us*. New York: Atria Books.
- Vallet, Louis Andre, 2004. "Change in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in France from the 1970s to the 1990s and its Explanation: an Analysis

- Following the CASMIN Approach.” In: Richard Breen (Ed), *Social Mobility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Hek, Margriet, Gerbert Kraaykamp and Maarten H.J. Wolbers. 2016. “Comparing the gender gap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impact of emancipatory contexts in 33 cohorts across 33 countries.”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22(5-6): 260-282.
- Wang, Yapeng. 2021. “Closing the Gender Gap in College Attendance: Variation by Family Background in China over Time.” *Social Science Research* 98: Article 102578. doi: 10.1016/j.ssresearch.2021.102578.
- Witteveen, Dirk and Paul Attewell. 2020. “Reconsidering the ‘meritocratic power of a college degre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66: 100479.
- Witteveen, Dirk. 2020. “Encouraged or Discouraged? The Effect of Adverse Macroeconomic Conditions on School Leaving and Reentry.” *Sociology of Education* 94(2):103-23. doi: 10.1177/0038040720960718.
- Xie, Yu and Kimberly Goyette. 2003. “Social Mobility and the Educational Choice of Asian Americans.” *Social Science Research* 32: 467-498.
- Xie, Yu, Michael Fang, and Kimberlee Shauman. 2015. “STEM Edu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41(1):331-357. doi: 10.1146/annurev-soc-071312-145659.
- Yang, Myungji. 2012. “The Making of the Urban Middle Class in South Korea (1961-1979): Nation-Building, Discipline, and the Birth of the Ideal National Subjects.” *Sociological Inquiry* 82(3):424-445. doi: 10.1111/j.1475-682X.2012.00412.x.

Abstract

Education Inequality and Social Mobility in Korea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 of educational inequa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xtent to which family and income background and gender affect access to higher education.

Chapter 1 briefly addressed the discourse on overall education inequality in Korea as an introduction.

Chapter 2 addressed the inequality and gender gap in college entry, analyzing the latest panel data. Th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terms of admissions to four-year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he gender gap completely disappeared and differences only existed between classes. However, it was newly found that the gender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lower class is growing with respect to admissions to college and four-year universities. Meanwhile,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selec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was not narrowed, but instead was strengthened.

Chapter 3 focused on educational inequality and gender gaps in graduate school advancement in Korea using the latest data. In the graduate school entrance analysis, the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class of the student's family on advancement to graduate school was confi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ocioeconomic class of the student's famil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raduate school advancement in Kore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income and education level and graduate school advancement differs by

gender. The findings imply that family background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for women going to graduate school than men.

Lastly, Chapter 4 provided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based on these findings.

부록

KIEOD의 가중치 구성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한국노동패널(KLIPS)

- 2019년 현재 27세인 1992년생 출생 코호트까지
- 지역변수가 14세 성장지이므로 각 출생 코호트 그룹별로 최연소자가 10세가 되는 해의 지역, 성별, 연령 분포에 맞춘 가중치를 생성 활용.

코호트	연령	센서스 기준 연도
1940년 이전 출생(1921~)	4~23세 이상	1944
1941~1950	10~19세	1960
1951~1960	10~19세	1970
1961~1970	10~19세	1980
1971~1980	10~19세	1990
1981~1990	10~19세	2000

코호트별 15 지역*2 성별*1개 연령 집단 (10년 단위)= 30개 셀에 따른 가중치

2.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 고 3 코호트(1986년생)는 26세(2012년) 당시 교육 수준(졸업 내지는 재학)을 보기 때문에 9차 연도(2012년) 종단 가중치 활용.
- 중 3 코호트(1989년생)는 26세(2015년) 당시 교육 수준(졸업 내지는 재학)을 보기 때문에 12차 연도(2015년) 종단 가중치 활용.
- 성별, 주소지, 부모 배경은 1차 연도(2004년, 각각 14세, 17세) 활용(중 3 코호트는 4차 연도에 추가 표본이 유입되었으므로 추가 표본은 4차 연도 2007년 활용).

3. 청년패널(YP)

- 2001년 YP 표본(2001년 당시 15~29세, 즉 1972~1986년생)은 6차(2006년) 조사 당시 28~34세(1972~1978년생)만 활용(이후 출생자 표본은 2007년 YP 표본을 이용), 6차 연도(2006년) 종단 가중치 활용.
- 1972~1975년 출생자는 1990년 센서스에서 10~19세 당시 지역과 성별에 따른 분포를 바탕으로 가중치 구성. 그 이후 출생자는 1995년 센서스에서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생성함.
- 2007년 YP 표본(2007년 당시 15~29세, 즉 1978~1992년생)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봄.
 - 1979~1982년생은 2008년(2차), 즉 26~29세 교육 변수를 보므로 2차 연도 종단 가중치 활용.
 - 1983~1986년생은 2012년(6차), 즉 26~29세 교육 변수를 보므로 6차 연도 종단 가중치 활용.
 - 1987~1990년생은 2016년(10차), 즉 26~29세 교육 변수를 보므로 10차 연도 종단 가중치 활용.
- 가족 배경 변수는 모두 1차 연도(2001, 2007)를 활용.

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누적 데이터의 final weight 활용(즉, 2018년 기준)

5. 한국복지패널(KOWEPS)

- 학력이 3차 연도(2007년)에 조사되었으므로 3차 연도 종단가중치 활용.
- 3차 연도(2007년)에 27세가 되는 1980년도 출생 코호트까지만 활용(이후 출생 코호트는 버림).

6.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KESSM)

- 조사 자체가 코호트별로 이루어졌고 코호트별 가중치가 있으므로 제공된 가중치를 그대로 활용하면 됨.

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1981년생부터 1990년생까지만 포함.
- 2010, 2015년 기준(센서스 데이터 이용) 대학 교육을 받은 모집단 성별, 고교 소재지 (센서스는 주소지)에 따른 가중치 구성.
- 2005~2007년은 만 14세 성장지, 그 이후는 고교 소재지.
- 15 지역 * 2 성별 * 5개 연령집단 (=150개 셀 가중치)

출생 연도	연령	기준 연도
1981~1985	20-24세	2005
1986~1990	20-24세	2010
1991~1992	23-24세	2015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인 쇄 2021년 12월 27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명문인쇄공사(02-2079-9200)

©2021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57-1 (93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